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의류학석사 학위논문

현대적 추의 관점에서 살펴본 패션 필름

- SHOWstudio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홍 준 영

현대적 추의 관점에서 살펴본 패션 필름

- SHOWstudio의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전 재 훈

이 논문을 의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홍 준 영

홍준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국문초록

오랜 기간 미의 부정형으로서 부차적 기능만을 담당했던 추는 오늘날 독자적인 미적 범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미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추는 조형 예술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영화, 그리고 패션에 이르기까지 현대 예술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런웨이는 디자이너의 시즌 콘셉트를 제시하는 핵심적인 미디어였지만,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대중들의 미적 소양이 높아짐에 따라 패션업계는 패션 필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주목하게 되었다. 런웨이의 기능을 대신했던 초창기의 패션 필름과는 달리, 2000년대 이후 패션 필름은 혁신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나, 다양한 신진 아티스트와의 적극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미의 극단을 탐구하는 패션 이미지 메이커 닉 나이트는 SHOWstudio를 통해 패션 필름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추 개념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현대적 관점의 추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추 개념의 사적 고찰을 통해 추의 시대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20세기 이후 추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현대적 관점의 추를 도출한다. 둘째, 현대적 추의 관점에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한 추 개념의 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대적 추의 관점으로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도출했다. 이후, 패션 필름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SHOWstudio의 특징과 주요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사례는 SHOWstudio의 설립 시점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fashion film’이란 태그를 달고 있는 SHOWstudio의 모든 영상을 시청한 후, 본 연구의 관점에 부합하는 145편을 최종 사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으로 SHOWstudio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HOWstudio의 작품에서는 죽음과 성 금기를 위반한 작품이 나

타났다. 죽음 금기의 위반을 표현한 패션 필름은 마카브르를 표현한 작품과 애브젝트를 가시화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 금기를 위반한 작품으로는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품과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성도착증을 주제로 한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를 표현한 패션 필름은 초자연적 현상과 대상에서 기인한 공포를 다룬 작품, 불쾌한 골짜기 효과를 다룬 작품, 비이성적인 상황을 상정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셋째,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를 표현한 패션 필름은 조야한 감성의 이미지로 권위의 격하 및 풍자적 메시지를 내포한 작품과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를 표현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넷째,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윤리적 결함을 다룬 작품은 정치적 문제와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다룬 작품,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한 작품, 여성 문제를 내포한 작품, 그리고 물질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사례 연구 결과 SHOWstudio의 패션 필름 속에서 복식의 역할이 추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에서 복식은 죽음과 관련된 조형적 형태를 통해 패션 필름의 주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나 성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에서 복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속옷이나 스타킹, 라텍스와 같이 성적 페티시의 대상물로 나타났다. 한편,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가 나타난 작품에서는 복식의 역할이 미미했다. 기괴한 헤드피스나 마스크 등의 복식이 작품의 분위기에 일조하기도 했지만, 불쾌한 감정의 원인은 초현실적 대상이나 상황 자체에서 기인한 경우가 대다수로 복식이 추의 감정을 유발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행하지 못했다. 천박한 취향을 표현한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작품의 조형성을 강화하거나, 복식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작품의 주제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유사하게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가 나타난 작품에서도 복식은 그 자체가 주제가 되거나 패션 필름의 서사구조에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다. 작품 속에서 상징적 의미가 강한 코르셋, 똑같은 옷을 착용한 사람들, 신체를 속박한 형태의 옷 등을 통해 현대 사회의 윤리적 결함을 단적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추의 조형성 분석에 집중되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금기의 위반, 불쾌한 감정, 천박한 취향, 윤리적 결함과 같이 다양한 추의 관점에

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분석했다. 주류 미디어보다 검열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SHOWstudio의 특성상 작품 속에서 추는 자극적 이미지와 함께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과 관련되어 나타났으며, 패션 필름 속의 복식은 영상의 시각효과를 강화하거나 주제 전달의 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주제로 한 작품 속에서 복식은 그 자체가 주제로서 영상의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주요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는 패션 필름에서 나타나는 추를 분석하여, 런웨이에 제한되었던 기존의 추 논의를 확장했다. 또한, 본 연구는 로젠크란츠의 추 이론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미학,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학문 분야에서 논의된 추에 대한 관점을 종합하여 현대적 관점의 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추, 미학, 복식, 패션 필름, SHOWstudio
학 번 : 2019-20296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6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7

제 2 장 추에 대한 관점과 패션 필름 ····· 13
제 1 절 추 개념의 변천 과정 ····· 13
1. 20세기 이전의 추에 대한 논의 ····· 14
2. 20세기 이후의 추에 대한 논의 ····· 28
제 2 절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 ····· 43
1.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 46
2.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 49
3.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 50
4.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 ····· 52
제 3 절 패션 필름과 SHOWstudio ····· 54
1. 패션 필름의 등장 배경과 정의 ····· 54
2. 패션 필름의 유형 ····· 56
3. 닉 나이트와 SHOWstudio ····· 59
4. SHOWstudio의 주요 프로젝트 ····· 62

제 3 장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 나타나는 추 ····· 68
제 1 절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 71

1. 죽음 금기의 위반 ····· 71
2. 성 금기의 위반 ····· 81
제 2 절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 93
1. 초자연적 현상과 존재로부터의 공포 ····· 94
2. 불쾌한 골짜기 효과로 인한 긴장감 ····· 98
3. 비이성적 상황에서 기인한 생경함 ····· 102
제 3 절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 108
1. 권위의 격하 및 풍자 ····· 108
2.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 ····· 115
제 4 절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 ····· 120
1. 정치적 문제와 전쟁 ····· 120
2. 소수자가 받는 차별 ····· 123
3.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 ····· 124
4. 여성 문제 ····· 125
5. 물질주의 ····· 127
제 5 절 SHOWstudio의 패션 필름 속 복식의 역할 ·· 137

제 4 장 결 론 ····· 142

참고문헌 ····· 148

Abstract ····· 191

표 목 차

<표 1> SHOWstudio의 프로젝트별 패션 필름 ····· 9
<표 2> 추의 관점에 따른 연도별 작품 개수 ····· 70
<표 3> 죽음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 ····· 77
<표 4> 성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 ····· 87
<표 5> 초자연적 현상과 존재로부터의 공포를 다룬 작품 ····· 96
<표 6> 불쾌한 골짜기 효과로 인한 긴장감을 다룬 작품 ····· 100
<표 7> 비이성적 상황에서 기인한 생경함을 다룬 작품 ····· 105
<표 8> 권위의 격하 및 풍자를 표현한 작품 ····· 113
<표 9>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를 다룬 작품 ····· 118
<표 10>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다룬 작품 ····· 129
<표 11> 사례 연구의 결과 ····· 137

그 림 목 차

<그림 1>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 ····· 45
<그림 2> Neck ····· 77
<그림 3> Left thigh ····· 77
<그림 4> Blood rose ····· 77
<그림 5> Branded #1 (1) ····· 78
<그림 6> Branded #1 (2) ····· 78
<그림 7> Branded #2 (1) ····· 78
<그림 8> Branded #2 (2) ····· 78
<그림 9> Echtes leder (1) ····· 78
<그림 10> Echtes leder (2) ····· 78
<그림 11> The garden (1) ····· 78
<그림 12> The garden (2) ····· 78
<그림 13> The golden fish fairytale (1) ····· 79
<그림 14> The golden fish fairytale (2) ····· 79
<그림 15> The golden fish fairytale (3) ····· 79
<그림 16> Respiration (1) ····· 79
<그림 17> Respiration (2) ····· 79
<그림 18> Noir (1) ····· 79
<그림 19> Noir (2) ····· 79
<그림 20> Noir (3) ····· 79
<그림 21> Gareth Pugh S/S 18 (1) ····· 80
<그림 22> Gareth Pugh S/S 18 (2) ····· 80
<그림 23> Maenads (1) ····· 80
<그림 24> Maenads (2) ····· 80
<그림 25> Kiss my ashes (1) ····· 80

<그림 26> Kiss my ashes (2) ····· 80
<그림 27> Ass to ashes (1) ····· 81
<그림 28> Ass to ashes (2) ····· 81
<그림 29> Chest (1) ····· 87
<그림 30> Chest (2) ····· 87
<그림 31> Chest (3) ····· 87
<그림 32> Breathless (1) ····· 88
<그림 33> Breathless (2) ····· 88
<그림 34> Genitals(male) ····· 88
<그림 35> Sexting (1) ····· 88
<그림 36> Sexting (2) ····· 88
<그림 37> Sexting (3) ····· 88
<그림 38> Genitals(female) (1) ····· 88
<그림 39> Genitals(female) (2) ····· 88
<그림 40> Jam ····· 89
<그림 41> Put your head on my shoulders (1) ····· 89
<그림 42> Put your head on my shoulders (2) ····· 89
<그림 43> Put your head on my shoulders (3) ····· 89
<그림 44> Studs (1) ····· 89
<그림 45> Studs (2) ····· 89
<그림 46> IX ····· 89
<그림 47> Solanum ····· 90
<그림 48> Buttocks ····· 90
<그림 49> Love me ····· 90
<그림 50> Soft furnishings 2017 (1) ····· 90
<그림 51> Soft furnishings 2017 (2) ····· 90
<그림 52> Reverie (1) ····· 91
<그림 53> Reverie (2) ····· 91

<그림 54> Reverie (3) ····· 91
<그림 55> Tessa (1) ····· 91
<그림 56> Tessa (2) ····· 91
<그림 57> Tessa (3) ····· 91
<그림 58> Is my mind for me ····· 91
<그림 59> Dollywood (1) ····· 92
<그림 60> Dollywood (2) ····· 92
<그림 61> Pluck (1) ····· 92
<그림 62> Pluck (2) ····· 92
<그림 63> Killer heels ····· 92
<그림 64> L'envol ····· 92
<그림 65> Girl (1) ····· 93
<그림 66> Girl (2) ····· 93
<그림 67> Persona ····· 93
<그림 68> Love is a state of mind (1) ····· 93
<그림 69> Love is a state of mind (2) ····· 93
<그림 70> Love is a state of mind (3) ····· 93
<그림 71> Aquelarre #2 ····· 96
<그림 72> Aquelarre #5 ····· 96
<그림 73> Aquelarre #10 ····· 96
<그림 74> Bedroom (1) ····· 97
<그림 75> Bedroom (2) ····· 97
<그림 76> Bedroom (3) ····· 97
<그림 77> Black (1) ····· 97
<그림 78> Black (2) ····· 97
<그림 79> Gareth Pugh A/W 17 (1) ····· 97
<그림 80> Gareth Pugh A/W 17 (2) ····· 97
<그림 81> Christian Dior A/W 20 Haute Couture (1) ····· 98

<그림 82> Christian Dior A/W 20 Haute Couture (2) ····· 98
<그림 83> Make up your mind ····· 100
<그림 84> Extraordinary gentlemen (1) ····· 101
<그림 85> Extraordinary gentlemen (2) ····· 101
<그림 86> Die verwandlung ····· 101
<그림 87> My life in nail bars (1) ····· 101
<그림 88> My life in nail bars (2) ····· 101
<그림 89> Ceremonial formality (1) ····· 101
<그림 90> Ceremonial formality (2) ····· 101
<그림 91> Je te veux (1) ····· 105
<그림 92> Je te veux (2) ····· 105
<그림 93> Lepus cornutus (1) ····· 105
<그림 94> Lepus cornutus (2) ····· 105
<그림 95> Waltz of fragments ····· 106
<그림 96> Mackerel girl ····· 106
<그림 97> Steven Klein ····· 106
<그림 98> Gasmask (1) ····· 106
<그림 99> Gasmask (2) ····· 106
<그림 100> Gasmask (3) ····· 106
<그림 101> The laboratory of capitalism (1) ····· 107
<그림 102> The laboratory of capitalism (2) ····· 107
<그림 103> Ninamounah x Stadman. Lala (1) ····· 107
<그림 104> Ninamounah x Stadman. Lala (2) ····· 107
<그림 105> Ninamounah x Stadman. Lala (3) ····· 107
<그림 106> Before and after (1) ····· 107
<그림 107> Before and after (2) ····· 107
<그림 108> Thom Browne A/W 21 (1) ····· 113
<그림 109> Thom Browne A/W 21 (2) ····· 113

<그림 110> Silicone valley part 1 ····· 113
<그림 111> Matty Bovan A/W 21 womenswear ····· 113
<그림 112> Comme des garcons (1) ····· 113
<그림 113> Comme des garcons (2) ····· 113
<그림 114> Scale (1) ····· 114
<그림 115> Scale (2) ····· 114
<그림 116> Face your mask ····· 114
<그림 117> The deep web ····· 114
<그림 118> Conspicuous consumption (1) ····· 114
<그림 119> Conspicuous consumption (2) ····· 114
<그림 120> Can't help loving that brand ····· 115
<그림 121> Turbo ····· 115
<그림 122> Guiser #1 ····· 118
<그림 123> Guiser #2 ····· 118
<그림 124> Guiser #3 ····· 118
<그림 125> Guiser #4 ····· 118
<그림 126> Boy meets wool: Loverboy ····· 118
<그림 127> Infamy (1) ····· 119
<그림 128> Infamy (2) ····· 119
<그림 129> Infamy (3) ····· 119
<그림 130> Uglyworldwide (1) ····· 119
<그림 131> Uglyworldwide (2) ····· 119
<그림 132> Uglyworldwide (3) ····· 119
<그림 133> Puberty (1) ····· 119
<그림 134> Puberty (2) ····· 119
<그림 135> White magic (1) ····· 129
<그림 136> White magic (2) ····· 129
<그림 137> White magic (3) ····· 129

<그림 138> Radical artist (1) ····· 129
<그림 139> Radical artist (2) ····· 129
<그림 140> The red shoes ····· 130
<그림 141> Genoa-we are history (1) ····· 130
<그림 142> Genoa-we are history (2) ····· 130
<그림 143> Untitled by Dean Rogers ····· 130
<그림 144> Off the rails (1) ····· 130
<그림 145> Off the rails (2) ····· 130
<그림 146> Off the rails (3) ····· 130
<그림 147> The new times ····· 131
<그림 148> Asymptote (1) ····· 131
<그림 149> Asymptote (2) ····· 131
<그림 150> Political fashion ····· 131
<그림 151> 22 July 2005 ····· 131
<그림 152> Untitled in Naomi Campbell ····· 132
<그림 153> The rite (1) ····· 132
<그림 154> The rite (2) ····· 132
<그림 155> Black balloon (1) ····· 132
<그림 156> Black balloon (2) ····· 132
<그림 157> Natural order ····· 132
<그림 158> UN.A, COLOR (1) ····· 133
<그림 159> UN.A, COLOR (2) ····· 133
<그림 160> UN.A, COLOR (3) ····· 133
<그림 161> Somnia (1) ····· 133
<그림 162> Somnia (2) ····· 133
<그림 163> Somnia (3) ····· 133
<그림 164> Somnia (4) ····· 133
<그림 165> Edith (1) ····· 133

<그림 166> Edith (2) ····· 133
<그림 167> Edith (3) ····· 133
<그림 168> #02 (1) ····· 134
<그림 169> #02 (2) ····· 134
<그림 170> Cut out (1) ····· 134
<그림 171> Cut out (2) ····· 134
<그림 172> Barbara bird (1) ····· 134
<그림 173> Barbara bird (2) ····· 134
<그림 174> Feminist (1) ····· 134
<그림 175> Feminist (2) ····· 134
<그림 176> Rear guard (1) ····· 135
<그림 177> Rear guard (2) ····· 135
<그림 178> Rear guard (3) ····· 135
<그림 179> Eat fashion (1) ····· 135
<그림 180> Eat fashion (2) ····· 135
<그림 181> Consumption ····· 135
<그림 182> Cut (1) ····· 135
<그림 183> Cut (2) ····· 135
<그림 184> Money shot (1) ····· 136
<그림 185> Money shot (2) ····· 136
<그림 186> Cry of the city (1) ····· 136
<그림 187> Cry of the city (2) ····· 136
<그림 188> Metamorphosis (1) ····· 136
<그림 189> Metamorphosis (2) ····· 136
<그림 190> Belly flop (1) ····· 136
<그림 191> Belly flop (2) ····· 13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고전적 미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실험적인 작품을 보고 관람자들은 경악하기보다는 거기서 다양한 미적 체험을 통해 의미를 획득한다. 이처럼 '추(醜)'가 미의 반대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 자리 잡은 것은 미학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최초로 추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 조차도 헤겔주의자답게, 추는 이상적인 미를 위해 종합되는 변증법적 총체성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Rosenkranz, 2008). 하지만, 프리드리히 슐레겔(Friedrich Schlegel)은 이미 19세기에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로, '흥미로움'을 목표로 하는 예술은 추한 것들을 작품 속에 표현할 수 있다는 현대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후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에 이르러 추는 비로소 미의 부산물이 아닌, 수많은 특질을 가진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 등장할 수 있었다(김은정, 2003). 또한, 수잔 손택(Susan Sontag)의 에세이를 통해 '캠프(camp)'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감수성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인간 의식의 내밀한 욕망을 파고들어 무의식을 탐구하고자 했던 정신분석학의 시도마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애브젝트(abject)'를 통해 미학적으로 해석되기에 이른다.

현대 패션에서 가레스 푸(Gareth Pugh), 릭 오웬스(Rick Owens), 톰 브라운(Thom Browne) 등과 같은 디자이너는 실험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통해 '이상적인 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다. 1980년대에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가 이미 파리에서 선보인 전위적인 컬렉션은 인체의 실루엣

에서 완전히 벗어난 디자인으로 아방가르드 패션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이러한 경향은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의 디자이너에 의해 관람자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미적 쾌감을 일으키는 극단적인 컬렉션의 계보가 전수되었고, 패션은 하나의 조형 예술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디자이너의 미적 취향을 반영하는 런웨이는 오랜 기간 패션을 다른 장르와 구분하는 핵심적인 미디어로서 기능해왔다. 하지만,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다양한 미적 현상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이 맞물려, 예술로서의 패션이 영상 매체와 결합하게 되면서 패션 필름이라는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고 움직이는 이미지로서 패션은, 다양하고 풍부한 미적 현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김선영, 2013a). 특히, 2000년도에 패션 비주얼 메이커 닉 나이트(Nick Knight)에 의해 설립된 패션 필름 전문 웹사이트인 SHOWstudio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의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까지 다양한 감성을 자극하는 실험적인 영상물을 제작해오고 있다(“SHOWstudio”, n.d.). SHOWstudio는 『Sweet(2000)』를 시작으로, 『Political fashion(2008)』, 『The fashion body(2010)』, 『Fashion fetish(2012)』, 『A beautiful darkness(2015)』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패션과 관련된 미적, 사회적 담론들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도 현대적인 미감을 세련된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2016년과 2019년의 『Fashion film awards』, 2017년부터의 『Fashion film submissions』 기획을 통해 전 세계의 창의적인 예술가와 디자이너로부터 영상 작품을 엄선하여 수상작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마다 예술가 혹은 해당 주제의 전문가와의 인터뷰 자료와 에세이를 통해 영상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작품의 제작 의도와 작품에 내재한 미적 의미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이처럼 SHOWstudio는 패션과 신체의 관계, 내밀한 성적 욕망이 반영된 패션, 정치적 사안과 패션 등 화려하기만 한 패션 이면의 다소 어두

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급진적이고 실험 정신이 강한 신진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일반적인 미의 관점에서는 이해되기 힘든 영상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각종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대의 아티스트와 함께 미의 극단을 탐구하는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추가 표현되는 양상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대 예술에서 나타나는 추함에 대해 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로젠크란츠의 추의 분류 기준인 몰형식, 부정확성, 형태의 파괴 혹은 기형을 통해 현대 무용의 표현방식을 고찰한 연구(이혜원, 2013), 로젠크란츠와 아도르노의 추에 대한 관점과 폴 리쾨르(Paul Ricoeur)의 이론을 통해 현대 시인 장정일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연구(엄경희, 2016),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숭고와 추에 대한 비교를 통해 현대 조형예술에서 불쾌감이 유발되는 원리를 탐구한 연구(Mojca, 2011), 흥미로움이라는 개념을 통해 추의 현대적 관점을 최초로 도입한 슐레겔의 낭만주의적 미학이 현대 예술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유형화한 연구 등이 있다(Cecchinato, 2017). 또한, 정신분석학에서 다루어지는 미학적 개념을 통해 현대 예술에서 나타나는 추를 분석한 연구로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분열과 오인, 그리고 근본 정서로서의 불안을 통해 추의 기원을 밝히고 현대미술에 대한 이론적 해명의 가능성을 고찰한 연구(남인숙, 2008),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자인 크리스테바의 모성적인 역겨움을 뜻하는 애브젝트를 통해 신디 셔먼(Cindy Sherman), 제니 샤빌(Jenny Saville) 등과 같은 여성 작가들의 미술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정수경, 2008; 이문정, 2012; 정연이 & 김남시, 2018).

한편,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추의 미학에 관한 연구로는 로젠크란츠의 세 가지 추의 분류 기준으로 컬렉션의 조형성을 분석한 연구(안선경 & 양숙희, 1995; 김청 & 박혜신, 2010; 윤예진, 2013; 김미현, 2019; 이시헌 & 이지현, 2020), 로젠크란츠의 추 개념을 통해 컬렉션의 메이크업을 분석한 연구(변영희 & 채금석, 2004; 최미라, 2004; 선혜미, 2007), 공포

영화의 캐릭터와 가상공간의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패션에 표현된 추를 로젠크란츠의 이론을 통해 고찰한 연구가 있다(서정립 & 진경옥, 2006; 황선희 외, 2013). 또한, 슐레겔과 헤겔의 추에 대한 대립적 견해를 바탕으로 슐레겔의 입장을 채택하여, 20세기 후반 이후의 메이크업을 분석한 연구(권구정, 2005), 아도르노의 추의 속성인 부정성, 양면성, 불확실성을 토대로 현대미술과 패션에서 나타난 추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연구(박월미 & 배수정, 2012), 아도르노의 입장과 『추의 역사(2007)』에서 움베르토 에코가 분류한 추의 유형을 결합한 이론적 틀을 통해 조형적 측면이 아닌 추의 내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 등이 있다(이정호, 2010).

한편, 패션 미디어의 한 유형으로서 패션 필름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패션 필름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연구의 목적에 맞는 분석을 한 경우이다. 패션 필름의 유형을 형식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제시한 연구(홍윤정 & 김영인, 2013; 김지예 & 서승희, 2017; 장예완 & 서승희, 2017), 형식과 기법적 측면에서 패션 필름을 모션 픽처 패션 필름과 미디어 테크놀로지 패션 필름으로 분류한 연구가 있다(권지안 & 임은혁, 2016). 또한, 뉴미디어로서 패션 필름에 나타난 이미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미지에 내재한 미적 가치를 도출한 연구(김선영, 2013a; 김세진, 2017),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패션 필름의 유형화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 차이를 규명한 연구(안상아 외, 2015), 패션 필름의 유형에 따라 광고 태도인 인지반응, 감정반응, 패션 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이정기, 2015).

둘째, 특정 브랜드의 패션 필름을 분석하여 브랜드에 내재한 아이덴티티와 헤리티지를 강화하는 도구로써 패션 필름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있다. 샤넬(Channel), 디올(Dior), 프라다(Prada) 등 럭셔리 브랜드의 정체성이 패션 필름을 통해 표현되는 양상을 고찰한 연구(범서희 & 임은혁,

2018; 박병윤, 2018; 손유경 & 김미영, 2019; 김선영, 2020; 백정현 & 배수정, 2020; 김민주, 2021),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언더아머(Under Armour)의 패션 필름에서 내러티브의 형식과 특징을 유형화한 연구가 있다(이미숙 외, 2021). 또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패션 필름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허예은 외, 2016; 손유경 & 김미영, 2020).

셋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SHOWstudio의 패션 필름 작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이다.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상호작용성과 관련하여 고찰한 연구(김지영, 2013a), 패션 필름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보고 메타리얼리티의 관점에서 표현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김세진 & 하지수, 2015), SHOWstudio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필름에 표현된 사회적 의미를 읽어낸 연구가 있다(조윤수 & 박선희, 2020). 또한,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 가레스 푸와 같이 특정 브랜드의 패션 필름에서 드러나는 미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Ritchie, 2008; 김선영, 2013b), 로라 막스(Laura Marks)의 햅틱 이론을 바탕으로 SHOWstudio의 작품에서 촉지각적 요소를 밝힌 연구가 있다(권지안 외, 2019; 정수진 & 임은혁, 2019).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 예술에서 추를 논함에 있어서는 추에 관한 체계를 정립한 다양한 학자들을 비롯하여 정신분석학적 논의를 끌어오는 등 폭넓은 관점에서 예술 속에 나타난 불쾌의 감정을 고찰했다. 한편, 현대 패션에서 추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주된 논의 방향은 조형성 분석으로 향해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로젠크란츠의 추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물론, 로젠크란츠의 몰형식, 부정확성, 형태의 왜곡 혹은 기형이라는 추의 특성은 작품의 외관을 묘사하는데 적합한 추의 분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로젠크란츠는 추의 심미적 현대성을 간과한 채, 추를 이상적인 미를 위해 존재하는 즉, 미에 종속되어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 자리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그의 이론을 현대 패션을 분석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은 이론적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외의 다른 선행연구도 한 학자가 정립한 추의 개념으로 현대 패션에서 드러난 추의 조형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내용적 측면, 감성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고 명시한 연구조차도 연구대상이 컬렉션으로 한정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패션 필름과 관련된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지만, 패션 필름의 매체적 특성에 집중하여 유형화를 한 연구와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아이덴티티와 헤리티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패션 필름을 고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실험적인 영상물을 통해 패션의 예술화에 기여하고 있는 SHOWstudio이지만, SHOWstudio 패션 필름의 미적 효과나 예술성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학자의 추에 대한 견해가 아닌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추 개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20세기 이후 미학과 정신분석학에서 논의된 추의 속성들을 토대로 현대적 추의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미디어인 패션 필름 분야에서, 다양한 미적 가능성을 첨단 디지털 기술과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구현해 내는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추의 미학을 논한 기존 연구의 연장으로, 최근 핵심적인 패션 미디어로 기능하고 있는 패션 필름에서 나타나는 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미학, 그리고 예술에서 등장한 추에 관한 입장을 사적으로 고찰하고, 20세기 이후 미학과 정신분석학에서 논의된 추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추의

현대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SHOWstudio의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본 뒤,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을 통해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추 개념의 사적 고찰을 통해 추의 시대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20세기 이후 추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현대적 관점의 추를 도출한다.

연구문제 2. 현대적 추의 관점에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추에 대한 논의가 컬렉션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의 연장선에서, 패션 필름에 나타나는 추를 분석하여 추의 논의를 확장했다. 또한, 특정 학자의 이론에만 한정하여 추를 논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추의 속성들을 종합하여 조형성 분석에 집중되었던 추를 근원적 욕망의 표출, 불쾌한 감정, 원본의 권위 격하, 비윤리적 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패션 필름이 현대 패션에서 주요한 미디어로 기능하고 있는 가운데, 매체적 입장이 아닌 특정한 미적 관점에서 패션 필름을 분석하는 연구에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로는 철학, 미학, 예술 분야에서 추를 다룬 서적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대

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추가 변화,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며, 20세기 이후 미학과 정신분석학에서의 추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추를 논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확립하였다. 또한, 패션 미디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션 필름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SHOWstudio의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과 SHOWstudio의 프로젝트에 포함된 에세이,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해 닉 나이트의 작품 활동과 SHOWstudio의 특성 및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이후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으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 나타난 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SHOWstudio의 설립 시점인 200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SHOWstudio 웹사이트에서 'fashion film'이란 태그를 달고 있는 914개의 패션 필름 중, 본 연구의 추의 관점에 부합하는 이미지 혹은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 145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분석 시에는 SHOWstudio 프로젝트의 자체적인 인터뷰 자료와 관련 전문가들의 에세이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프로젝트에서 작품의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운 영상물의 경우 『아이디(i-D)』, 『대이즈드(DAZED)』 등의 온라인 매거진 사이트의 자료를 통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145편의 작품의 수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추를 주제로 한 패션 필름은 2008년도부터 2017년도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SHOWstudio의 주요 프로젝트와 연도별 작품의 수를 살펴보면, 추를 주제로 한 패션 필름 23편이 제작된 2008년도의 경우 『Political fashion(2008)』과 『Future tense(2008)』라는 프로젝트가 기획되었으며, 동일 수의 23편의 작품이 제작된 2015년은 『A beautiful darkness(2015)』와 『Aquelarre(2015)』라는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또한, SHOWstudio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프로젝트인 『Fashion film submissions』과 『Master(2017)』가 기획된 2017년도의 경우도 총 13

편의 추를 주제로 한 작품이 확인되었다.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10편과 11편의 비교적 많은 수의 작품이 제작되었는데, 이는 해당 기간 진행된 『Punk(2013-2014)』 프로젝트로 인한 것이며, 특히나 2014년도에는 프로젝트 『Dressing the screen: Russia(2014)』와 『Soap opera(2014)』가 기획되었다. 이후, 2019년 해롯(Harrods) 백화점과 함께 진행된 『Fashion film awards(2019)』로 인해 해당 연도 또한 많은 수의 작품이 제작되었으며, 『The fashion body(2010)』와 『Fashion fetish(2012)』가 기획된 2010년과 2012년도 또한 각각 7편과 8편의 추를 주제로 한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08년 이전에는 추의 속성을 가진 작품의 수가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과 2004년에는 총 8편의 패션 필름이 제작되었다. 이는 해당 연도에 사진작가 '기 부르뎅(Guy Bourdin)' 및 행위 예술가 '리 보워리(Leigh Bowery)'에 대한 헌정 프로젝트인 『Compulsive viewing: the films of Guy Bourdin(2003)』과 『Guiser(2004)』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도 이후 현재까지는 개별 아티스트와의 협업과 더불어, 여러 디자이너가 런웨이를 대신한 독특한 형식의 패션 필름을 제작함에 따라 다수의 패션 필름에서 추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1> SHOWstudio의 프로젝트별 패션 필름

연도	프로젝트	패션 필름	개수
2000	『Sweet』	'Sweet'	1
2001	『J'adore』	'J'adore'	1
2002	『Transformer』	'Eat fashion'	1
2003	『Compulsive viewing: the films of Guy Bourdin』	'Goldfish', 'Mackerel girl'	2
	『Screen prints』	'Ropey print'	1
2004	『Guiser』	'Guiser #1', 'Guiser #2', 'Guiser #3', 'Guiser #4'	4

	『London designer fashion films: autumn/winter 2004』	'Hearts on fire'	1
2005	『Moving fashion』	'Steven Klein'	1
2007	『Boned』	'Boned'	1
2008	『Political fashion』	'Can't help loving that brand', 'L'envol', 'Gasmasks', 'The red shoes', 'Cut out', 'The laboratory of capitalism', '#02', 'Genoa-we are history', 'Cut', 'Political fashion', '22 July 2005', 'Untitled by Dean Rogers', 'Feminist', 'Untitled in Naomi Campbell', 'Black balloon', 'Consumption', 'Conspicuous consumption'	17
	『Future tense』	'Immersion', 'Keshou(layer)', 'Fringe project 8', 'Haltbar', 'Denk ich an Deutschland in der nacht'	5
	『Make up your mind』	'Make up your mind'	1
2010	『The fashion body』	'Neck', 'Left thigh', 'Left foot', 'Chest', 'Buttocks', 'Genitals(male)', 'Genitals(female)'	7
2011	『Dream the world awake』	'Dream the world awake'	1
	『Extraordinary gentlemen』	'Extraordinary gentlemen'	1
2012	『Fashion fetish』	'Metamorphosis', 'Love me', 'Chrysalis', 'Is my mind for me', 'Lenses', 'Dollywood', 'Love is a state of mind'	7
	『Studs』	'Studs'	1
2013	『Punk』	'Nude', 'God should have saved Diana', 'Jam', 'Rear guard', 'Kiss my ashes', 'Ass to ashes', 'Off the rails', 'Shit knit and other waste'	8
	『RCM MA 2013』	'IX'	1
	『Persona』	'Persona'	1
2014	『Soap opera』	'White magic', 'Radical artist', 'Money shot', 'Breathless'	4

	『Dressing the screen: Russia』	'The new times', 'Somnia', 'Turbo'	3
	『Punk』	'Blood rose'	1
	『The deep web』	'The deep web'	1
	『Killer heels』	'Killer heels'	1
	『Girly』	'Girl'	1
2015	『Aquelarre』	'Aquelarre #1-#14'	14
	『A beautiful darkness』	'The face of a dying dog', 'Bedroom', 'The garden'	3
	『Branded』	'Branded #1', 'Branded #2'	2
	『Venus』	'Venus'	1
	『Floriental』	'Floriental'	1
	『Tessa Kuragi: Reverie』	'Reverie'	1
	『Black: 2015』	'Black'	1
2016	『Fashion film awards 2016』	'Asymptote', 'Je te veux'	2
	『Fashion & Freedom』	'Edith'	1
	『Comme des garcons』	'Comme des garcons'	1
	『Boy meets wool: Charles Jeffery Loverboy』	'Boy meets wool: Loverboy'	1
	『Noir』	'Noir'	1
2017	『Master』	'The golden fish fairytale', 'Sexting', 'Solanum', 'Pluck'	4
	『Fashion film submissions』	'Whoever wherever whatever', 'Echtes leder', 'Lepus cornutus'	3
	『Gareth Pugh S/S 18』	'Gareth Pugh S/S 18'	1
	『Gareth Pugh A/W 17』	'Gareth Pugh A/W 17'	1
	『Natural order: 1017 ALYX 9SM A/W 16』	'Natural order'	1
	『Constructed』	'Barbara bird'	1
	『Soft furnishings』	'Soft furnishings 2017'	1
	『Die verwandlung』	'Die verwandlung'	1
2018	『Fashion film submissions』	'UN.A COLOR', 'Belly flop', 'Ninamounah x Stadman. Lara'	3

	『Uglyworldwide』	‘Uglyworldwide’	1
	『Put your head on my shoulders』	‘Put your head on my shoulders’	1
	『Once upon a future』	‘Once upon a future’	1
2019	『Fashion film awards 2019』	‘Cry of the city’, ‘Face your mask’, ‘Respiration’, ‘Do you love me now?’, ‘My life in nail bars’, ‘Before and after’, ‘The rite’	7
	『Tessa』	‘Tessa’	1
2020	『Sinéad O’dwyer June 2020』	‘Silicone valley part 1’, ‘Silicone valley part 2’	2
	『Fashion film submissions』	‘Sacred universe’	1
	『Christian Cowan S/S 21』	‘Christian Cowan S/S 21’	1
	『Walter Van Beirendonck S/S 21』	‘Walter Van Beirendonck S/S 21’	1
	『Sunnei S/S 21』	‘Sunnei S/S 21’	1
	『Christian Dior A/W 20 Haute Couture』	‘Christian Dior A/W 20 Haute Couture’	1
	『Ceremonial formality』	‘Ceremonial formality’	1
	『Maenads』	‘Maenads’	1
	『Infamy』	‘Infamy’	1
2021	『Fashion film submissions』	‘Puberty’	1
	『Fashion film exclusives』	‘Waltz of fragments’	1
	『Thom Browne A/W 21』	‘Thom Browne A/W 21’	1
	『Matty Bovan A/W 21 womenswear』	‘Matty Bovan A/W 21 womenswear’	1
	『Scale』	‘Scale’	1
총계	66	145	145

제 2 장 추에 대한 관점과 패션 필름

제 1 절 추 개념의 변천 과정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추는 '옷차림이나 언행 따위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외모 따위가 못생겨서 흉하게 보이는 것'으로 정의된다("추", n.d.).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한 유의어로 '추잡하다', '지저분하다', '밉다', '천하다', '추악하다'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전적 정의에서부터 추라는 개념이 단순히 조형적 형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의 불쾌한 감정과 관련한 문제, 선과 악의 윤리적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서술하겠지만, 실제로 고대 시기부터 추의 반대 개념인 '미'는 감각적 판단에 의존한 아름다움이라는 뜻보다는 진리의 문제, 선의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났다(김산춘, 2008). 이처럼 추의 범주에 들어가는 현상들은 미의 특성을 나열하는 것만큼 매우 다양하고 개개인에 따라 추하다고 생각하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추를 정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윤예진, 2013). 즉, 추는 추한 외형 자체뿐만 아니라 공포, 역겨움, 혐오 등과 같은 불쾌한 감정, 도덕적 오류와 윤리적 결함의 의미, 그리고 지배적 사회 이데올로기의 권력 작용에서 배제된 자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추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미에 반하는 개념으로 여겨졌고, 이 과정에서 추는 오랜 기간 미의 배후에서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즉, 추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 현대성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것이다. 추를 최초로 학문적으로 논한 칼 로젠크란츠 역시 미와 추의 관계를 전복시키지 못한 채 추를 여전히 미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였다(임명규, 2015). 그러나 추와 유사 범주인 낯선 것, 역겨움, 경악, 공포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추는 단순히 미적 병리 현상이나 예술적 도발이 아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동시에 감동과 매혹을 이끌어내는 독립적인 하나의 미적 범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영균, 2009).

1. 20세기 이전의 추에 대한 논의

1) 고대 및 중세

① 고대

고대는 적합한 비례에 따라 미와 추가 결정되는, 형식적인 미가 지배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오병남, 2003). 미적 대상으로부터 감상자에게 환기되는 쾌감을 다룬 주관적 미론과는 달리, 고대인들은 객관주의적 미론에 따라 미적 대상 속에 아름다움이 내재해 있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비례를 추구했다(박유정, 2016). 온전한 비례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이 미적 대상이 지닌 완벽한 성질이어야 했기에 서구의 고대 미론에 있어서 미의 반대 개념인 추는 비례에서 벗어난 것, 형식을 이탈한 것 등을 의미했다(이혜순, 2012).

미와 추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은 현재와는 달리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강손근, 1999). 고대 그리스는 본질적이고 불변적인 미의 세계와 비본질적이고 우연적인 추의 세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었다(권혁성, 2012). 또한, 미적 판단과 도덕적 가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는 선과 덕, 추는 악과 부도덕에 연결되어 있었다(박유정 2020).

피타고라스(Pythagoras) 학파는 '질서와 비례는 아름다운 것이고 적합한 것'이라 주장하며, 아름다움의 원인을 '수'에서 찾았다(Christopher Macklin, 2010).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Plato)은 추가 사악한 성품과 같아서 결국 악을 만들고, 그 반대인 미는 선하고 분별있는 것으로 이해했다(한승연, 2009).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감각 세

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데아의 모상이다. 하지만, 이데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인데 감각 세계에서 현상되는 추의 원형, 즉 추의 이데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플라톤은, 추의 이데아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현상 세계에서 보이는 추한 것들은 단지 이데아가 결핍된 하찮은 것이라 설명했다(이상인, 2011). 예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지닌 플라톤에게 예술 속의 추는 당연히 부정의 대상이었다. 즉, 예술이 추의 형상을 묘사하게 된다면, 인간의 인격 향상과 사회생활에 불량한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오수웅, 2015).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ēs) 또한, 추는 미의 부정형임을 인지했다. 하지만 그는 『시학』에서 파토스(pathos)와 카타르시스(catharsis), 그리고 웃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추가 지닌 나름의 미적 가능성을 인정했다(조웅순, 2015). 그러나 이조차도 공포를 환기하기 위해서가 아닌, 단지 기괴한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김성빈, 2009).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을 모방한 예술 작품에서 재인식의 쾌감을 느낀다. 모방의 대상이 불쾌감을 주는 형상일지라도 그것을 매우 정확하게 모사했을 때는 쾌감을 준다는 주장을 통해 그는 예술에서 추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구본철, 2011). 즉, 혐오스러운 짐승이나 시체라 할지라도 대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모방할 경우는 그 사실성으로 인해 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쾌감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Eco, 2008).

한편,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절대성을 가지는 기독교의 신보다는 오히려 나약한 인간을 닮아있다(장영란, 2004). 따라서 신화의 내용에는 신적인 아름답고 선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악함과 추함이 모두 드러난다.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Saturnus), 살인과 근친상간을 모두 저지르는 오이디푸스(Oedipus) 등 그리스 신화는 선하고 미적인 존재조차도 언제나 추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노영덕, 2015). 고대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

우스(Horatius)는 유순한 것을 난폭한 것과 결합하는 자유, 이를테면 뱀을 새와 짝짓는다든가 호랑이를 새끼 양과 짝짓는 자유는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시몽, 2019). 이러한 자연적 형태를 거스르는 잡종 형상의 괴물들은 그리스 신화에 주로 등장하는데, 사자 머리를 가진 스핑크스(Sphinx), 황소 머리에 인간의 몸을 한 미노타우로스(Minotauros), 머리는 사자에 꼬리는 뱀, 몸통은 염소인 키마이라(Chimera) 등의 존재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존재들은 후술할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미적 판단 기준인 '적절함'에 반하는 것들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법한 동식물 그리고 인간의 혼합으로 인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전달했다(신창석, 2003).

고대 말에 등장한 스토아학파는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는 '판칼리아(pankalia)' 사상에 따라 추를 세상의 미를 드러나게 해주는 배경으로 간주하였으며(박승권, 2014), 중세 신학의 기틀을 형성한 플로티노스(Plotinos) 또한, '추는 악이요, 비존재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미의 부정형으로서 추를 정의했다(김종기, 2012). 한편, '추하게 생긴 살아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죽은 조각상보다 더 미적이다'라는 플로티노스의 말에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없는 죽음은 추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Tatarkiewicz, 2005).

미에 대한 인식이 최초로 성립한 시기인 만큼 고대의 추는 독자적인 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미의 부정형 혹은 미를 위한 배경 정도로만 이해되었다. 극히 부분적으로 예술에서의 추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논의조차도 진리의 전달이나 도덕적 교화의 목적 내에서만 의미를 지녔다. 그뿐만 아니라 미와 추의 개념을 선과 악의 개념과 결부시키고, 자연 질서에 거스르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을 추한 것으로 규정했던 것이 고대 시기의 추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② 중세

중세는 서로마제국의 멸망(서기 476년)으로부터 르네상스(15세기)와

종교개혁(16세기)으로 막을 내리는 약 천년의 시기를 의미한다.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노스의 유출론이 신학적으로 해석된 중세 시기는 질병, 봉건제, 종교적 교리 등으로 인해 현세를 살아가기 아주 힘든 시기였다(민주식, 2006). 기독교는 개인의 자아 탐색을 희생하고, 정신과 영혼을 고상한 것으로 그리고 육체와 욕망은 죄악시하여 금기로 설정했다. 철학이 종교의 시녀 역할을 하던 시기인 만큼 중세는, 이성으로 진리를 판단하고자 하는 학문적 열망보다는 신을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종교적 열망이 월등히 높았던 시기였다(황필호, 1998).

기독교의 관점에서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기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다. 미적인 것과 선한 것을 동일시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범 우주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우주 전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다(진중권, 2003). 여기서 중세 신학자들의 고민이 나타난다. 신이 창조한 우주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선하기만 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현세에서 악하고 추한 것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가'가 그것이다(장욱, 2007).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그의 『고백록(400)』에서 세상 만물은 신의 창조물이지만 추한 것은 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언급했다(정현숙, 2008). 즉, 추한 것은 낮은 단계의 미일 뿐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악한 것과 추한 것은 신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질서론(387)』에서 추가 그 자체로서는 아름답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미를 한 층 더 복잡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며, 추를 비존재로 바라보는 고대의 관점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신경수, 2019). 하지만 이 또한, 신이 창조한 세계 내의 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변신론적 주장으로, 아우구스티누스도 여전히 고대의 관점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는 중세 말의 스콜라 철학에서 다시 대두된다. 스콜라 철학 또한 우주 전체적인 미 내에서 추를 인정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들만의 아름다운 질서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체계 내에 사람들이 추함을 느끼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다(김율, 2005).

즉, 추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미와 함께 현상하면서 전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악의 문제'와 관련하여 추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면 신은 악의 원인이기도 한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악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죄악이라고 못 박았다(Siniscalchi, 2015). 즉, 현세에서 일부 악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선하게 살지 악행을 저지를지를 결정할 자유의지일 뿐이므로, 현실 세계의 악의 원인은 인간이라는 것이다(문한나, 2014). 이처럼 중세의 추는 미가 인간에 의해 손상되어 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었으며, 독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미의 배경으로서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었다.

한편, 중세는 절대자인 유일신에 의한 기독교 정신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웃음이 금지된 진지하고 엄숙한 시대였다(김동훈, 2016). 따라서 이교도적인 것과 추한 형상에 해당하는 악마적인 것,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우스꽝스러운 형태는 금기시되었다. 아퀴나스는 미의 조건으로 그 유명한 완전성, 명료성, 비례 이외에 '적절성'을 들었는데(진중권, 2003), 모든 사물은 창조적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제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때 아름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권위에 반항하듯 중세의 문학과 문헌에서는 악마적인 형상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당시의 테오필로 폴렌고(Teofilo Folengo)의 『발두스(Baldus)(1517)』를 들 수 있는데, 해당 작품에서는 온갖 형태의 악마적 형상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Eco, 2008). 그 추한 모습들은 뿔을 달고 있는 돼지와 곰, 다람쥐 머리의 거인, 개구리 다리에 올빼미의 부리를 지닌 괴물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에 집필된 『다종다양 괴물서(Liber monstrorum de diversis generibus)』에서는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괴물과 이의 변종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악한 존재의 추함을 설명하고 있다(최종철, 2016). 이러한 괴물들은 기독교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악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에코는 『미의

역사(2004)』 제 5장에서 이와 같은 괴물들이 추함과 동시에 경이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기에 역사 속에서 예술 작품 속에 이들이 등장해왔다고 보았다(김용석, 2009).

중세의 추에 대한 논의에서 죽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세 초기의 죽음은 한 생명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곁으로 돌아가는 엄숙한 주제였다(Ariès, 2004).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개념은 호모 토투스(Homo Todus)이다. 호모 토투스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잠을 자는 것으로 시체는 썩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라 여겨지는 관념이다(차용구, 2009). 하지만 시체의 현실적인 모습을 겪게 되면서 중세 후기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상적인 관념 대신 고약한 악취와 함께 구더기에 살이 찢겨나가는 역겨운 시체의 모습인 마카브르(marcabre)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진중권, 2008). 죽음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중세인들은 이제 죽음을 아담이 지은 원죄와 함께 사람들이 현세에서 지은 죄의 대가로 여기게 되었다(심상태, 2004). 결국, 죄인은 죽게 되며, 부패한 시체는 악행의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서도 추한 것(시체)과 악한 것(죄인)이 연관되어 중세에도 추는 여전히 윤리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시대의 죽음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주제는 '죽음의 무도'라 불리는 예술 형태이다. 이는 춤을 추고 있는 죽음을 표현한 그림을 가리키는데 이를 통해 중세인들이 의도했던 바는 현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지상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덧없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안미현, 2005). 따라서 죽음의 무도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준비하라는 즉,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암시한다(Forcen & Espi, 2015). 이처럼 마카브르와 메멘토 모리를 통해 중세 후기의 사람들은 죽음을 고귀하고 경건하게 생각했던 중세 초기의 미화된 죽음 대신, 역겹고 추하며 공포스럽게 표현된 시체로서의 죽음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세의 추는 고대의 추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미적 범주가 아닌 전체

주의적 관점에서 미를 부각하기 위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개념이었으며,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또한, 여전히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선함과 덕망은 미에, 악함과 부도덕은 추와 관련되어 있었다. 기독교라는 종교로 인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우스꽝스러운 대상과 창조질서에 반하는 악마적 형상은 추한 것으로 여겨졌고, 중세 초기의 평온한 죽음에 대한 관념과 대조적으로 중세 후기에는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결합하여 죽음에 대한 추한 인식이 만연하였다.

2) 17-18세기

근대는 추가 심미적 현대성을 획득하게 되는 배경을 제공한 시기였다. 에코는 『미의 역사』에서 비례와 조화의 미를 중시한 르네상스의 쇠퇴와 함께 사람들은 일종의 수학적 규칙 너머의 비틀림과 긴장에 대한 취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Eco, 2005). 또한, 17세기에 등장한 캐리커처(caricature)라는 예술 장르와 바로크 시대의 미에 대한 인식은 추가 예술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숭고라는 새로운 미적 범주가 형성되며 고전적인 미는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와 슐레겔은 추가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서 예술에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김상섭, 2016).

① 17세기

고전적 미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여성의 결함은 지배적인 미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반어적인 효과를 내포한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더욱이 바로크 시대에는 여성의 추한 모습을 오히려 매력의 한 요소로 보기도 하였다(엄경희, 2018b). 바로크 시대의 이러한 변화는 그 당시까지 미학사를 지배했던 모방의 미와 상반되는, 표현적인 것에 관심이 증대했기 때문이다(정연복, 2008). 독창성이 없는 고전주의

적 모방 미학에 매너리즘을 느끼면서 예술가들은 추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변칙적인 해체를 거듭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바로크 시대에는 강한 표현성을 지니고 경이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추에 대한 새로운 취향이 성장할 수 있었다(Eco, 2008). 바로크적 사고를 통해 추한 것은 악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표현적인 측면에서 질병이나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미와 선의 관계는 느슨해지기 시작했다(신정환, 2001).

해당 시기에 등장한 캐리커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하여 풍자한 글이나 그림, 혹은 그런 표현법으로서 인물 또는 의인화된 동식물을 대상으로 하여 익살, 유머, 풍자 등의 효과를 노린 그림이다(김성화, 2021). 얼굴이나 신체의 외관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하여 그린 후 짧은 설명이 덧붙여지기도 했던 캐리커처는 이탈리아어로 '과장하다'의 뜻을 지닌 카리카레(carica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색다른 인물화를 카리카투라(caricatura)로 호칭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캐리커처", n.d.). 캐리커처는 추하고 괴상한 외형을 희화화하고 과장하는 묘사 방식으로 그 개념은 현대의 것이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그로테스크한 작품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며, 외형적 과장을 통해 시대와 사회에 대한 내적 비판을 가하는 풍자 미술의 한 형태였다(오양진, 2006).

② 18세기

근대의 추를 논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은 숭고이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숭고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미적 범주에 의해 사람들은 불쾌한 것, 끔찍한 것, 경이로운 것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김종대, 2014).

영국의 정치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고통이나 위험의 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 중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숭고라 주장했다(류주희 외, 2011). 이는 쾌나 즐거움보다

불쾌와 고통이 훨씬 더 강한 파토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 그에 따르면 공포 혹은 그와 유사한 감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대상, 그 대상과 관련한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한다(Burke, 2006). 여기서 공포나 그와 비슷한 감정은 추한 감정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추의 현상들은 숭고라는 새로운 미적 현상 안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버크에 의하면 과거의 미와 추의 이분법적 구분은 생기의 활성화와 약화라는 관점으로 대체된다. 즉 추가 고통과 공포스러운 불쾌감을 형성할지라도 생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숭고 안의 추는 예술의 표현과 예술적 경험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조경식, 2008). 이러한 숭고미에 대한 논의는 이후 19세기에 이르러 헤겔학파들에 의해 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바로크 시대를 겪으면서 미와 추가 선과 악의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된 것은 사실이지만, 18세기 이전까지 예술 담론은 여전히 예술에게 진선미의 형상화를 요구해왔다(이관형, 2017). 즉, 예술은 미를 형상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교훈을 내포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내적인 요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추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일깨우거나 사회적 앙가주망(engagement)을 촉발하는 범위 내에서만 미학적으로 용납될 수 있었다(Eco, 2008). 하지만, 실러와 슐레겔에 의해 예술은 자율성을 획득하고 '즐거운 전율', '격정적인 감정'이 바로 추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정들로 여겨지면서 추는 심미적 범주로 자리잡게 되었다(최문규, 2014). 이러한 감정을 격발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으로 간주 되는 한, 예술의 표현 대상이 진리에 근거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예술은 이제 괴물 같은 것, 비도덕적인 것을 비롯한 모든 것을 대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Clarke, 2020).

실러는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하여(1795)』에서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하였고, 예술에서 진과 선을 배제하여 미를 예술 소통의 유일무이한 소통 코드로 삼았다(Schiller, 2015). 이로써 이전에 예술 외적인 관점에서 즉,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관점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추를 포함한

모든 것은 그것이 설사 진리와 도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술적 소통의 소재나 형식이 될 수 있었다(김상섭, 2016). 또한, 그는 예술 속의 추의 현상 중 천박함과 비천함에 대한 형상화를 부인하지 않았다(기정희, 2008). 특히 비극에서의 전율, 공포, 악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그는 칸트나 고트홀트 레싱(Gotthold Lessing)과 같은 동시대 미학자들의 견해와 다르게 도덕적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가 제공하는 순수한 즐거움의 측면에서 추를 심미적 현상으로 간주했다(주경식, 2004). 결국, 실러의 추는 예술에서 심미적인 가치를 지닐 뿐, 합목적론적인 질서의 틀 내에서 도덕이나 진리와는 아무런 연관을 지니지 않는다.

유사하게 슐레겔 또한, 현대 예술의 기본적 특성을 오히려 단편적이고 불협화음을 내는 추로 설명했다(이정은, 2019). 그는 『그리스 문학 연구(1797)』를 통해 당시의 '아름답지 않은' 심미적 자질을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박현용, 2017). 현대 예술이 지닌 추의 심미성을 인정하면서 그는 예술이 '아름다운/추한'의 관점이 아닌 '흥미로운/지루한'의 관점으로 소통되어야 함을 지시했다(이관형, 2017). 이 '흥미로움'이야 말로 슐레겔이 펼치는 예술 이론의 핵심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고전적 이상미와 대치되는 것으로 자극적인 것, 기발한 것, 충격적인 것, 모험적인 것, 역겨운 것, 끔찍한 것을 포괄한다(권구정, 2005). 슐레겔의 이러한 추에 대한 현대적 관점을 통해 추는 단지 미의 결핍이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와 함께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심미적 범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그는 아도르노보다 두 세기를 앞서 추의 사회적 기능을 언급했다. 슐레겔에 따르면 추는 현대의 상황에 대한 통찰이며 동시에 기대와 실망의 분열적인 현실에 대한 고통의 표현이다(Schlegel, 2015). 슐레겔은 예술이 '추'라는 해부학적 칼을 가지고 은폐된 삶과 현실의 부분들을 파헤쳐 삶과 현실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김은정, 200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의 추는, 미의 부정형으로 예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고대, 중세와 다르게 추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

고 있다. 고전적인 미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르네상스의 미학에 매너리즘을 느낀 화가들에 의해 바로크 시대의 추한 표현이 발달할 수 있었으며, 숭고라는 새로운 미적 범주의 발견으로 인해 추가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또한, 실러와 슐레겔에 의해 예술은 진리와 윤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흥미로움에 기반한 독자적인 추의 미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으며, 이후 헤겔의 제자인 칼 로젠크란츠에 의해 추는 체계적으로 정리되기에 이른다.

3) 19세기 -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추를 하나의 미학적 관념으로 다양한 예시를 들어 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추의 미학(1853)』이 19세기 중반 칼 로젠크란츠에 의해 집필되었다. 헤겔의 제자인 로젠크란츠는 오랜 기간 서구 미학사에서 금기시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던, 추로 통칭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최초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다(이혜원, 2013). 로젠크란츠에 따르면 미는 결핍 없는 신적인 완전성으로, 절대적인 이념으로서의 미는 자기 외에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변영희 & 채금석, 2004). 이에 반해 추는 미의 부정적 이념이고 추는 단지 미를 위할 때만 자율성을 가지며, 추는 총체성의 이상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전제를 가진다(탁명주, 2014). 따라서 로젠크란츠의 논리에 따르면 추는 미와 분리될 수 없고, 미가 존재하지 않으면 추 또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는 추를 미에서 출발하여 골계로 완성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안선경 & 양숙희, 199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는 미의 부정으로 존재하므로 미는 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는 미의 부차적인 이념으로서 태어난다. 부정적 미로서 생겨난 추는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미와 다시 종합되고자 하는데, 미가 추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웃음과 코믹이 생성되며, 이때 추는 그 자체의 부정적 특질을 버리고 스스로 무력을 인정하여 골계가 되는 것이다(김산춘, 2008).

로젠크란츠는 이러한 추를 '몰형식', '부정확성', 그리고 '형태의 파괴 혹은 기형'으로 구분했다(Rosenkranz, 2008). 이러한 구분은 다시 몰형식에 포함되는 '무형', '비대칭', '부조화'로 분류되고, 부정확성은 '보편적 의미에서의 부정확성', '특수한 양식에서의 부정확성', '개별 예술에서의 부정확성'으로 세분된다. 또한, 형태의 파괴 혹은 기형은 '천박함', '역겨움', '캐리커처'로 다시 분류된다.

로젠크란츠의 추의 첫 번째 특성인 '몰형식' 중 '무형'은 형태와 형식이 일치하지 않고, 명확한 경계의 부재로 인해 모호함과 파동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난잡한 특성을 갖게 되기에 추라고 할 수 있다(선혜미, 2007). 또한, '비대칭'은 한쪽으로 치우쳐 고르지 않아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기형적인 형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청 & 박혜신, 2010). 몰형식의 세 번째 특성은 '부조화'이다. 미적인 것은 왜곡된 모순을 회피하고 결국 조화를 이루는 것임에 반하여, 부조화한 것들은 모순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충돌하여 추한 결과로 나타난다(엄경희, 2016). 이처럼 조화롭지 않은 비례는 아름답다고 할 순 없지만, 시각적인 흥미를 생성하게 된다. 로젠크란츠에 따르면 단순한 것, 판명한 것, 규칙적인 것 등은 흥미를 불러일으키진 않지만, 혼란스러운 것, 모순으로 가득 찬 것, 조화롭지 못한 것 등은 흥미로운 감정을 유발한다(Rosenkranz, 2008). 그는 이러한 부조화와 관련하여, 모순을 불쾌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모순에서 만족감과 흥미를 느끼게 된다면 그런 부조화의 추 역시 골계미로 완성된다고 보았다(노영덕, 2015).

두 번째 특성인 '부정확성'은 말 그대로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특성이다. 로젠크란츠의 정확성은 미적 형상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 상태로, 이질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부정확성은 이에 대한 부정이다(김형래, 2009). 그는 이러한 추의 부정확성은 개별 예술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정확성과 부정확성을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Rosenkranz, 2008). 따라서 로젠크란츠는 보편적인 규정을 설정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표현되는

추의 다양한 양상을 ‘보편적 의미에서의 부정확성’, ‘특수한 양식에서의 부정확성’, ‘개별 예술에서의 부정확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최미라, 2004). 우선, 보편적 의미의 부정확성은 가장 광범위한 추의 범위로 보통 사람들에게 역사적이나 관습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자연과 정신에 내재하는 법칙에 들어맞지 않는 상태로서의 추이다(이동규, 2020). 또한, 특수한 양식에서의 부정확성은 특정 양식의 이상적인 모습에 반하는 것들, 즉 민족양식, 유파 양식, 시대의 취향을 거부하는 모순에 근거한 추이며, 개별 예술에서 부정확한 조형성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 로젠크란츠는 중심축이 무너진 건축물, 일반적인 인간 형상의 비례에서 벗어난 조각 등을 예로 제시했다(엄경희, 2018a).

‘형태의 파괴 혹은 기형’은 로젠크란츠가 그의 저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추의 작동을 설명하는 장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왜곡 혹은 기형적인 형태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을 ‘천박함’, ‘역겨움’이라는 세부 항목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추의 표현의 한 방법으로 ‘캐리커처’를 제시하고 있다(이시헌 & 이지현, 2020). ‘천박함’은 일반적인 미적 형상에 반하는 적대적인 특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로 ‘하찮음’, ‘연약함’, ‘비천함’으로 다시 세분되며, ‘역겨움’은 ‘졸렬함’, ‘죽어있는 것과 공허함’, ‘추악함’으로 재분류되는데, 생명이 소멸한 상태는 물론 혐오스럽거나 소름 끼치는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조경식, 2009). ‘캐리커처’는 로젠크란츠가 추의 최종 단계로 제시하는 골계와 관련된 개념으로 희화적인 표현을 통해 예술 작품의 위대성을 조롱하거나 경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여 묘사하는 표현방식을 의미한다(윤예진, 2013).

우선, ‘천박함’은, 위대함에 반하는 개념으로 존재를 그 한계 밑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함의 유형인 ‘하찮음’과, 실존에 내재해 있는 힘에 훨씬 못 미치는 힘을 지닌 나약한 상태의 천박함인 ‘연약함’으로 구성된다(엄경희, 2018b). 또한, ‘비천함’은 제한적이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오는 주체적이지 못한 것을 통칭하는 천박함이다(황선희 외, 2013).

‘역겨움’은 스스로 반미적 가치를 지니는, 미적 이상에 적대적인 감정의 표현이다(안선경, 1994). 그중 ‘졸렬함’은 귀여움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기형적인 질료나 어색한 움직임으로 불쾌를 유발하는 추한 감정이며, ‘죽어있는 것과 공허함’은 삶의 유희와 명랑함에 대비되는 특성이다(Rosenkranz, 2008). 로젠크란츠는 이에 대한 예시로 정체된 늪, 소화되어 먼지만 가득한 풀밭, 회색 하늘, 정적이 가득한 병동 등을 제시했다. 한편, 로젠크란츠는 ‘추악함’을 다시 ‘몰취향적인 것’, ‘구역질 나는 것’, 그리고 ‘악’의 세 가지로 세분화한다(임명규, 2015). ‘몰취향적인 것’은 비이성적인 정신병적 광증, 부조리로 인한 모순,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 등으로 대변되며, ‘구역질 나는 것’은 대게 ‘역겹다’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로젠크란츠는 다양한 예를 통해 감각적 측면의 추를 부각했다(Eco, 2008). 즉, 병 자체는 구역질을 유발하는 추가 되지 않지만, 병의 원인이 악덕일 경우 혹은 병의 결과로 유기체가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 병은 구역질 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았다(정현경, 2010). 또한, 로젠크란츠는 왜곡된 성의 형태, 쾌락만을 목적으로 한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등 정상적인 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도 해당 특성에 포함되는 추의 예로 보았다(윤예진, 2013). 한편, 그는 ‘악’을 다시 ‘범죄적인 것’, ‘유령적인 것’, 그리고 ‘악마적인 것’으로 세분화했다(김용석, 2009). 특히나 유령적인 것의 추는 죽음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혐오스러운 감정과 두려운 감정 혹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인해 추로 분류된다(이혜원, 2013). 또한, 악마적인 것은 윤리적 관점에서 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미와 선에 대한 부정을 절대적 목적으로 삼아 해악을 유발함에 따른 추이다(탁명주, 2014).

로젠크란츠가 제시한 ‘캐리커처’는 그가 『추의 미학』 전반에서 암시하고 있는 추의 희화적 형태, 즉 코믹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 캐리커처는 원본이 지닌 고귀한 원본성을 뒤틀고 해체함으로써 그것의 이상적인 면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무게감을 상실하고 우스꽝스러워지는 것을 의미한다(정현경, 2010). 로젠크란츠는 캐리커처 창조의 핵심

은 풍자적 관점이므로 풍자의 범주에 속하는 기지나 아이러니와 같은 양태들도 캐리커처의 희극적인 면과 상통한다고 밝혔다(Rosenkranz, 2008). 캐리커처를 통해 예술 작품은 추한 모습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게 되며, 이처럼 스스로 왜곡하고 패러디하는 캐리커처를 통해 추는 로젠크란츠가 추의 목적으로 제시한 코믹으로 발전하여 이상적인 미와 통합되게 된다(최서윤, 2020).

로젠크란츠의 방대한 저술을 통해 고유 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미를 빌어서만 설명될 수 있었던 추가 자신만의 적극적 속성을 지니고 미학적 논의 대상으로 등장할 수 있었지만, 로젠크란츠의 추에 대한 논의도 결국 헤겔적 총체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즉, 로젠크란츠는 예술뿐만 아니라 삶과 자연의 방대한 영역에서도 추의 현상들을 포착하고 그 현상을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지만, 결국 추를 미를 위해 존재하는 대립 개념으로 간주하여, 골계를 통해 이상적 미로 흡수되는 한에서만 추의 현존을 허락했다.

2. 20세기 이후의 추에 대한 논의

로젠크란츠에 의해 추는 미적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여전히 추는 독자적인 의미 지평을 가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의 공으로, 추는 20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학, 정신분석학의 담론 속에서 하나의 미적 범주로서 여러 학자에 의해 논의되었고 마침내 심미적 현대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영균, 2009). 본 장에서는 20세기 이후 현대의 미학 담론 속에서 아도르노와 에코의 추에 대한 견해와 저급한 취향을 대표하는 키치와 캠프를 다양한 학자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로 시작되어 라캉, 크리스테바에 이르는 정신분석학의 맥락에서 추의 속성이 드러나는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1) 미학

①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부정성

아도르노는 현대 예술에 대한 진단을 통해 추를 미에 못지않게 역동적인 범주로 간주했다(Adorno, 1997). 즉, 그는 '추가 미에 부차적인 것 혹은 미를 위해 봉사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이창남, 1995). 아도르노는 추가 미의 부정형이 아니며 현대 예술에서 추의 비중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추로부터 새로운 질이 생성되어 나왔고, 미와 완전히 분리하여 이해할 것을 권고했다(박상선, 2004). 이처럼 현대 예술이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추를 다루는 이유에 대해 그는 예술가들이 추한 것을 고전적 미에 예속시키지 않고, 분열 및 부조화의 미학 속에서 추만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민형원, 1998). 결국, 아도르노의 추 개념은, 추의 자기 목적성을 부정하고 예술을 통해 추를 정화하여 이상적인 미의 보편적 법칙으로 종합시키고자 했던 로젠크란츠를 비롯한 헤겔학파의 추 개념에 완벽히 대비된다.

아도르노는 현대 예술의 경향성으로 재료(언어, 색, 음)의 이탈, 형식의 무정형성, 조화 불가능성을 제시했다(이종하, 2007). 즉, 현대 예술의 경향은 미적인 형식 법칙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추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또한, 그는 추의 구체적인 예로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 폭력으로 인해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 그리고 죽어가는 것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노성숙, 2002). 여기에 아도르노는 추의 특질 중 하나로 불확실성을 추가한다(이정호, 2010). 지난 수 세기 동안 철저하게 고전적 미의 법칙을 준수하여 생성된 예술은 추가 가진 역동성과 창조성을 위협해왔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통해 예술은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보장받아 왔고, 예술 작품 속의 추가 가진 미학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박영욱, 2012).

한편, 아도르노가 추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예술에 있어서 조형적으로 추한 형식과 주제를 넘어서 있다(정현철, 2006). 아도르노의 추 개념은

미학적 고려를 넘어서서 정신의 원칙으로까지 승화된 지배 이데올로기(ideology)를 비판하고,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있는 사회의 억압과 관계되어 있다(유현주, 1999).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인해 추는 고전적 미에 의해 억압되고 제거된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도르노 미학의 목표였다(Cook, 2020). 이를 위해 그는 '부정성'의 미학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다. 개념적 사유, 종합적 체계, 총체성을 위한 희생 등에 의해 특수하고 일반적이지 못한 타자들은 추한 것으로서 사회에서 추방당해왔다(Hodge, 2019). 이의 원인을 아도르노는 헤겔의 변증법적 총체성에 근거한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진보에 대한 믿음인 근대 계몽철학이라 보았고, 이에 반하여 그는 비동일적인 것들의 타자성이 침해되지 않고 끊임없이 불가해한 영역으로 탈주할 수 있도록 부정성의 미학을 통해 현대 예술에서 추를 인정하게 되었다(김귀석, 2002).

'제 1의 자연'은 아도르노가 미와 추의 변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제 1의 자연은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통제 불가능의 세계였지만, 인간은 미메시스를 통해 자연을 예술 속에 담아왔다(Adorno, 1997). 아도르노에게 미메시스는 흉내 내는 대상과 존재론적으로 같아진다는 적극적인 성격의 모방이다. 예술은 미메시스를 통해 자신을 자연과 동화하여 자연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기에 미메시스는 합리성으로 무장한 산업사회의 과학처럼 자연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이성적 사유가 보편자를 상정하며 개별자와 비동일한 것들을 절단하고 추방하여, 동일성의 질서 안으로 포섭했을 때, 예술은 미메시스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이정호, 2010). 아도르노는 이처럼 총체성의 폭력을 휘두르는 이성이 지배적인 세계를 '제 2의 자연', 즉 자본주의 사회로 보았다. 인간은 원초적 자연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문명사회를 건설했지만, 역설적으로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코드화시켜 타자들을 추방하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아도르노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이러한 이성에 의한

폭력의 극단으로 보았다(박상선, 2004).

이처럼 이성에 근거한 합리주의적 정신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 또한 억압해왔다. 자본주의적 시스템은 엄청난 생산의 효율을 자랑하지만, 아도르노는 여기서 전체주의적 위험을 감지했다(진중권, 2003). 하나의 코드로 수많은 복제를 찍어내는 자본주의 생산의 특성상 자본은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현대 사회의 강제된 삶 속에서 개인은 그 본연의 가능성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박탈당하고, 전체 속에서만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당연하게도, 이런 획일적인 틀 속에서 관리된 인간들의 다양성은 위협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도르노가 말하는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사회의 비합리성'이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은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이창남, 1995). 따라서 그는 흔히 순수예술이나 예술을 위한 예술을 생명력을 잃은 것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예술 속에 타자로서 등장하는 추한 형태들은 억압적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도구적 이성으로 인한, 자연과 인간 사회에 대한 강제적 속박을 부정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아도르노는 예술이 추한 것으로 저주받는 요인들을 자신의 문제로 삼아, 세계를 예술이 생산하는 추를 통해 탄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주장했다(Fuller, 2016). 즉, 예술이 사회에서 추방된 것을 세계 속에 다시 통합시키거나, 세계와 억지로 화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억압이 강화되어 자본주의의 보편적 코드화는 더욱 강화될 뿐이다. 이처럼 현대 예술이 추를 생산하는 이유는 화해를 통해서는 결코 사회 속의 억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며, 개별자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는 한, 예술 속의 대상은 철저하게 비화해적인 추한 형상일 수밖에 없다(Adorno, 1997).

『미의 역사』에 이어 『추의 역사』를 저술한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또한, 추에 관하여 아도르노와 유사한 관점을 보였다. 에코는 『추의 역사』를 통해 추의 미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등장한 추를 계보학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엄경희, 2018c). 하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를 할애하여 에코는 다양한 세기의 예술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추를 묘사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예술가가 이 세계에는 냉엄하고 슬프게도 악한 어떤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Eco, 2008). 다시 말해, 사회 속에 잔혹하고, 악한 것이 존속하는 한, 예술가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그것을 예술의 영토 안으로 끌어들여 우리의 둔감해진 혹은 길들어진 의식을 자극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코 또한 아도르노의 부정성과 같은 맥락에서 예술 속에서의 추를 미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윤리적 관점으로까지 확장했다.

② 저급한 취향으로서 키치(kitsch)와 캠프(camp)

움베르토 에코는 그의 저서 『추의 역사』의 제 14장을 할애하여 타자의 추로서 키치와 캠프를 다루었다. 그는 문화적 상류 계층에 속하는 자들이 엘리트주의로 점철된 고급 예술을 향유하고, 하류 계층의 미적 취향을 천하고 조잡한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하며, 20세기의 키치와 캠프를 저급한 취향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Eco, 2008). 일반적으로 키치는 저속하고 악한 취향, 전통에 대한 이단, 원본에 대한 복제품 등에 쓰이는 악취미의 대표적인 말로 사용된다(배성희, 2006). 진흙을 손으로 문지르며 논다는 의미의 독일어 'kitschen'에서 파생된 키치는, 지저분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산만한 행동이라는 뜻을 함축한다(Harries, 1988). 이러한 키치는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 예술에 대한 조야한 감성을 지닌 부르주아 계급이 예술을 감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물려 발생하게 되었다(Moles, 1994). 즉,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원본적 예술이 거짓 예술로 생산되어 소비되는 과정에서 키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키치의 별칭인 '나쁜 예술'이라는 단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그것은 미의 결핍으로서

의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 관점에서 선하지 않은 것 즉, 악한 것과도 관련되어 왔다(진휘연, 2002).

헤르만 브로흐(Hermann Broch)는 이처럼 윤리적 관점에서 키치를 악한 것으로 간주했다(정용환, 2013). 그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미래로 향한 가치 체계를 쌓아가기에 선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키치는 그저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위해서가 아닌, 단지 조야한 미적 쾌를 위해 과거의 진부한 형식을 모방하고 반복하므로 악한 것이다(Eco, 2008). 따라서, 브로흐에게 키치는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으로 정의되었고, 이후 키치를 도덕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흐름이 발생하게 되었다(정미경, 2014).

키치가 왜 나쁜 예술인가에 대해 토마스 쿨카(Thomas Kulka)는 키치가 새로운 형식의 예술에 도전하지 않고 이미 예술에서 정형화되어버린 대상과 조형 방법, 그리고 그 효과 간의 결합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Kulka, 1996). 즉, 키치 예술은 대중들의 경험에 어떠한 새로운 의미도 부여하려 하지 않고, 단지 대중적 호소력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해리스 칼스텐(Harries Karsten)은 키치 예술가들이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특정 기분과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예술 활동을 한다고 비판하며, 키치의 이러한 속성을 자아도취적이며 자기 기만적이라는 말로 압축했다(Harries, 1988).

한편, 미국의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아방가르드와 키치(1939)』를 통해 예술에서의 이질적인 두 형태, 즉 키치와 아방가르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통적 고급문화의 위기의식을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키치는 대중적 인기와 상업성을 먹고 사는 불순한 것이기에, 타자화되어 배척되어야 했다(Greenberg, 2004). 고전주의적 입장을 지닌 그린버그는 대중적 가치로부터 독립된 순수하고도 윤리적으로 선한, 천재의 산물인 아방가르드 예술을 옹호했던 반면, 키치의 예로 선정적인 싸구려 잡지, 만화, 유행가 등을 들면서, 키치를 진정한 문화적 가치에 무감각하고 기분 전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급한 문화

로 규정했다(배성희, 2006).

루드비히 기츠(Ludwig Giesz) 또한, 키치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 때문에, 키치 현상을 미학적으로 추에 위치시키고 있으며(진정식, 2001), 마테이 칼리니스쿠(Matei Calinescu)도 키치는 미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나쁜 취미와 연계되어 추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Calinescu, 1994).

한편, 수잔 손택(Susan Sontag)은 1960년대의 팝아트 이후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캠프(camp)라는 취향을 소개했다. 『캠프에 대한 단상(1964)』에서 그녀는 동시대 예술의 기능적 변화를 '새로운 감수성(new sensibility)'이라는 용어를 통해 논했다(Sontag, 1990). 손택은 특정 시대의 사상과 행동의 바탕이 되는 감수성이 특정한 미적 취향을 유발한다고 보았으며, 현시대의 취향으로 철저하게 탐미적인 캠프를 제시했다(박세미, 2017). 이처럼 캠프는 지나칠 정도로 유미주의적인 취향으로, 기존의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진지한 고급 예술에 저항한다. 캠프는 윤리적 가치판단을 중단한 채 예술의 목적을 단지 유희에서 찾기 때문에, 경박함과 가벼움, 엄숙성에 대한 거부, 스타일에 대한 탐닉 등이 캠프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박은경, 2005).

또한, 캠프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들의 융합으로 인해, 일정 부분 퀴어(queer)의 문제를 예술로 끌어들여 왔다(Eco, 2008). 손택은 로코코 시대 상류층의 동성애적 성향에서 캠프의 근간을 찾았으며, 그 후 현대까지 이어진 퀴어 미학과 캠프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파비오 클레토(Fabio Cleto)는 『Camp: queer aesthetics and the performing subject(1999)』에서 캠프와 퀴어의 공통점으로 은밀함과 불확실함을 언급하고, 캠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젠더학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Cleto, 1999). 이처럼 캠프가 곧 동성애와 관련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규범적이고 젠더 전복적인 퀴어와 관련된 예술은 캠프의 취향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신분석학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해 무의식의 저변을 탐구하는 정신분석학이 탄생하였고,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정신분석을 철학과 예술을 포함한 문화 해석의 기호로서 바라보았으며(Homer, 2006),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에 이르러 정신분석학은 본격적으로 미학적 관점에서도 논의되기에 이른다(현정아, 2003). 물론, 정신분석학에서 '추'라는 개념을 직접 표명하지는 않지만, 법과 질서로 대변되는 수많은 금기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주체가, 금기를 위반하고 근원적인 실재를 희구할 때 비미(非美)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남인숙, 2008).

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언캐니(uncanny)

언캐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독일의 심리학자 에른스트 옌취(Ernst Jentsch)에 의해 이루어졌다. 옌취는 『언캐니의 심리학(1906)』에서 처음으로 언캐니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감정이 발생하는 이유로 '지적 불확실성'을 제시하였다(유아림, 2015). 그에 따르면 생명이 없는 대상이 실제로 살아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거나, 생명이 없는 대상이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때, 즉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인간은 언캐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한편, 프로이트는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에 관한 이론으로만 한정되었던 미학을 감수성의 여러 특질에 관한 학문 즉, 감성학으로 확장하면서 전통 미학에서는 소외되던 혐오스럽고 곤혹스러운 감정을 정신분석가로서 다룰 수 있는 정당성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박언영, 2018). 『예술, 문학, 정신분석(Dichtung und Kunst(1924)』에 수록된 「언캐니(uncanny)」에서 프로이트는 언캐니를 낯섦을 특징으로 하는 공포감의 한 변종이지만, 이는 오래도록 알고 있었던 친숙했던 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감정이라 밝혔다(Freud, 2020). 즉, 프로이트는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불확실성에서

언캐니가 유발된다고 한 옌취의 지적에 대해 언캐니한 감정의 유발 조건으로 '억압'이라는 요소를 추가했다. 프로이트는 셸링의 말을 인용하여 '어둠 속에 숨겨져 있어야 할 것'이 드러나 버릴 때 언캐니가 유발된다고 보았다(이유진, 2019). 숨겨져 있어야 할 대상은 억압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대상이 불현듯 드러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낯선 감정인 언캐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캐니는 친숙했던 것에서 낯섦을 느낀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감정이며, 익숙한 사물이 상황적으로 탈맥락화되어 있는 경우에서 발현된다(권택영, 1996). 프로이트는 본인의 논문에서 언캐니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례로 도플갱어, 죽음, 시체, 죽은 자의 생환, 비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사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Royle, 2003).

또한, 그로테스크에 대한 미학적 논의에서 매리 루소(Marry Russo)는 프로이트의 언캐니로부터 '언캐니 그로테스크(uncanny grotesque)'라는 개념을 도출했다(오진희, 2017). 그로테스크는 15세기에 발굴된 고대 로마의 건축물에 활용된 인간과 동식물의 공상적인 형상이 결합된 장식으로부터 유래하며, 이탈리아어 '그로테스코(grotesco)'를 어원으로 한다(이해운, 2012). 이후 예술계에서 그로테스크는 괴상하고 혼종적인 존재들, 자연 질서에 반하는 우스꽝스러운 형상들을 의미하는 미학적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로테스크에 대한 논의는 미술과 문학에서 그로테스크한 표현들을 정리한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yser)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은 프랑수아 라블레(Francois Rabelais)의 저작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Gargantua and Pantagruel)(1532-1564)』에 등장하는 여성의 비천하고 역겨운 신체 표현을 통해 유물론적 관점의 카니발 그로테스크(carnival grotesque) 담론을 제시했다(이재복, 2009). 매리 루소는 『여성, 그로테스크(1995)』에서 자신의 언캐니 그로테스크 이론을 바흐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 이론과 대립시키며, 바흐친의 그로테스크가 물질적 신체와 그것의 희극적 표현을 근간으로 하는 신체 범주라면, 본인의 그로테스크는 섬뜩하고 무서운 감정적 차원의 심리적 범주라고 주장했다(방창현, 2016). 즉, 카니발 그로

테스크가 형이하학적이고 유물론적인 비천한 신체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언캐니 그로테스크는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인간 내면의 심리적 측면에 집중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반드시 풍자성을 근간으로 하는 희극적인 표현을 포함하지만, 언캐니 그로테스크는 섬뜩하고 무서운 느낌의 심리적 범주로 공포와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는 예술 장르에서 두드러지는 개념이라 볼 수 있겠다.

언캐니에 대한 논의는 일본의 공학자인 마사히로 모리(Masahiro Mori)에 의해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이론'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인공지능 로봇의 디자인에 있어서 로봇이 인간과 닮을수록 처음에는 호감도가 증가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특정 지점에 이르게 되면 로봇에 대해 인간이 외려 섬뜩함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다(류재형, 2014). 그는 인간이 그들과 유사한 로봇에서 언캐니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인간성의 결핍에서 찾았는데, 존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상에게서 시체나 좀비를 볼 때 느껴지는 감정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유사한 맥락에서, 초현실주의자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은 『초현실주의 선언(1924)』에서 프로이트의 언캐니를 초현실주의 사조의 본질로 내세웠다. 그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 밀랍인형, 마네킹 등은 모두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있는 대상들로 존재의 모호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김전희, 2014).

② 자크 라캉의 실재계와 주이상스(jouissance)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1921)』에서 죽음 본능(thanatos)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죽음 본능은 생명체가 가진 최초의 상태에 대한 희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모든 생명체가 근원적 형태인 무생물의 단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Freud, 1997). 이는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성취되기 때문에 주체는 삶의 충동인 에로스(eros)에 대비되는 죽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통 속의

쾌락이라는 뜻을 가진 타나토스는 사람들이 고통을 자처하거나 감내하는 데에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원리가 있음을 암시한다(이현석, 2001). 이에 라캉 또한,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과 유사하게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죽음 충동도 최초의 상태에 대한 욕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라캉은 이를 성적 분화를 일으키지도 않고, 신체 기관들로도 분화되지 않는, 순수한 생명인 '라멜라(lamella)'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박찬부, 2006).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의 형성은 언어를 통해 아버지의 법에 포섭되는 상징계에서 완성된다. 상징계는 자신의 근원적인 욕망을 숨기고 사회의 지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의 공간이다(Lacan, 2019). 하지만, 상징계의 주체들은 언어의 표상을 넘어서는 것, 금기시된 것과 같이, 상징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현실을 위태롭게 하는 실재계의 간섭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박민정, 2017). 라캉에게 실재는, 금기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상징계 너머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주체들은 상징계 너머의 실재와의 조우를 근본적으로 두려워한다(김경순, 2009).

이처럼 주체들은 실재의 등장에 불안해하지만, 위반을 거듭하는 추한 현대 예술은 쾌락 원리를 넘어 즉, 상징계 너머의 실재계와 조우하여 불쾌의 기쁨을 주는 주이상스를 추구하고 있다(조선령, 2008). 주체 형성 전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은 금기의 대상들은, 상징계의 질서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그저 자신의 부분이자 산물일 뿐이다. 이들이 어른들의 금지와 명령을 통해 아버지의 법에 편입됨으로써 주체는 자기 몸의 분비물, 어머니의 몸 등과 같은 것들은 혐오하고 거절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정수경, 2008).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유혹의 힘을 지니고 있다.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그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충동이며 라캉은 이를 쾌보다는 불쾌 및 고통과 더 긴밀하게 연관된 만족인 주이상스로 설명했다(민윤경, 2009).

이러한 주이상스를 회복시키려는 죽음 충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라캉의 '대상 a(Objet petit a)'이다(홍준기, 1999). 상징계의 질서와 법이 엄격히 금지한다 하더라도, 근원적이고 충만한 합일의 상태에 대한 희구와 충동을 주체에게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대상 a가 끊임없이 상징계로 복귀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잃어버린 원초적인 합일의 상태, 충만한 상태의 파편들이고, 그런 한에서 유혹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Roudinesco, 2000). 그러나, 대상 a는 상징계에서 타자성으로 금지되고 은폐되어왔던 것이기에, 그것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부끄러움, 죄의식 등을 동반한다(김인환, 1998). 또한, 상징적 주체가 현실 원리와 쾌락 원칙에 충실한 존재라고 할 때, 대상 a로 인한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 원리와 쾌락 원칙에 반하는 즉, 미의 작동 원리에 위배되는 추를 향해있다고 볼 수 있다(조선령, 2008). 따라서 쾌보다는 불쾌와 관련된 주체의 주이상스에로의 욕망은 고통을 무릎 쓰고 아버지의 법을 어기는 것이자,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향한 충동이다.

③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애브젝트(abject)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공포의 권력: 애브젝션에 관한 에세이(1980)』를 통해 상징계에서 주체의 형성 과정을 '애브젝트'와 '애브젝션(abjec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Kristeva, 2001). '분리', '제거'를 의미하는 접두사 'ab'와 '내던져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jecto'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애브젝트는 라틴어의 'abjectio'에서 유래하며 '비천한', '내던져진', '버려진' 등의 의미를 지닌다(박성경, 2009). 따라서 애브젝션은 원래 자신의 일부였지만, 사회에서의 정체성 확립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무질서한 것, 더러운 것, 비천한 것 등을 배제하는 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Oliver, 1997). 다시 말해, 상징적 질서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주체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에 위협적인 것을, 공포와 혐오의 감정을 통해 밀어내는 현상이 애브젝션이며, 이때 거부되는 대상이 바로 애브젝트이다(조현숙, 2012).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어머니와 한 몸인

상태로 체액, 피, 배설물들과 뒤섞여 아무런 경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Kristeva, 2001). 그러나,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상징계의 질서로 편입되면서 아이는 주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이때 자신의 정체성 수립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거부하면서 경계를 형성한다(현정아, 2003). 이처럼 상징계에 진입하기 위해, 아이는 불결하고 미분화된 대상 즉, 자신의 기원인 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어머니를 가장 먼저 애브젝션하게 된다(김경미, 2018). 다시 말해, 주체가 되기 위해 아이는 애브젝션할 대상에 대하여 역겹고 비천한 감정으로 저항하며,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거부하고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 경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분리된 어머니의 영역은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상징계에서도 주체의 의식 주변에 남아 끊임없이 주체에게 영향을 미친다(이문정, 2012). 주체화 과정에서 애브젝트로서 거부된 것들이지만, 모성적인 것들은 주체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매혹과 혐오의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김원방, 1998).

크리스테바는 몸의 생리적 현상들 및 시체, 오물 등과 같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유발되는 혐오감을 통해 애브젝트의 '육체적 징후'를 설명한다(Mcafee, 200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가 주체가 되면서 우선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 배설물 등이며 이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통해 어머니를 애브젝션하게 된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애브젝트의 예시들은 음식물, 배설물, 생리혈, 고름 등과 같이 몸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다(김인환, 2003). 이것들은 주체의 일부였지만, 상징계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주체는 이것들을 몸 밖으로 밀어내며 역겨움과 혐오의 감정과 연관시킨다. 특히나 시체는 몸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애브젝트의 형태이며, 죽음은 누구나 겪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상징계의 질서를 계속해서 교란한다(Kristeva, 2001).

이미 원시 사회에서부터 살인이나 생식 목적에서 벗어난 성행위는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자 금기로 설정되어 애브젝션되어 왔다(김현

숙, 2017). 금기와 위반의 변증법을 제시한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는 우리가 어머니와 분리되는 탄생의 순간부터,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이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Bataille, 2009). 그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출생 이후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불연속적인 존재'이다. 즉, 상징계 속에서 자의식이 작동하는 한, 인간은 주체로서 나와 타자를 끊임없이 구분하기에 고립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불연속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주체 형성 이전의 어머니와 합일되었던 상태인 '연속성'에 대한 향수를 가진다(김현숙, 2016). 이러한 연속성은 주체로서의 인간이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는 겪기 힘든 경험이다. 연속성은 결국 주체로서의 지위가 소멸될 때, 즉 죽음으로만 가능하지만, 바타이유에 따르면 에로티즘은 죽지 않고 이 연속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기능한다. 에로티즘은 주체가 다른 존재와 성적 결합을 통해 개체성의 경계를 없애고, 하나로 합쳐져 연속성을 획득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에로티즘에서 절정의 순간을 '작은 죽음(petite mort)'이라 표현했다(차지연, 2011). 바타이유는 이러한 죽음과 에로티즘이 근원적인 연속성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비생산적인 힘의 소모를 촉진하여 노동의 지속을 방해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에 대한 금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Bataille, 2009). 특히, 그는 종의 지속을 위한 성적 결합과는 달리 생식적 목적과 무관한 인간의 에로티즘은 사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에너지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미 프로이트는 『성적 이상(1905)』에서 생식적 행위에서 벗어난 성도착증을 성적 대상과 성적 목적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루었다(Freud, 2003).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선, 성적 대상과 관련해서 남성의 성적 대상은 여성이고 여성의 성적 대상은 남성이며,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성 대상과 관련한 도착증으로 분류된다(맹정현, 2009). 또한, 프로이트는 성적 목적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생식적 기능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로 성도착을 판단했다(김윤옥, 1998). 생식과 관련 없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

도착에 가까운 것이며, 이 경향은 성 대상에 매겨진 신체적 가치가 생식기 이상으로 과대평가되는 경우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페티시, 관음증, 사도 마조히즘 등으로 나타난다(Spector, 1998).

바타이유에 의하면 금기란 종교, 사회, 국가가 이성의 이름으로 만든 경계로, 인간은 금기에 신성함을 부여하여 공포로써 지키고자 하지만, 이는 결국 욕망의 대상이 되어 위반되며 인간은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문수, 2021). 바타이유의 금기와 위반은 크리스테바의 주체와 애브젝트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주체에게 애브젝트는 육체적 징후와 함께 결국 '승화'로서 경험된다(박성경, 2009). 승화는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충동이나 욕구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치환시켜 충족하는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애브젝트의 육체적 징후가 승화로 이어질 때 상징계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이문정, 2012). 즉, 상징계에서 주체는 애브젝트에 위협을 받지만, 승화를 통해 공포와 거부감이 해소되면 주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애브젝트가 가진 전복적 힘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정연이 & 김남시, 2018).

크리스테바는 오늘날 애브젝트의 승화는 예술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Kristeva, 2000). 즉, 상징계에서 요구하는 획일화된 규범에 대응하며 추하고 역겹지만, 매혹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영역을 예술로 본 것이다(정수경, 2008).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애브젝트 예술은 더럽고 불결한 배설물, 생리혈, 사체 등의 것들을 소재로 하여,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저급한 주제들을 보여주는 작업을 의미한다(정윤희, 2008). 특히 1993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주최한 『애브젝트 미술: 미국 미술에서의 혐오와 욕망(1993)』 전시를 통해 애브젝트 예술은 역겹고 비천한 특징을 가지는 작업이라는 인식이 예술계에 자리 잡게 되었다.

제 2 절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

지금까지 단지 미의 부정형으로만 여겨졌던 고대의 추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추의 체계를 확립한 근대의 로젠크란츠에 이르기까지 추의 개념을 사적으로 고찰하고, 20세기 이후 미학과 정신분석학의 담론 속에서 추의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이처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에 의해 추는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어왔지만, 현대 패션에서 추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로젠크란츠의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 특히나 패션 필름 속에서 추의 논점들을 폭넓게 분석하기 위해 추 개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20세기 이후 논의된 추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그리고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현대적 관점의 추로서 제안한다.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20세기 이전의 추에 대한 논의

고대

<객관주의적 미론>
추는 비례에서
벗어난 것,
형식을 이탈한 것

<플라톤>
예술 속의 추는
사회에 불량한 효과를
초래하며,
인간의 윤리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웃음은 저급한 속성을
지니지만,
권위를 비판하고
경건함을 조롱하는 등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
추한 대상을 모방할 지라도
그것을 매우 정확히
모사했을 경우에는
쾌감이 유발

<고대 그리스 신화>
살인과 식인 행위,
근친상간 등과 같이
금기를 위반하는
신들의 모습

스핑크스, 키마이라 등의
잡종 형상의 괴물

<스토아학파>
추는 세상의 미를
돋보이게 해주는
배경

<플로티노스>
'추는 악이요, 비존재이다'

'생명이 없는
죽음은 추한 것'

중세

<기독교 사회>
정신과 영혼에 대비되는,
육체와 욕망은 죄악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추한 것은 신의 작품이 아닌,
낮은 단계의 미일 뿐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질서론>
추는 미를 복잡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요인

<스콜라 철학>
추는 독립적으로
존재 불가하지만,
미와 함께 현상하면서
전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음.

<아퀴나스의 악의 문제>
우주에 존재하는 추와
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이 아닌 인간

<창조질서에 반하는 괴물들>
이교도적인 것,
악마적인 것,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우스꽝스러운 형태는 금지

<아퀴나스의 적절성>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는 추한 것

<마카브르>
중세 후기의
현실적인 모습의
역겹고 혐오스러운 죽음

<메멘토 모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지상의 부와 권력은
덧없는 것임을 상기

<카니발>
음란하고 과장된
언동을 통해 교회의 권위
를 격하하는 축제

17세기

<바로크 예술>
강한 표현성을 지니고
경이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추에 대한 취향이 성장

<캐리커처>
대상의 외형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하여 풍자의
효과를 노린 예술 장르

18세기

<숭고>
버크 : 숭고라는
미적 범주에는 공포를
비롯한 추한 감정들이 포함

<실러>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하여』
예술은 추를 포함한 모든 것을
표현 가능

『예술에서 천박함과
비천함의 사용에 관한 사고』
예술 속에서 천박함과 비천함에
대한 형상화를 긍정

<슐레겔>
『그리스 문학 연구』
예술은 '흥미로움'의
관점으로 소통

흥미로운 것 :
자극적인 것, 기발한 것,
충격적인 것, 역겨운 것 등

예술 속의 추는
현대의 상황에 대한 통찰,
현실에 대한 고통의 표현

19세기

<추의 변증법>
로젠크란츠 : 추는 미에서
시작하여, 웃음과 코믹을 통해
골계로 완성되는 개념

<로젠 크란츠의 몰형식>
'무형'
형태와 형식의 불일치,
명확한 경계의 부재

'비대칭'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 기형적인 형상

'부조화'
모순되는 것들의 충돌

<로젠크란츠의 부정확성>
'보편적 의미에서의 부정확성'
일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는 추

'특수한 양식에서의 부정확성'
특정 양식의 이상적인 미에
반하는 추

'개별 예술에서의 부정확성'
개개의 예술 작품에서
보여지는 추

<로젠크란츠의 천박함>
미적 형상에 반하는
적대적인 특성
ex) 하찮음, 연약함, 비천함

<로젠크란츠의 역겨움>
'졸렬함'
기형적인 질료, 어색한
움직임으로 불쾌를 유발

'죽어있는 것과 공허함'
생명이 소멸한 상태,
삶의 명랑함과 대비

<로젠크란츠의 추악함>
'몰취향적인 것'
비이성적인 광증,
부조리로 인한 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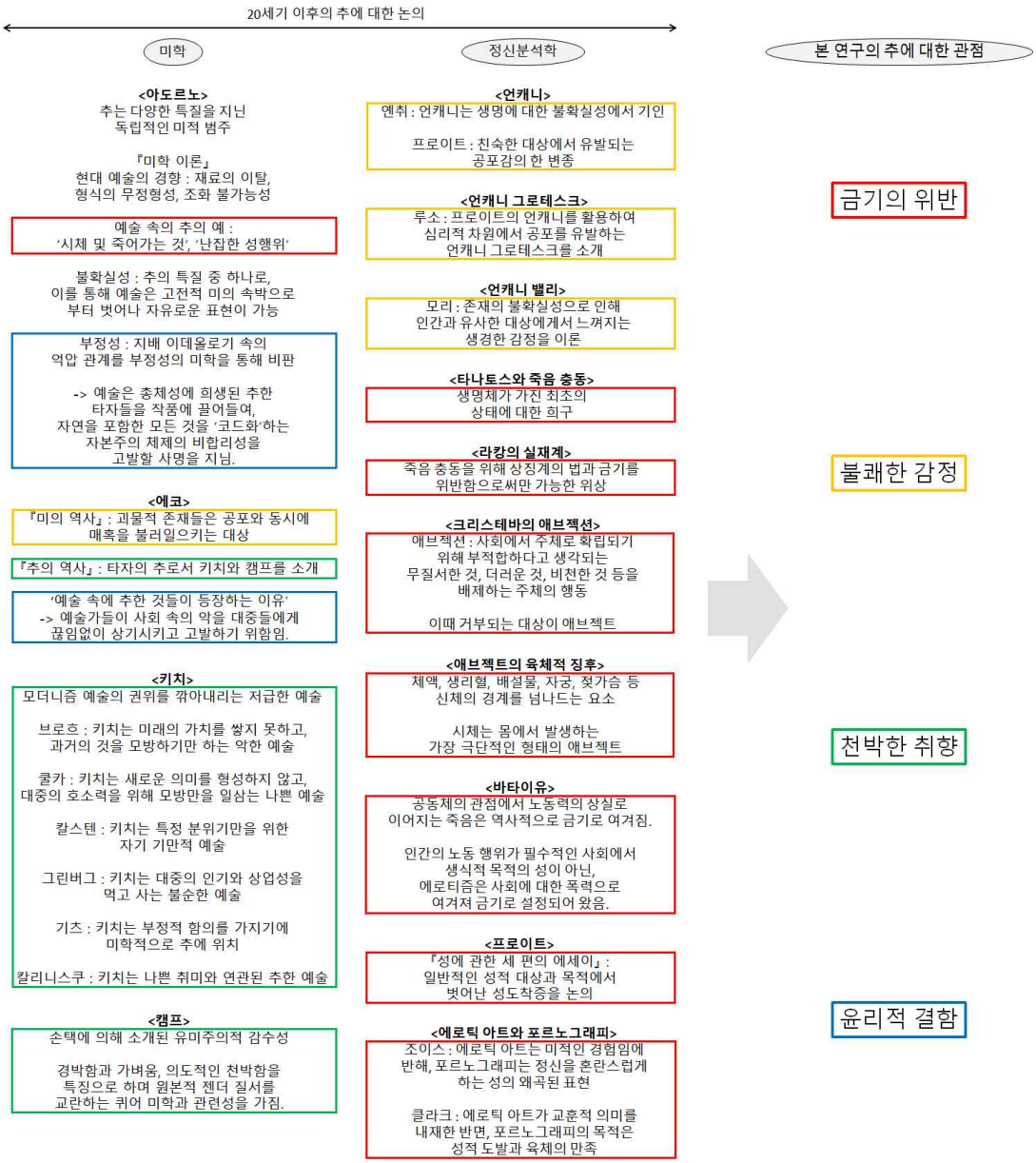
'구역질나는 것'
역겹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추의 특성
ex)성과 쾌락만을 위한
포르노그래피

<로젠크란츠의 악>
'범죄적인 것'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포괄

'유령적인 것'
비현실적 대상에서
느끼는 공포

'악마적인 것'
의도적으로 선을
무시함에 따라
해악을 유발

<로젠크란츠의 캐리커처>
원본이 지닌 권위를 해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
풍자적 효과를 발생



<그림 1>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

1.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분석학에서의 추는 상징계의 금기를 넘어서 실재를 욕망할 때 느껴지는 불쾌의 감정인 주이상스를 통해 현현한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은 대상에게서 느끼는 두려움과 혐오스러움, 그리고 육체와 관련된 성적 욕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금지되어 왔으며, 바타이유는 그의 저서 『에로티즘』에서 에로티즘을 '작은 죽음'이라 명명하고, 문화적 발전을 저해해온 죽음과 에로티즘을 금기로서 언급했다(Bataille,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기를 죽음 금기와 성 금기로 구분하여 이러한 금기의 위반을 표현하고 있는 SHOWstudio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1) 죽음 금기의 위반

고대의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죽어있는 대상을 추한 것으로 보았고(김종기, 2012), 중세에도 마카브르와 메멘토모리라는 개념을 통해 죽음은 인간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전달하는 추한 관념으로 존재해왔다(Ariès, 2004). 근대 이후에도 여전히 죽음은 추와 관련되어 나타났는데, 로젠크란츠는 '형태의 파괴 혹은 기형'이라는 추의 속성 중 '역겨움'이라는 추의 특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삶의 역동적 측면과 대비되는 죽어있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추의 감정을 언급하였다(김산춘, 2008). 아도르노 또한 『미학 이론(1970)』에서 추의 구체적인 예시 중 하나로 죽어가는 것을 제시했다(Theoder, 2014).

한편, 정신분석학에서 논의되는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신분석학에서 주체란 사회의 법과 질서 내에서 수많은 금기를 지키며 체제에 잘 적응하여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한다(김경순, 2009). 하지만, 무의식의 작동으로 모든 주체는 상징계 너머의 실재에 대한 욕망을 가진다. 이는 상징계 내의 금기를 위반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모성적인 것에 대한 욕망으로,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쾌락 원칙에 대비되는 '죽음 본능' 혹은 '죽음 충동'으로 간주했다(조선령, 2008). 사회의 금기를 어기기에 고통을 수반하지만, 혐오와 동시에 매혹적인 속성을 지닌 애브젝트를 추구함에 따라 주체는 불쾌의 기쁨인 주이상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주이상스는 상징계의 현실 원리와 쾌락 원칙에 반하는 고통과 불쾌의 감정과 연관되기에 미보다는 추의 작동 원리와 관계한다(정수경, 2008).

바타이유는 인류 문명의 최초 금기를 죽음이라고 보았다(Bataille, 2009). 이러한 죽음에 대한 금기에는 살해와 식인 풍습, 그리고 시체를 건드리지 않는 태도가 포함된다. 동물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미래에 닥칠 죽음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분되며,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죽음을 역사적으로 금기시해왔다(차민정, 2016). 하지만 바타이유에 따르면 일단 금기가 설정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인간은 금기를 위반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금기와 위반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폭력성을 내포한 죽음의 금기를 위반해왔다.

2) 성 금기의 위반

고대의 원시 종교였던 디오니소스교에서 신성에 다가가는 방법은 에로티즘으로, 축제의 기간은 온갖 성적 행위와 세속적인 일탈이 가능하였다(이문수, 2021). 하지만 기독교 사회인 중세는 새로운 왕국을 건립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당위성으로 생산성을 저해하는 에로티즘을 악마와 연결지어 탄압하게 되며,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성'을 죄악으로 여겨 금기로 설정하였다(김현숙, 2017).

로젠크란츠 또한 '형태의 파괴와 기형'으로 분류된 추의 하위 속성 중 '역겨움'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왜곡된 성의 형태, 쾌락만을 목적으로 한

포르노그래피와 같이 정상적인 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을 추한 것으로 여겼으며(Rosenkranz, 2008), 아도르노 역시 생식적 목적이 아닌 난잡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추의 예로 언급하였다(이정호, 2010). 유사한 맥락에서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에로틱 아트와 포르노그래피에 관하여 전자는 미적인 경험임에 반해, 후자는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하였고, 케네스 클라크(Keneth Clark) 또한 에로틱 아트가 교훈적인 예술인 반면 포르노그래피는 단지 성적인 도발과 육체적 만족의 기능만을 한다고 주장했다(양영은, 2011). 한편, 프로이트는 성 이론에 관한 에세이를 통해 정상적인 대상과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성 행동을 성도착증으로 분류하여, '성욕'이라는 금기시되었던 주제를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윤대웅, 2016). 프로이트에 따르면 성도착은 생식적 목적의 성행위와 무관한, 확장된 개념의 성행위를 의미한다. 인간 문명의 발전 속에서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결합 이외의 에로티즘은 금기로 설정되어 배척되어왔지만,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동성애나 다양한 형태의 성도착을 통해 얼마든지 쾌감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생식만을 목적으로 성 결합을 하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생식을 위한 성행위와 쾌락만을 위한 성행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바타이유는 성 금기가 죽음의 금기만큼 보편적이지는 않다고 보았다(유기환, 2008). 하지만, 오히려 여러 문화권에서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에 대한 제한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을 제한하는 보편적인 금기가 존재해왔음을 반증한다. 죽음에 대한 금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동행위가 필수적인 사회 속에서 생식적 목적의 성이 아닌, 에로티즘은 노동력의 감소를 촉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는 사회에 대한 폭력으로 여겨져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박준상, 2011). 따라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성애나 다양한 형태의 성도착증은 비생산적인 에로티즘으로 간주되어 사회에서 금기의 대상으로 여겨져왔다(Bataille, 2009).

2.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언캐니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것은 20세기 이후이지만, 고대 신화의 다양한 괴물들, 중세의 악마적 형상들, 그리고 근대의 고딕 문학을 통해 역사적으로 공포감을 비롯한 낯설고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계속 존재해왔다(Eco, 2008). 에코는 『미의 역사』에서 고대 신화 속의 잡종 형상의 괴물들과 중세 문헌에서 확인되는 악마 형상들을 예로 제시하며, 공포스러운 감정과 동시에 매혹적인 힘을 지닌 추의 효과를 인정했다. 또한, 중세의 신학자인 아퀴나스에 따르면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는 인간의 인성 형성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고, 공포를 비롯한 추한 감정을 유발하는 악한 존재로 여겨졌다.

18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미적 범주인 숭고에 대해, 버크는 쾌나 즐거움을 넘어선 불쾌와 고통의 감정을 전달하는 숭고가 인간에게 가장 큰 파토스를 전달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공포나 이와 유사한 감정들은 추한 감정으로 모두 숭고에 포함되며, 그는 예술에서 생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불쾌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로젠크란츠 또한, '추악함'의 범주 중 '유령적인 것'을 언급하면서 죽은 것이 다시 소생한 것과 같이 비현실적 존재로부터 기인한 혐오스럽고 두려운 감정을 추로 보았다.

한편, 언캐니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프로이트는 그의 논문을 통해 언캐니를 두렵고 낯선 공포감의 한 변종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그는 도플갱어, 죽은 자의 생환, 비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사건 등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는 벌어지기 힘든 초현실적 현상과 이치에 맞지 않는 비이성적 상황을 제시했다(유현주, 2010). 그에 앞서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른스트 옌취(Ernst Jentsch)는 『언캐니의 심리학』에서 처음으로 언캐니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이를 생명체처럼 보이는 것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무생물의 대상이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때 유발되는 감정으로 설명하였다(박언영, 2018).

언캐니에 대한 논의는 그로테스크 담론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볼프강 카이저는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1933)』에서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익숙하게 느끼던 것이 별안간 낯설고 섬뜩하게 다가올 때의 갑작스러움과 당혹스러움으로 보았다(Kayser, 2011). 그에 따르면 예술 속에서 그로테스크는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유희를 벌이는 과정에서 현현하는데, 이런 유희는 더 나아가서는 명랑함을 벗어던지고 현세의 이면에서 세계를 생경하게 만드는 '심연'을 불러내어 당혹스러움과 공포를 유발하고 은밀한 해방감과 함께 섬뜩함을 초래한다고 보았다(엄경희, 2018c). 이러한 카이저의 그로테스크 이론에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을 접목하여 매리 루소는 유물론적이고 희극적인 바흐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에 반하는, 보다 형이상학적이고 공포의 심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언캐니 그로테스크 이론을 제시했다(방창현, 2016).

이후 언캐니에 대한 논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봇 학자 마사히로 모리에 의해 '언캐니 밸리'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김지현 & 조재경, 2018). 언캐니 밸리는 인간이, 인간 아닌 존재를 볼 때, 그것이 인간과 더 많이 닮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이다(이상윤, 2021). 즉, 인간이 특정 대상을 바라볼 때 자신과 지나치게 흡사하여 친숙함을 느끼지만,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인격성도 찾아볼 수 없기에 낯설고 당혹스러운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포나 두려움, 낯섦과 생경함을 자아내는 감정적 측면의 추를 표현하고 있는 SHOWstudio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3.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20세기 이후 저급한 취향으로 키치와 캠프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진지함과 엄숙함, 그리고 원본의 권위를 찬탈하는 천박한 대상들은 추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을 통해 희극에서 웃음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김성빈, 2009).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웃음은 진리 전파의 수단 중 하나로 그 자체로는 엄숙하고 진지한 비극의 파토스와는 달리 저급한 속성을 지니지만, 권위를 비판하고 경건함을 조롱하며, 절대성을 파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로 기능한다(김시몽, 2019). 하지만 중세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엄숙함 속에서 사람들은 신의 계율을 명상하고 자신의 삶을 참회하며 보내야 했기에 이러한 웃음은 추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적으로 금지되었다. 이처럼 엄숙했던 시기인 중세조차도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우스꽝스러운 형태의 괴물들이 문학 속에서 등장하였으며, 음란하고 과장된 언동을 통해 교회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비천한 속성을 지닌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존재했다(진중권, 2003).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에도 저급하고 조야한 형태의 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형적인 과장과 왜곡을 통해 사회에 대한 풍자 효과를 노렸던 캐리커처라는 예술 형태가 있었으며(오양진, 2006), 실러는 예술의 천박함과 비천함에 대한 형상화를 긍정했다. 근대 추의 이론을 완성한 칼 로젠크란츠 또한, '천박함'이라는 추의 속성은 '하찮음', '연약함', '비천함'으로 구성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추는 미와 종합을 통해 골계로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Rosenkranz, 2008). 그는 미와 추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추에서 웃음과 코믹이 유발된다고 보았으며, 추의 체계에서 원본성을 해체하는 '캐리커처'를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임명규, 2015). 이처럼 진지하지 못한 우스꽝스러운 형태는 역사 속에서 추한 것으로 여겨졌고, 추의 이러한 속성은 풍자, 패러디 등을 통해 절대적 가치 체계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며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편, 20세기 이후 소위 문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모더니즘 예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저급한 예술인 키치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헤르만 브로흐는 미래 지향적 가치를 축적해가는 고급 예술과 달리 단지 조악한 미적 쾌감을 목적으로 하는 모방 장르인 키치를 악으로 여겼으며(정용

환, 2013), 토마스 쿨카 역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지 못하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에 급급한 키치를 나쁜 예술로 규정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아방가르드 예술과의 비교를 통해 키치를 불순하고 저급한 예술로 보기도 하였다. 이후 손택에 의해 천박함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캠프라는 유미주의적 감수성이 형성되었고, 이는 젠더 전복적인 퀴어 주체들이 예술 속에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박세미, 2017). 이처럼 의도적으로 비천하고 저급한 취향을 표방하는 키치와 캠프의 등장으로 천한 감수성은 현대 예술, 공연문화, 패션 등 다방면에 표현되고 있다(박은경, 200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권위의 격하와 함께 원본적 질서의 파괴를 일삼는, 저급한 '웃음'의 전복적 속성을 내포한 SHOWstudio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4.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미적 범주인 추는 윤리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왔다. 플라톤은 미와 선을 동일하게 보았으며, 특히나 예술 속의 추는 인간의 인격 향상과 사회생활에 불량한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술에서의 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한승연, 2009). 또한, 중세는 선하고 미적인 정신에 반하는 육체를 악하고 추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악의 문제를 추와 결부시키는 등 여전히 실천 이성과 미적 판단이 분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문한나, 2014). 그뿐만 아니라, 근대에 추의 체계를 완성한 로젠크란츠도 '악'이라는 추의 속성 중 '범죄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통해 도덕성의 결여로서 추를 다루었다.

고대와 중세가 도덕적 교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추를 예술에서 배제해온 것과 달리, 슐레겔은 19세기에 이미 추의 사회적 교화 기능을 인식했으며(박현용, 2017), 이후 아도르노는 추를 적극적으로 예술의 주제로 끌어들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도르노는 20세기 모더니즘 예술에서 나타난 반이성적인 추의 양상들이, 파시즘과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귀결

된 이성중심주의의 서구 문명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일으켰음을 상기하였다(민형원, 1998). 즉, 아도르노는 헤겔에 의해 완성된 근대 계몽주의 철학이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하게 되면서 동일성이라는 명목하에 타자들을 배척하는 자본주의의 억압 구조를 비판했다(이종하, 2007).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은 태고의 신비로운 아우라를 상실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는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까지 확장되어 모든 것이 획일화되고 개개인의 개별성이 상실되기에 이른다(Adorno, 1997). 아도르노의 유토피아는 단순히 추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을 타자로서 규정하고 이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이데올로기의 억압이 사라지는 것이다(박상선, 2004). 다시 말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개별자에 대한 보편자의 폭력 속에서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억압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사회와 무관한 순수예술로서 존립하는 것이 아닌, 추한 것들을 문제로 삼아,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타자들을 구원하고 결과적으로 이 세계의 모순된 구조를 탄핵하는 역할을 행해야 한다(정현철, 2006). 한편,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추를 세세하게 검토하여 계보학적으로 정리한 에코 또한, 그의 저서 마지막 장을 할애하여 추의 사회 고발적 기능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했다(Eco, 2008).

이처럼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추는 윤리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모순적인 구조를 폭로하고, 자연을 포함한 사회적 타자들을 구원하는 추의 윤리적 관점으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드러낸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제 3 절 패션 필름과 SHOWstudio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는 패션 필름의 등장 배경과 정의,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닉 나이트의 예술 경향과 SHOWstudio의 특징을 고찰하고, 제 3 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SHOWstudio에서 전개한 핵심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1. 패션 필름의 등장 배경과 정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온라인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패션계에 큰 영향을 미쳐 패션의 범위가 상품 자체에서, 내재된 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되었다. 더불어, 패션쇼의 형태가 변화하고 브랜드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패션 브랜드들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미디어나 플랫폼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체를 모색하게 되었다(이정기, 2015). 이에 따라 정적인 패션 사진 혹은 전통적 패션 미디어에서는 표현하기 힘들었던 이미지를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디지털 환경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패션 필름이 등장할 수 있었다(김선영, 2013a).

이처럼 패션 필름은 기존의 패션 미디어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현 매체로, 전통적 미디어가 지닌 한계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미학적 가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상호 작용적인 매체로 인식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Khan, 2012). 나아가 최근 팬데믹(pandemic)의 영향으로 비대면적 라이프스타일이 자리 잡게 되면서, 물리적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인 패션 필름의 다양성과 그 범위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적 의미의 패션 필름이 비교적 최근인 2000년도 이후부터 브랜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

으로서 활발히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ASVOFF(A Shaded View of Fashion Film)(2008), NYFFF(New York Fashion Film Festival)(2011), BFFF(Berlin Fashion Film Festival)(2012) 등과 같은 글로벌 패션 필름 페스티벌이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은 패션 필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박병윤, 2018). 이에 따라 최근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패션 필름을 주요 매체로 활용하고 있어 패션 필름의 성장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나 디올은 2015년과 2016년 유튜브에 약 10개 정도의 패션 필름을 업로드하였던 반면, 2017년부터 패션 필름의 제작에 박차를 가하여 2019년에는 239개의 패션 필름을 공개하였다(김민주, 2021).

패션 필름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Geczy & Karaminas(2015)는 동시대의 패션을 보여주기 위한 움직이는 이미지 플랫폼으로서 패션 필름을 정의하였다. 또한, Soloaga(2016)는 패션 필름을 패션 브랜드가 제작하는 창의적인 시청각 프로젝트라고 설명하며 브랜드 웹사이트는 물론 패션쇼, 갤러리, 박물관, 리테일샵 등 광범위한 공간에서 재생되는 시즌별 컬렉션 홍보 비디오, 전자 룩 북(look book), 상업광고, 쇼트 필름, 비디오 클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권지안과 임은혁(2016)은 패션 필름을 패션을 주제로 다루는 영상물로서, 패션 브랜드의 재정으로 제작된 영상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했으며, 김송미와 김이경(2013)은 패션 필름을 특정 브랜드가 콘셉트 및 정체성 표현을 위해 제작한 10분 내외 길이의 영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허예은 외(2016)는 패션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온라인에 업로드된 디지털 영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패션 필름의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해 볼 때 패션 필름은 의상, 액세서리 등과 같은 패션 소재를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는 미디어로, 제작자의 메시지가 담긴 패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상업적인 목적과 예술적인

표현 가치가 어우러진 복합적 성격의 장르로 정의할 수 있겠다.

2. 패션 필름의 유형

선행연구는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에 따라 패션 필름을 제작 주체, 커뮤니케이션 채널, 형식, 스토리텔링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유형화했다.

우선, Needham(2013)은 패션 필름을 제작 주체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패션 필름은 온라인에서 브랜드의 매장 경험을 대체할 목적으로 온라인 샵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부티크 필름(the boutique film), 패션 디자이너와 소규모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이너 필름(the designer's film), 그리고 유명한 영상 연출가와 영상 아티스트에 의해 제작된 연출가 필름(the authored film)과 아티스트 필름(the artist's film)으로 구분된다(Needham, 2013).

또한, 김세진(2017)은 패션 필름을 제작 주체 및 목적에 따라 홍보적 패션 필름, 에디토리얼 패션 필름, 독립적 패션 필름으로 유형화하였다. 홍보적 패션 필름은 패션 업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제작된 패션 필름으로, 브랜드의 정체성과 시즌 콘셉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뜻한다. 에디토리얼 패션 필름은 패션 잡지나 뉴미디어 패션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영상물로, 패션 트렌드 전달과 패션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표현을 목적으로 제작된다. 독립적 패션 필름은 패션 업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창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영상으로 패션에 대한 심미적 표현과 개인적 포트폴리오 구축의 목적으로 제작된 패션 필름을 의미한다(김세진, 2017).

김송미와 김이경(2013)은 패션 필름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기준으로 패션쇼에서의 패션 필름, 디지털 매체에서의 패션 필름으로 분류하였다. 패션쇼에서의 패션 필름은 다시 비주얼 중심의 패션 필름과 스토리 중심의 패션 필름으로 유형화되었고, 디지털 매체에서의 패션 필름은 상업적

관점에서 단순히 해당 브랜드의 옷을 입은 모델들의 연출을 통한 영상물과 아트의 관점에서 브랜드의 철학과 미학, 디자이너와 감독의 예술성을 드러내는 형태로 재분류하였다(김송미 & 김이경, 2013).

또한, 김선영(2013a)은 영상물의 형식적 측면에서 패션 필름의 유형을 숏 필름(short film)과 프레젠테이션 패션 필름(presentation fashion film)으로 나누었다. 숏 필름은 5-10분 이내의 영상물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패션 제품의 홍보나 시즌 컬렉션의 콘셉트를 전달하거나, 서사성이 없는 형태로 디자이너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패션 필름이다. 프레젠테이션 패션 필름은 스토리 기반 없이 동영상 중심의 극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영상물로 시즌 컬렉션의 이미지 콘셉트를 사전 전달하거나, 컬렉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김선영, 2013a).

권지안과 임은혁(2016)은 패션 필름을 형식적 측면에서 모션 픽처 패션 필름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패션 필름으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을 재유형화 하였다. 모션 픽처 패션 필름은 형식에 따라 픽션 패션 필름, 다큐멘터리 패션 필름, 애니메이션 패션 필름으로 분류된다. 픽션 패션 필름은 브랜드 광고를 위한 목적 외에 독자적인 내러티브와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전통적인 영화의 형식을 차용한 패션 필름이다. 다큐멘터리 패션 필름은 영화의 다큐멘터리 형식과 유사한 패션 필름으로서 사실적인 묘사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패션 필름은 패션 필름에 만화적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진지한 내용 대신 재미와 오락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패션 필름이다. 영상에 사용된 기술에 따라 미디어 테크놀로지 패션 필름은 모션 그래픽 패션 필름, 프로젝션맵핑 패션 필름, 홀로그램 패션 필름으로 재구분되었다(권지안 & 임은혁, 2016).

장예완과 서승희(2017) 또한, 패션 필름을 형식에 따라 영화형, 비디오 클립형, 만화형으로 구분하였다. 영화형 패션 필름은 특정한 스토리를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전달하는 유형으로 감정과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브랜드의 감성 및 가치관을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다. 비디오 클립형 패션 필름은 1분에서 3분 이내의 짧은 길이의 영상으로, 복잡한 스토리가 아닌 위트있는 주제와 화려하고 세련된 영상미를 통해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유형의 패션 필름이다. 또한, 만화형 패션 필름은 애니메이션과 같이 모든 배경과 캐릭터를 창조하여 제작하거나, 실사에 만화적인 요소를 일부 넣어 제작하는 유형의 패션 필름이다(장예완 & 서승희, 2017).

한편, 홍윤정과 김영인(2013)은 패션 필름을 스토리텔링의 유형에 따라 에피소드형, 내러티브형, 크리에이티브형으로 구분하였다. 에피소드형의 패션 필름은 브랜드의 '사실'을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낸 유형으로 디자이너로서 차별화된 창의성, 패션에 대한 가치관, 독창적인 작품의 제작 과정 등을 공개한다. 내러티브형의 패션 필름은 기존의 문학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스토리가 전개된다. 브랜드의 정보나 사실보다는 기존의 문화적 원형이나 아티스트의 작품을 빌어 브랜드의 이미지나 심미적인 체험을 전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크리에이티브형 패션 필름은 창작된 스토리를 통해 디자이너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유형이다. 해당 유형의 패션 필름은 패션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창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독창적이고 특별한 스토리를 통해 디자이너의 예술가적 성향을 전달하며, 패션 외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홍윤정 & 김영인, 2013).

김지예와 서승희(2017) 또한, 패션 필름의 유형에 따른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에서 스토리텔링의 방법에 따라 패션 필름의 유형으로 극적(theatrical) 패션 필름, 다큐멘터리 패션 필름, 아방가르드 패션 필름으로 구분하였다. 극적 패션 필름은 보편적인 소재를 스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야기 중심의 닫힌 내러티브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다큐멘터리 패션 필름은 조작되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패션 필름의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아방가르드 패션 필름은 과감한 테크닉을 통화여 영화의 표현력과 가능성을 확장시킨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유형의 영상물이다(김지예 & 서승희, 2017).

본 연구는 SHOWstudio의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김선영(2013a)의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브랜드의 시즌 콘셉트를 보여주는 작품을 컬렉션 패션 필름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김지예와 서승희(2017)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배제한 채 사실성에 기반한 작품은 다큐멘터리 패션 필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다수의 콜라보레이션을 전개하는 SHOWstudio의 특성을 반영하여, 홍윤정과 김영인(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티브 패션 필름을 별로도 유형화하였고, 사례 분석 결과 SHOWstudio의 대다수 영상은 크리에이티브 패션 필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SHOWstudio의 작품이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패션 필름이라는 전제하에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컬렉션 패션 필름, 다큐멘터리 패션 필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닉 나이트와 SHOWstudio

패션 필름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패션, 영화, 영상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해 왔지만, 패션 필름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하나의 예술 장르로, 현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Uhlirova, 2013). 현대의 패션 필름도 초기에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어 홍보의 목적으로 상업성이 강했던 반면, 이후 패션 필름은 독립적인 예술 장르로서 표현성과 예술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Moloney, 2018). 이러한 양상은 2000년도 닉 나이트에 의해 개설된 패션 필름 전문 웹사이트인 SHOWstudio 이후 본격화되었다.

닉 나이트는 혁신적인 패션 이미지를 제공하는 SHOWstudio의 대표로 패션 필름 제작의 선두주자이다. 그는 198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본머스 앤 풀 칼리지(Bournemouth and Poole College of Art & Design)를 졸업한 후 1982년 첫 사진집 『스킨 헤즈(Skinheads)(1982)』를 발표

하였다(“Nick Knight”, n.d.). 이후 닉 나이트는 1986년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의 광고 카탈로그를 작업을 통하여 패션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며, 이는 패션계의 여러 디자이너와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Alexander, 2015). 1990년대 후반에는 뚱뚱한 여성, 나이든 여성, 장애가 있는 여성 등의 일련의 시리즈를 선보여 패션 산업에서 정형화된 글래머에 도전하였다(김지영, 2013b).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영국의 일렉트로니카 그룹 매시브 어택(Massive Attack), 아이슬란드 출생 일렉트로니카 여가수 비요크(Björk) 등 대중적이면서도 실험성이 강한 뮤지션들의 앨범 작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작품을 선보였다(Vikram, 2010). 이후, 2000년도에 개설된 SHOWstudio는 다양한 장르의 패션 영상과 인터넷을 통한 생방송, 퍼포먼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독창적인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혁신적인 패션 이미지를 만들어왔다(김지영, 2013a).

닉 나이트는 2000년도 SHOWstudio의 첫 프로젝트인 『Sweet(2000)』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69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수많은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을 해왔지만, 특히나 그는 알렉산더 맥퀸, 가레스 푸, 마틴 마르지엘라 등과 같은 전위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함께 다수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처럼 닉 나이트는 전위적인 디자이너의 브랜드에 내재한 미학 외에 패션 필름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담아내기도 하고, 전 세계의 신진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패션 필름을 제작하기도 했다(Dean, 2015). 그는 『AI(2019)』, 『Sustainable fashion(2014)』, 『Political fashion(2008)』등 사회문화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패션을 매개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전개해왔다. 또한, 『Tessa(2019)』, 『Die verwandlung(2017)』, 『Portrait of Caitin Stickels(2016)』등 특정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미학을 표현한 아트 필름들이 제작되고 있으며, 『Instagram: takeover』, 『Tumblr: takeover』과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 아

티스트들에게 SHOWstudio를 통해 그들의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Hannah, 2018). 유사하게 2016년과 2019년에 전개된 『Fashion film awards』와 201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Fashion film submissions』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필름 메이커로부터 패션 필름을 받아 우수작을 선정하는 등 신진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SHOWstudio 패션 필름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선진적 도입을 들 수 있다(김지영, 2013b). 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이미지 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여 페인트박스, 포토샵, 사이텍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였다(Hooper, 2012). 그는 패션 사진에 새롭고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특수 렌즈나 조명 등을 이용하였고, 초기부터 어안렌즈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길게 늘이거나 줄여서 실제로 있을 법하지 않은 비율의 형태로 이미지에 변형을 가하였다(Sarah, 2015). 이러한 왜곡의 기법은 현재까지 그의 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진행된 『Scale(2021)』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그는 3D 레이저 스캐닝 전문가인 케빈 스터닝(Kevin Stenning)과 함께 360도 이미지 데이터에 의한 조각 렌더링을 창조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Reality inverse(2018)』 프로젝트를 통해 패션 필름 관람자들이 마우스를 통해 모든 시각에서 작품을 자유자재로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을 업로드하기도 하였다(Lara, 2020).

또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은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서 탈피하여 주변화된 미적 현상들을 다루고 있다(김지영, 2013b). 즉, 닉 나이트는 미적 표현에 있어서 정형화된 표현을 거부하고, 각 브랜드가 추구하는 미학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해왔다. 『Ugly(2014)』, 『Uglyworldwide(2018)』, 『Extraordinary gentlemen(2011)』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서 탈피한 반미적 성향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고, 『Fashion

fetish(2012)』, 『Queer(2018)』, 『The fashion body(2010)』 등을 통해 타자화된 성애적 경향과 지배적인 젠더 담론에서 벗어난 젠더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Samantha, 2020).

4. SHOWstudio의 주요 프로젝트

앞서 논의한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으로, 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SHOWstudio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 3 장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2003년에 전개된 『Compulsive viewing: the films of Guy Bourdin(2003)』은 다분히 실험적이고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초현실적 표현으로 인간의 내면에 깔린 성적 욕망을 감각적으로 제시한 프랑스 출신의 사진작가인 기 부르뎅(Guy Bourdin)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프로젝트이다(“Compulsive viewing”, 2003). SHOWstudio는 그의 작품들을 재해석한 11개의 패션 필름을 제작하였으며, 해당 작품들은 2003년 4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된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Victoria and Albert) 박물관의 부르뎅 회고전을 기념하기 위해 SHOWstudio에서 독점적으로 상영되었다. 부르뎅은 패션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준 획기적인 사진작가로, 어린 시절 전시 상황에서의 불확실성과 혼란,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합리성에 도전하는 초현실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패션 사진보다는 패션의 욕망 이면에 존재하는 페티시즘, 권력 관계, 성폭력의 잠재성 등을 작품으로 표현하였고, 그 결과 쾌감을 주는 이미지보다는 관람자들에게 불편하고 낯선 감정을 유발하는 패션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Christabel, 2003).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작품 중 ‘Gold Fish’, ‘Mackerel Girl’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리 보워리(Leigh Bowery)의 실제 모습을 편집하여 패션 필름으로 제작한 『Guiser(2004)』가 있다. 호주의 퍼포먼스 아티스트이자

패션 디자이너였던 그는 패션, 예술, 공연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끼쳤다. 2004년 옵저버 매거진(The Observer Magazine)의 요청에 따라 닉 나이트는 그가 직접 촬영한 보워리의 실제 영상과 보워리의 밴드였던 '민티(Minty)'의 비공개 데모 테이프의 사운드트랙을 합쳐 『Guiser』를 기획했다("Guiser", 2004). 보워리는 자신이 디자인한 매우 독창적인 옷을 입고, 성적 노출과 함께 과장되고 극단적인 퍼포먼스로 당시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김현정 & 임은혁, 2018). 그는 1985년에 클럽 '타부(Taboo)'를 시작으로 나이트클럽의 문화를 이끌었으며, 기성 문화의 성적 관습에 저항하고 복합적인 성 정체성을 수용하는 장소로 만들어 드랙(drag)과 퀴어 문화의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Donald, 2004). 이에 본 연구는 보워리의 전위적인 복식과 퍼포먼스를 보여준 『Guiser』의 패션 필름 4편을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Political fashion(2008)』은 2007년 12월에 시작되어 2008년 여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로 총 61편의 영상물과 16편의 에세이를 포함하고 있다. 패션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 밝힌 닉 나이트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패션을 통해 무언가를 말하기를 원했다. 그는 패션 산업 역시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악한 것들을 패션 필름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라 밝혔다("Political fashion", 2008). 본 연구는 해당 프로젝트의 패션 필름 중 17편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2008년에 진행된 또 하나의 주요 프로젝트로 패션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선보인 『Future tense(2008)』가 있다. 창의적인 신진 디자이너들에 의해 제작된 총 70편이 넘는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본 프로젝트는 도래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을 담은 실험적인 영상물을 포함하고 있다("Future tense", 2008). 그중 본 연구는 추의 특성에 부합하는 작품 5편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The fashion body(2010)』 프로젝트는 패션과 움직이는 이미지의

결합으로 인체를 탐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009년에 열린 SHOWstudio의 전시회인 『Fashion revolution(2009)』의 연장선으로 제작되었다(“The fashion”, 2010). 총 42편의 패션 필름에서 최신 컬렉션의 패션 아이템을 착용한 모델들은 특정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춘 연기를 보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는 30편의 에세이와 함께 특정 신체 부위가 갖는 철학적 의미와 성적 의미, 그리고 권력 관계 등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7편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패션과 페티시 간의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SHOWstudio는 2012년 『Fashion fetish(2012)』를 기획했다. 동해 SHOWstudio의 『Selling sex(2012)』전시와 함께 SHOWstudio는 패션 페티시를 주제로 한 일련의 패션 필름들과 해당 작품에 대한 에세이를 수록했다(“Fashion fetish”, 2012). 페티시가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열광하는 대상이라 볼 때, 패션 또한 매혹적인 특정 아이템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마법과 같은 효과를 선사한다는 점에서 패션은 수많은 페티시가 포함된 장으로 볼 수 있다(Caryn, 2012). 더 구체적으로, 패션은 코르셋의 미묘한 구속, 윤기가 흐르는 라텍스, 높은 굽의 구두 등으로 수 세기 동안 성적 페티시와 결부되었다(Victoria, 2012). 본 연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7편의 작품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2013년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미술관에서 열린 『Punk: chaos to couture(2013)』전시에서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를 역임했던 닉 나이트는 동해에 『Punk(2013)』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는 펑크가 지난 100년 동안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운동이라고 주장하며, 패션계에도 매 시즌 펑크의 주제가 변형되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Punk”, 2013). 해당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디자이너는 펑크의 ‘DIY’ 정신에 입각하여 직접 의상을 제작하고 이를 패션 필름을 통해 선보였다. 기성세대의 삶의 태도와 가치를 거부하고 전복을 일삼는 정신을 표현한 『Punk』 프로젝트에서 본 연구는 9편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영국과 러시아의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적 관계를 기념하기 위한 『UK-Russia year of culture 2014』 행사와 발맞추어 닉 나이트는 2014년 최근 러시아의 부상하는 독창적인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들을 소개하기 위해 『Dressing the screen: Russia(2014)』를 기획하였다. 모든 영상물은 캐서린 퍼거슨(Kathryn Ferguson)에 의해 지난 75년간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와 영화 제작자들의 작품을 전시해 온,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의 '드레싱 더 스크린(Dressing the Screen)'의 주도로 제작되었다("Dressing the", 2014). 『Dressing the screen: Russia』는 14개의 패션 필름과 함께, 러시아가 현대 패션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중해야 할 조치들을 다룬 3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3편의 작품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같은 해의 『Soap opera(2014)』는 영화 제작자인 조셉 랠리(Joseph Lally)에 의해 기획된 SHOWstudio 독점 프로젝트로, 예술적인 연속극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최소한의 도덕관념조차도 무너져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랠리는 성과 폭력, 범죄 등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선보였다("Soap opera", 2014). 총 11개의 에피소드 중 본 연구는 그중 가장 자극적인 주제를 다룬 4편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2015년도에는 14편의 패션 필름을 포함한 『Aquelarre(2015)』가 기획되었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마녀들이 악마와 만남을 가진 장소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닉 나이트는 15 S/S 시즌의 컬렉션에서 본 이교도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베이싱스토크(Basingstoke)에 있는 삼림 지대를 배경으로 사탄주의 의식을 묘사한 패션 필름을 제작했다. 그는 인간이 때로는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고 즐길 필요가 있기에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람자들에게 쾌감보다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Aquelarre", 2015). 본 연구는 해당 프로젝트의 작품 14편을 모두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A beautiful darkness(2015)』는 전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2015년도의 할로윈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닉 나이트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초자연적인 감각을

포함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히고 있다(“A beautiful”, 2015). 아름다운 어둠이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에 걸맞게 『A beautiful darkness(2015)』는 외적인 화려함에 숨어있는 추함과 공포의 감정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영상물 중 3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7년부터 진행된 『Fashion film submissions』는 SHOWstudio의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닉 나이트는 SHOWstudio를 통해 새로운 인재들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미디어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그에 대한 첫 시도로 2016년 ‘큐아이씨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QIC Global Real Estate)’와 함께 『Fashion film awards(2016)』를 출범시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신진 패션 이미지 메이커를 지원해왔다(“Fashion film”, 2015). 『Fashion film submissions』 또한 비슷한 취지의 프로젝트로 그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패션 이미지 메이킹 지망생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메일로 출품작들을 받아 선별작업을 거친 뒤 탁월한 패션 필름은 SHOWstudio를 통해 발표된다. 본 연구는 신진 아티스트들의 실험적이고 대담한 작품들을 다룬 본 프로젝트에서 8편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한편, 『Master(2017)』는 닉 나이트의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인 ‘마스터드(Mastered)’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작한 패션 필름을 선보였다. 닉 나이트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해 솔직한 묘사를 통해 에로틱한 이미지를 가진 결과물을 제작해 달라고 부탁했다. 더하여, 관람자가 작품 속의 패션을 욕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자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현대 패션에서 에로티즘의 가능성을 찾고 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그는 에세이를 통해 밝혔다(Nick, 2017). 본 연구는 본 프로젝트의 패션 필름 9편 중 4편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2019년 10월 17일에 개최된 『Fashion film awards(2019)』는 유명 명품 백화점 해롯과 제휴를 통해 진행되었다. 전 세계의 신진 패션 이미지 메이커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

든 패션 필름을 제출하였고, 수상작은 해롯 백화점에 전시되는 특권이 주어졌다(“Fashion film”, 2019). 『Fashion film awards(2019)』는 8편의 수상작과 14편의 후보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해당 작품 중 7편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 3 장에서는 SHOWstudio의 주요 프로젝트는 물론,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작품들 속에서 본 연구의 추의 관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 3 장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 나타나는 추

닉 나이트의 SHOWstudio는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창작자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여 표현의 제약을 두지 않아 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묘사될 수 있었다.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는 혈흔이 난자한 모습, 파편화된 신체의 모습 등이 제약 없이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슴을 비롯한 남녀의 생식기, 그리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성도착증까지도 작품 속에서 집요하게 탐구하였다.

한편, SHOWstudio는 페미니즘과 퀴어 문제, 인종 차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패션이라는 매체를 통해 논의될 수 있는 장을 형성했다.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은 여성의 사회적 장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이를 특정 국가로 좁혀 해당 문화권의 가부장적인 제도를 비판하고 그들이 겪는 고충을 폭로하기도 했다. 또한, SHOWstudio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패션 필름은 물론, 여성의 의상과 메이크업을 통해 과장된 여성성을 연기하는 남성인 드랙 퀸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기도 하였다. 이처럼 SHOWstudio는 작품 속의 추를 통해 미적 환기를 유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타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론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의 관점인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그리고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례 분석에 앞서 SHOWstudio 패션 필름의 추세를 살펴보면, 과거보다 최근에 컬렉션 패션 필름에서 추가 표현되는 빈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 중 컬렉션 패션 필름은 총 12편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1개의 작품은 모두 2017년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2020년 이후에 8편의 작품이 집중되어 있었다. 패션 필름 'Silicone valley part 1, 2(2020)'와 'Matty Bovan A/W 21 womenswear(2021)'로 런웨이를 대신한 오드와이어와 보반은 팬데믹 상황에서 패션 필름의 형식으로 컬렉션을 전개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옷 자체보다는 영상 자체의 표현 효과에 집중하였다고 밝혔다(Violet, 2021). 즉, 과거에는 패션 필름에서 시즌 컬렉션을 제시하는 경우에 브랜드의 정체성 표현과 새 시즌의 상품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컬렉션을 선보이는 패션 필름에서조차도, 3D 스캐닝 기술, 디지털 왜곡 기술, 애니메이션 형식 등을 통해 자체적인 미적 효과를 강화한 패션 필름이 제작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추의 관점이 근래로 오면서 패션 필름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를 죽음의 금기와 성 금기로 나누어, 본 연구의 추의 관점을 총 5개로 본다면, 추의 관점에 따른 연도별 작품의 개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많은 패션 필름이 제작되었던 2008년도를 제외하면, 2010년까지 작품들 속에 표현된 추의 관점은 2개를 넘지 못했다. 많은 수의 패션 필름으로 5개의 관점이 모두 나타난 2008년도의 경우에도, 작품들이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드러내는 데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13년까지도 작품들 속에서 표현된 추의 관점은 최대 3개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2014년도 이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모두 4개 이상의 관점이 패션 필름들에서 표현되었으며, 2017년도와 2019년도에는 5개의 추의 관점이 SHOWstudio의 작품들 속에서 모두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젝트 성격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Political fashion(2008)』, 『Fashion fetish(2012)』 등과 같이, 한 프로젝트 내에 수십 편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수 기획되었으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추의 관점이 한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randed(2015)』,

『Once upon a future(2018)』, 『Tessa(2019)』, 『Infamy(2020)』, 『Scale(2021)』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SHOWstudio는 최근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와의 단독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7년도에 시작된 『Fashion film submissions』과 2016년도와 2019년도 두 차례 진행된 『Fashion film awards』를 통해, 전 세계의 신진 패션 필름 메이커를 지원함에 따라 실험적인 형식과 다양한 주제를 지닌 작품들이 SHOWstudio에 출품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 수 있겠다.

<표 2> 추의 관점에 따른 연도별 작품 개수

특성 / 연도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죽음)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성)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
2000				1	
2001				1	
2002					1
2003	2		1		
2004	1			4	
2005			1		
2006					
2007		1			
2008	1	2	6	2	12
2009					
2010	3	4			
2011		1	1		
2012		7			1
2013	3	4			3
2014	1	3		2	5
2015	4	1	17	1	
2016	1		1	2	2
2017	3	4	3	1	2
2018		1	2	1	2
2019	2	1	2	1	2
2020	1	1	3	5	
2021			1	4	
총계	22	30	38	25	30

제 1 절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본 연구는 앞서 도출한 첫 번째 추의 관점인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를 죽음에 대한 금기와 성 금기의 위반으로 분류하였다. 사례로 선정한 SHOWstudio의 패션 필름 145편 중 22편이 죽음의 금기 위반을 주제로 한 영상물이었으며, 30편이 성 금기의 위반을 나타낸 작품으로 나타났다.

1. 죽음 금기의 위반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죽음에 대한 금기의 위반은 실제적인 죽음을 표현한 작품과 정신분석학의 죽음인 애브젝트를 표현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브젝트는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척되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상징계로 진입하기 이전 어머니와의 합일의 상태 속에서 체액, 피, 분비물과 같은 애브젝트들은 혐오스럽고 비천한 것임과 동시에 묘한 매력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애브젝트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적 주체로 탄생하기 이전의 상태 즉, 모성적인 상태에 대한 희구인 죽음 충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문정, 2012).

(1) 마카브르

죽음 금기를 표현한 작품 중 시체, 피, 해골 등을 통해 노골적인 죽음인 마카브르를 표현한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인 『The fashion body(2010)』의 작품 중 'Neck(2010)'은 사진작가인 스티븐 클라인(Steven Klein)에 의해 제작된 작품으로, 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2). 목 부근의 맥박을 통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이 확인되지만, 영상

후반부의 발소리가 멈추고 총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맥박이 멈추는 장면을 통해 그가 사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 프로젝트의 'Left thigh(2010)'도 죽음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흉터와 주근깨가 가득한 남성의 왼쪽 허벅지에, 손만 노출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텍스트를 적어간다(그림 3). 심정지 소리로 마무리되는 결말을 통해 해당 텍스트가 기도문의 일부분이며, 허리 쪽에 감겨있는 샤넬 액세서리가 주술적 목적의 도구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Punk(2014)』 프로젝트의 'Blood rose(2014)' 또한, 시체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하얀 천을 덮고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된 본 영상은 천을 통해 스며드는 핏자국을 통해 그가 사망했음을 암시했다(그림 4).

한편, SHOWstudio는 2015년 아티스트 베스 엔와이씨(Bess NYC)와 함께 프로젝트 『Branded(2015)』를 기획했다. 베스 엔와이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로 디올, 지방시(Givenchy), 이브 생 로랑 등과 같이 브랜드의 친숙한 로고를 포르노나 끔찍한 이미지와 결합하는 이색적인 예술 활동을 한다("Branded", 2015).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Branded #1(2015)'과 'Branded #2(2015)' 두 편의 패션 필름을 선보였는데, 첫 번째 작품은 지방시의 광고 영상과 호러 영화의 잔혹한 장면들이 합성되어 나타났다. 사탄을 숭배하는 여성이 약물을 먹고 죽음에 이르는 장면, 수술 도구로 안구를 꺼내는 장면, 나무에 매달린 마녀 무리, 피투성이가 된 시체의 모습 등 각종 잔인한 장면들이 서사성 없이 지방시의 광고 영상과 함께 뒤섞여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그림 5, 6). 중세 초기의 신과 함께 영면하는 고귀한 죽음의 개념인 호모 토투스와는 대조적으로, 중세 후기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끔찍한 죽음에 대한 관념이 지배적이었는데(진중권, 2008), 해당 작품 속에서는 이러한 마카브르가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상도 이와 유사하게 디올의 다양한 광고 영상과 함께 끔찍한 이미지들이 결합된 작품이다. 화살에 맞아 사망한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목이 잘리며 피를 흘리는 사람, 화형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 등 잔혹한 이미지들이 디올의 우아한 광고 영상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그림 7, 8). 닉 나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베스 엔와이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계정이 정지된 경험을 밝히며, 인터넷상에서는 다수의 잔인하고 성적인 이미지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공적인 미디어에서는 자체적인 검열이 너무나 강한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Bess NYC”, 2015). 하지만 과거로부터 브랜딩이 잘된 로고 하나로 인해 일상품이 예술품으로 변환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는 잔혹한 이미지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브랜딩의 힘과 잔혹성으로 인한 검열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Carrie, 2015).

유사하게 아담 크소카 켈러(Adam Csoka Keller)에 의해 2017년 제작된 ‘Echtes leder(2017)’는 폐허가 된 건물 속에서 옷걸이에 걸린 시체의 모습과 구더기에 의해 시체가 파먹히는 장면을 통해 인류의 유지에 있어서 부패와 죽음의 필연성을 표현한 작품이다(그림 9, 10). 범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부패와 죽음이 필수적이라는 본 작품의 주제는(“Echtes leder”, 2017), 기독교의 유일신에 의해 구원되는 날까지 육신을 온전히 유지한 채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중세 초기의 이상적인 죽음관 과는 대조되는 중세 중기 이후의 현세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차용구, 2009).

한편, ‘The garden(2015)’은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의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Garden of earthly delights)(1504)』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프 바쉬(Jeff Vash)에 의해 제작된 패션 필름이다. 보쉬의 작품은 기괴한 동물들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타락과 욕망을 표현하여 세속적인 것은 허무하다는 교훈을 준다(“The garden”, 2015). 그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세속적인 것의 허망함은 중세에 유행했던 예술 장르인 죽음의 무도의 주제인 메멘토 모리의 표현이다(안미현, 2005). 해당 패션 필름도 해골, 십자가, 시체 등의 마카브르를 통해 메멘토 모리 즉, 늘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에 등장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도 결국 현세의 덧없음을 대표

하는 상징물로 활용되었다(그림 11, 12).

다음으로,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 끔찍하고 잔혹한 마카브르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golden fish fairytale(2017)'는 금붕어를 소재로 사용하여 죽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해당 패션 필름에서는 물 밖에서 입을 뻐끔거리며 죽어가는 금붕어의 모습과 비닐로 얼굴이 밀봉되어 입으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편집되었다(그림 13, 14). 이후 의자 위에서 속옷만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죽음이 에로틱하게 표현되었다(그림 15).

2019년도의 패션 필름 어워즈의 후보 작품인 'Respiration(2019)'은 일본의 디자이너 켄지 히라노(Kenji Hirano)에 의해 제작된 패션 필름으로 아코디언과 빨대를 통해 들숨과 날숨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그림 16, 17). 본 작품은 아코디언의 작동이 중단되고 빨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통해 숨이 끊어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로젠크란츠는 '역겨움'이라는 추의 특성을 통해 죽어있는 것과 공허함에 대한 예를 제시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역동성과 명랑함에 대비되어 정체되고 발전이 없기에 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안선경, 1994). 해당 작품에서도 호흡이 기능할 때의 밝고, 명랑한 사운드트랙과 풍성하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의복과는 대조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우울한 사운드트랙과 함께 부피가 확연히 줄어든 의복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SHOWstudio의 필름 메이커인 마리 쉴러(Marie Schuller)는 이스탄불 기반의 디자이너 브랜드인 다이스 카옉(Dice Kayek)과 협업을 통하여 독일 표현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Noir(2016)'를 제작했다. 결혼식을 올리는 한 커플의 장면으로 필름이 시작되었지만, 하객은 전부 해골의 모습으로 나타나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했다(그림 18). 남편을 살해하려는 아내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 결국 절벽에서 추락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아름다운 꽃이 흩날리는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

현하였다. 복식은 상황에 따라 다른 스타일로 표현되었는데 결혼식장에서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로, 자신의 계략을 실천할 때는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모피 소재의 코트로(그림 19), 죽음을 맞이할 때는 단순한 형태의 흰색 원피스로 표현되었다(그림 20).

(2) 애브젝트

한편, SHOWstudio에서는 역겹고 혐오스러운 애브젝트의 장면을 담고 있는 패션 필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분석학의 애브젝트가 극적으로 표현된 작품은 'Gareth Pugh S/S 18(2017)'이다. 해당 패션 필름은 찰흙 반죽, 페인트, 건초 더미 등으로 기이한 퍼포먼스를 행하는 행위 예술가인 올리비에르 드 사가장(Olivier de Sagazan)과 함께 진행되었다("Gareth Pugh S/S", 2017). 가레스 푸의 해당 시즌의 주제인 '두엔데(Duende)'라는 개념에서부터 애브젝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두엔데는 스페인의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Federico Garcia Lorca)에 의해 만들어진 미학적 개념으로, 예술에서의 영감과 유사한 용어이다(Charlotte, 2017). 하지만 보통의 예술가가 뮤즈(Muse)라는 천사에 의해 영감을 받는다면 두엔데는 이와 대비되는 악마적인 것이다. 뮤즈에 의한 영감이 천상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것이라면, 두엔데에 의한 영감은 몸의 가장 천한 부분 즉, 생식기관과 항문 등과 같은 부위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다(김은중, 1999). 로르카는 그의 에세이를 통하여 두엔데의 어두운 영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지만, 예술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김현창, 1988).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뮤즈가 아버지가 지배하는 상징계에서의 영감이라고 한다면, 두엔데는 모성적인 것, 어머니와의 원초적 합일에 대한 희구 즉, 애브젝트와 관련된 죽음 충동으로 볼 수 있다. 해당 패션 필름은 아버지와 아들로 연상되는 두 남성이 마주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며, 사회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정갈한 슈트 차림으로 표현되었다(그림 21). 곧

이어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절규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함을 암시한다. 정신분석학에서 상징계의 질서는 아버지의 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며, 그에 반하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은 모성적인 어머니의 자궁으로 비유된다(박성경, 2009). 이후 장면에서 여성의 생식기를 헤집고 자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퍼포먼스는, 고통스럽지만 원초적인 상태로 회귀할 것에 대한 흥분에 가득 찬 라캉의 주이상스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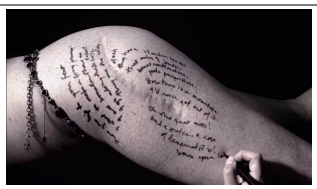
2020년도의 작품인 'Maenads(2020)' 또한, 모성적인 애브젝트를 표현하고 있는 패션 필름이다. 작품의 제목인 마이나데스는 주신 디오니소스(Dionysos)를 숭배하는 여성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광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짐승을 생식하는 '오모파기아(Omophagia)' 전통을 가지고 있다("Maenads", 2020). 인간의 인습에서 벗어난 삶 즉, 상징계의 질서에서 벗어난 근원적 세계를 갈망하는 그들은 모성적인 존재를 희구하는 자들로 볼 수 있다. 본 패션 필름에서는 비대한 몸으로 고전적인 여성미에 반하는 비천한 육체를 지닌 여성들의 광적인 제의를 묘사했다. 크리스테바는 애브젝트의 육체적 징후를 통해 젖가슴과 배, 배설물 등과 같이 어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혐오의 대상으로 애브젝션하고, 아이는 사회의 주체로 탄생한다고 보았다(Kristeva, 2001). 해당 작품 속에서도 모성적인 신체 부위인 가슴과 배, 그리고 엉덩이가 강조되었으며, 오물과 같은 실리콘 덩어리로 만들어진 비정형적이고 찢겨나간 형태의 옷으로 애브젝트를 가시화했다(그림 2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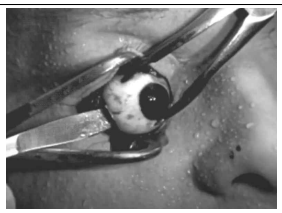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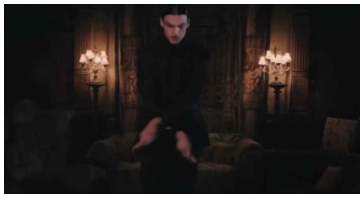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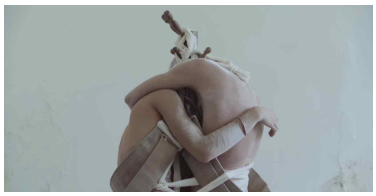
『Punk(2013)』의 'Kiss my ashes(2013)'와 'Ass to ashes(2013)'는 동일 주제의 연속된 작품이다. 마리엔 마릭(Marianne Maric)에 의해 제작된 본 패션 필름은 한 남성의 알 수 없는 괴상한 행동들을 담고 있다. 라캉에 따르면 상징계 속의 주체는 사회의 법과 질서로 형성된 수많은 금기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실재계의 간섭을 받고, 원초적 합일의 상태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다(홍준기, 1999). 작품 속의 남성은 밭을 가꾸고 사냥을 하는 등 상징계의 주체로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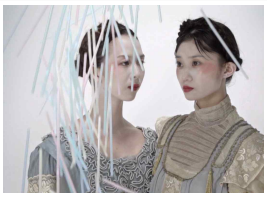
만, 페인트와 흙을 얼굴에 묻히고 여성 조각상과 키스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일삼는다(그림 25, 26). 영상 속에서 딱 한 번 등장하여 그를 위로하는 여성의 손과 여성의 젖꼭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형상화한 와인 마개 등을 통해 본 작품이 모성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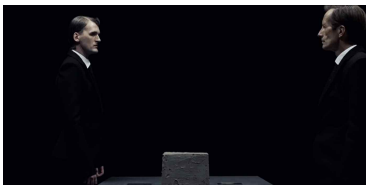
죽음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 사례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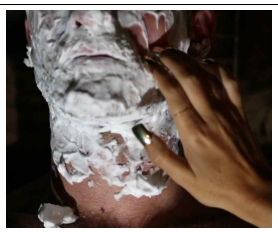
<표 3> 죽음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

세부 분류	작품명	이미지
마카브르	Neck (2010)	 <그림 2> Neck Adapted from SHOWstudio(2010) http://www.showstudio.com
마카브르	Left thigh (2010)	 <그림 3> Left thigh Adapted from SHOWstudio(2010) http://www.showstudio.com
마카브르	Blood rose (2014)	 <그림 4> Blood rose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마카브르	Branded #1 (2015)	 <그림 5> Branded #1 (1)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그림 6> Branded #1 (2)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마카브르	Branded #2 (2015)	 <그림 7> Branded #2 (1)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그림 8> Branded #2 (2)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마카브르	Echtes leder (2017)	 <그림 9> Echtes leder (1)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0> Echtes leder (2)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마카브르	The garden (2015)	 <그림 11> The garden (1)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2> The garden (2)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마카브르	The golden fish fairytale (2017)	 <그림 13> **The golden fish fairytale (1)**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4> **The golden fish fairytale (2)**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5> **The golden fish fairytale (3)**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마카브르	Respiration (2019)	 <그림 16> **Respiration (1)**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7> **Respiration (2)**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마카브르	Noir (2016)	 <그림 18> **Noir (1)**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9> **Noir (2)**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그림 20> **Noir (3)**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애브젝트	Gareth Pugh S/S 18 (2017)	 <그림 21> Gareth Pugh S/S 18 (1)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22> Gareth Pugh S/S 18 (2)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애브젝트	Maenads (2020)	 <그림 23> Maenads (1) Adapted from SHOWstudio(2020) http://www.showstudio.com	 <그림 24> Maenads (2) Adapted from SHOWstudio(2020) http://www.showstudio.com
애브젝트	Kiss my ashes (2013)	 <그림 25> Kiss my ashes (1)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그림 26> Kiss my ashes (2)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애브젝트	Ass to ashes (2013)	 <그림 27> Ass to ashes (1)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그림 28> Ass to ashes (2)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2. 성 금기의 위반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성 금기의 위반은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작품, 동성애 성향, 그리고 다양한 성적 페티시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나타났다. 닉 나이트는 앞서 프로젝트 『Branded(2015)』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주요 미디어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여성의 성적 부위에 대해 지나친 검열로 인해 많은 아티스트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Bess NYC”, 2015). 이러한 그의 입장에 부합하듯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는 여성의 가슴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생식기가 직접 노출되기도 하며, 포르노그래피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성애적 행위가 제한 없이 표현되었다.

(1) 신체 부위

프로젝트 『The fashion body(2010)』 중 ‘Chest(2010)’는 여성의 가슴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된 작품이다. ‘Chest’는 도로, 수영장, 호텔 등의 공간에서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여성을 보여주며, 다양한 형태의 에로틱한 속옷과 여성의 행동으로 흡사 포르노그래피를 연상시킨다. 로젠크란

츠는 그의 저서 『추의 미학』에서 추의 감각적 측면인 '구역질 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아무런 목적 없는 노골적인 포르노그래피를 제시했다(윤예진, 2013). 영상 속에 등장하는 바람에 의해 벗겨지는 검은색 드레스, 젖꼭지 부분만 하트로 가려진 속옷, 가슴 전면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등은 옷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며, 영상의 에로틱한 분위기에 일조할 뿐이었다(그림 29, 30, 31). 유사하게, 『Soap opera(2014)』의 'Breathless(2014)' 또한, 포르노그래피를 연상시켰다. 작품에는 총을 겨누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여, 작품 전반에 흐르는 신음의 원인을 모호하게 표현했다(그림 32, 33).

'Genitals(male)(2010)'에서는 옷을 입지 않은 나체의 남성이 등장했다. 바르트 헤스(Bart Hess)에 의해 연출된 해당 작품에서 남성은 헤드기어만을 착용한 채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제자리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작품의 제목이 생식기(genitals)인 만큼 카메라의 구도에 따라 그의 성기가 반복하여 노출되었다(그림 34). 또한, 줄리아 코미타(Julia Comita)의 작품인 'Sexting(2017)'은 성적 이미지를 SNS에 업로드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속이 비치는 속옷으로 인해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가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스타킹 속의 여장 남성의 성기가 클로즈업되어 보여졌다(그림 35, 36, 37).

한편, 성적 부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Genitals(male)'의 여성 버전인 'Genitals(female)(2010)'은 실제 성기를 노출하지는 않지만, 꽃과 연이어진 클립 다발로 여성의 성기와 음모를 은유적으로 드러냈으며, 바다와 폭포의 이미지,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는 관의 다발을 통해 여성의 성적 흥분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38, 39). 또한, 프로젝트 『Punk(2013)』의 작품 'Jam(2013)'은 흰색의 슬립과 망사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이 붉은색의 과일을 그녀의 생식기에 문지르며 으깨버리는 영상을 통해 여성이 순결을 잃는 순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40). 여기서 흰색의 슬립은 붉은색의 과일과 극명한 색채 대비를 이루어 필름의 조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8년도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s(2018)'는 성의 은유성이 가장 돋보인 작품이다. 영상의 첫 장면에서 모델 라켈 짐머만(Raquel Zimmerman)은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아있으며 그 뒤로는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작품 세 점이 나란히 걸려있다(그림 41, 42). 이후 장면에서도 모델은 다리를 벌린 채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녀의 다리 사이의 알 수 없는 원형의 물체로 생식기가 강조되어 나타났다(그림 43). 베이컨의 작품을 미학적으로 분석한 질 들뢰즈(Gilles Deleuze)에 의하면 베이컨의 작품은 형상(figure), 윤곽(contour), 그리고 아플라(aplar)로 구성된다(Deleuze, 2008). 아플라는 모든 가능성을 내재한 잠재태로 존재하며, 이는 윤곽을 통해 하나의 현실태인 형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들뢰즈는 윤곽의 기능에 집중하는데, 윤곽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그란 구멍'으로 나타나 잠재태를 현실태로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윤대선, 2010). 따라서 본 작품에서 베이컨의 그림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의 자궁(아플라)과 생명이라는 현실태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서 여성의 생식기(윤곽)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동성애 성향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는 동성애를 다룬 작품이 나타났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동성애는 생식 활동이 불가한 성의 형태로, 성적 대상의 측면에서 하나의 성도착증으로 분류된다(윤대웅, 2016). 작품 'Studs(2012)'의 제목인 스터드(studs)는 부치(butch)와 톰보이(tomboy)처럼 레즈비언 성 경향 중 남성의 역할을 하는 여성 중 한 종류이다. 닉 나이트는 젠더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터드들을 섭외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스타일리스트 시몬 폭스톤(Simon Foxton)은 13 S/S 시즌의 남성복으로 그들을 스타일링 하였다("Studs", 2012). 영상에서 그녀들은 짧게 깎은 머리에 남성용 운동복을 착용하고 근육질의 몸매를 과시하며 타투와 각종 피어싱, 실버 액세서리 등을 통해 남성성이 강조된 모습을 보

였다(그림 44, 45). 또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은 속옷 차림의 남성들이 서로의 옷을 벗기며 뒤엉켜 있는 장면을 묘사한 'IX(2013)'와 두 명의 흑인 남성의 성행위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Solanum(2017)'을 통해 이성애적 젠더 규범에 반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그림 46, 47).

(3) 성적 페티시

한편, 작품 'Buttocks(2010)', 'Love me(2012)', 'Soft furnishings(2017)'에서는 대표적인 성도착증 중 하나인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이 나타났다. 사도마조히즘은 가학성을 뜻하는 사디즘(sadism)과 피학성을 뜻하는 마조히즘(masochism)의 합성어로 프로이트는 모든 생리적 기능에는 사디즘이 숨어있으며, 마조히즘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사디즘이라 주장했다(Freud, 2003). 우선, 'Buttocks'에서는 가슴이 노출된 형태의 슬립을 입은 부치가 팜므(femme)의 슬립을 걷어 올려 채찍으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그림 48). 또한 'Love me'에서는 스모키한 메이크업에 검은색의 가죽 소재의 옷을 착용한 부치의 모습과 부드러운 소재의 흰색 슬립만을 입고 있는 팜므의 복식 대비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냈다(그림 49). 'Soft furnishings'에서도 유사하게 어두운 색상의 광택 있는 소재의 옷을 입은 부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팜므는 부드러운 소재의 흰색 속옷 혹은 나체 상태에 목에 족쇄를 착용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성적 관계에서 이들의 지위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그림 50, 51).

신체를 결박하고 구속하는 유형의 페티시인 본디지(bondage)를 다룬 작품도 찾아볼 수 있었다. SHOWstudio는 2015년과 2019년 모델이자 아티스트인 테사 구라기(Tessa Kuragi)와 함께 'Reverie(2015)', 'Tessa(2019)'를 선보였다. 닉 나이트와의 인터뷰에서 테사는 그녀의 작품들이 모두 자신의 성을 탐구하는 한 방법이자 '성적 숙달'을 목표로 행해진다고 밝혔다("Tessa", 2019). 'Reverie'는 관음증을 연상시키는 형식

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 한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지네와 뱀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었다(그림 52). 이후 테사는 밧줄과 뱀에 의해 묶인 모습과 드레스의 소매 부분이 살에 직접 꿰매어져 피가 흐르는 모습으로 영상에서 표현되었다(그림 53, 54). 발렌티노(Valentino), 마르지엘라, 맥퀸 등의 의상들이 영상에 사용되었지만, 복식의 아름다운 형태보다는 그녀의 성적 페티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작품 'Tessa'도 테사의 가학적 성향과 본디지 성향을 표현한 작품이다. 본디지 아티스트인 댄 헤버드(Dan Hebberd)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테사는 극한의 자세로 각종 기구에 의해 새장에 묶여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그림 55). 중세 시기부터 특히나 여성의 육체적 욕망은 악마, 마녀와 결합하여 죄악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어 여성의 성욕은 남성에 의해서만 결정되었으며,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금기로까지 설정되었다(김현숙, 2017). 이러한 금기에 반발하듯 본 작품은 여성이 자신의 성적 페티시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통해 남성 중심의 성문화에 대한 반발을 주제로 하고 있다(Carrie, 2019). 테사는 그녀의 성적 페티시를 구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성의 슈트를 입고 있으며, 넥타이까지 착용하여 남성의 권위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56). 또한, 영상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인공 페니스의 모형은 해당 패션 필름의 주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다(그림 57).

한편,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는 신체 일부나 특정한 패션 아이템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페시티가 드러나기도 했다. 'Is my mind for me(2012)'는 머리카락에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영상 속에서 모델 사드 하디(Sardé Hardie)는 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후 삭발을 한다(그림 58). 해당 패션 필름은 표면적으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에서 성감을 느끼는 성도착증의 한 형태인 '트리코필라(trichophila)'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은 긴 머리를 가져야 한다는 젠더 인식을 타파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Emer, 2012).

특정 패션 아이템에 대한 페티시를 표현한 작품 중 'Dollywood(2012)'와 'Pluck(2017)'은 스타킹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었다. 'Dollywood'는 원초적인 성적 페티시와 어린아이의 놀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Roberta, 2012). 전신에 스타킹을 쓴 채 스타킹 위에 칠해진 하늘색 눈과 붉은색 입, 생식기 부근에서 돌출된 솜 뭉치, 그리고 몸 전체에 퍼져있는 혹 덩어리 등으로 인해 괴상한 형태의 인물들이 제시되었다(그림 59, 60). 랍 러슬링(Rob Rusling)에 의해 제작된 'Pluck' 또한, 스타킹에 대한 페티시를 담고 있다. 살 색 스타킹, 검은색 스타킹, 망사 스타킹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스타킹이 등장하며, 모델은 스타킹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상에서 스타킹은 스타킹 자체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초커, 헤어밴드, 브래지어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그림 61, 62).

높은 힐의 구두에 대한 집착을 다룬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특정한 대상에 매겨진 성적 가치가 생식기 이상으로 과대평가될 때, 대상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성도착증이 발현된다(김윤옥, 1998). 특히 여성의 구두는 여성의 성기에 대한 무의식적 욕망의 메타포로, 남성들에 의해 비교적 흔한 페티시로 나타났다(Freud, 2003). 'Killer heels(2014)'는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착용할 때 고통이 따르는 유리 구두에 대한 페티시를 표현하였다(그림 63). 관음증적인 시선의 형식으로 촬영되었으며, 영상 전반의 신음으로 인해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편, 'L'envol(2008)'은 여성에게 구두를 직접 신겨주고, 구두에 의해 몸이 짓밟히는 과정을 통해 성적 만족을 느끼는 남성을 보여주었다(그림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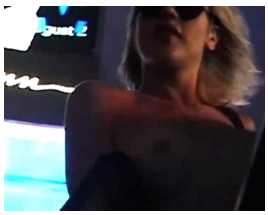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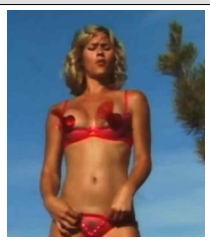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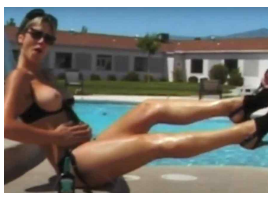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넘어 병적으로 발현된 이상 성애를 다루기도 했다. 'Girl(2014)'은 소아 성애에 대한 롤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를 주제로 한 패션 필름이다. 해당 작품에서 소녀는 정글짐, 목마, 시소 등을 타면서 놀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였지만, 관능적인 모습으로 에로틱한 행위를 일삼는다(Sarah, 2014). 번져버린 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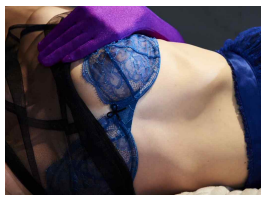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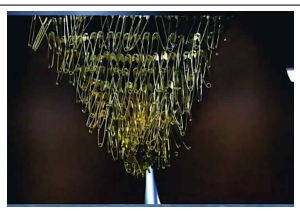
고 어색한 메이크업, 줄무늬 스타킹과 분홍색 스타킹, 시폰(chiffon) 소재의 원피스, 흰 장갑과 티아라 등의 복식 요소는 작품의 주제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그림 65,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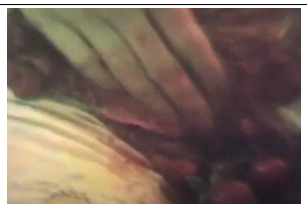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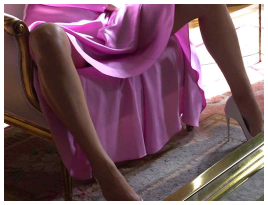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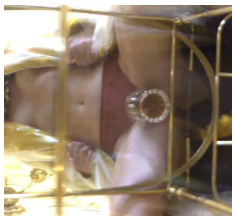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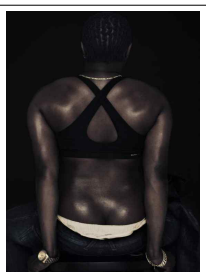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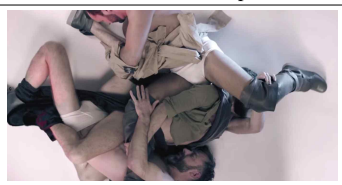
2013년도의 작품 'Persona(2013)'는 자기 자신에게서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인 '어토필리아(autophilia)'를 다루고 있는 영상이다. 작품 속의 모델은 몸에 밀착되는 라텍스 소재의 복식과 투명한 비닐로 된 소재의 옷을 착용하고 거울과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교감하는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었다(그림 67). 또한, 'Love is a state of mind(2012)'는 사람이 아닌 일상적인 사물에서 성감을 느끼는 비이성적인 성적 취향을 다루었다. 영상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은 그네, 자전거, 타이어, 신호등, 다리미 등에서 성적 쾌감을 얻는 기이한 성적 취향을 보여준다(그림 68, 69, 70). 해당 작품의 감독인 에리카 에이펠(Erika Eiffel)은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단순히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넘어, 객관적인 성 관념에 대한 도전으로 비인격체도 성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혀, 사람과 사물이 진실되고 악의 없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Erika, 2012).

성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 사례는 <표 4>와 같다.

<표 4> 성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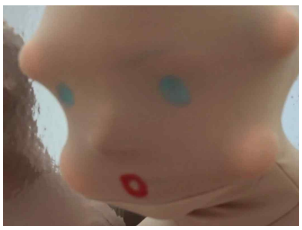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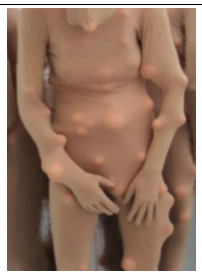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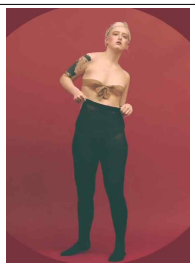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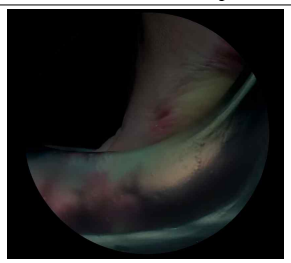
세부 분류	작품명	이미지		
신체 부위	Chest (2010)	 <그림 29> Chest (1) Adapted from SHOWstudio(2010) http://www.showstudio.com	 <그림 30> Chest (2) Adapted from SHOWstudio(2010) http://www.showstudio.com	 <그림 31> Chest (3) Adapted from SHOWstudio(2010) http://www.showstudi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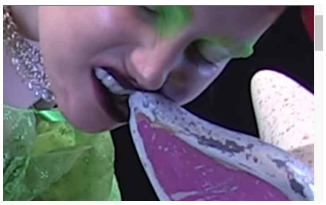
신체 부위	Breathless (2014)	 <그림 32> Breathless (1)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33> Breathless (2)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신체 부위	Genitals (male) (2010)	 <그림 34> Genitals(male) Adapted from SHOWstudio(2010) http://www.showstudio.com	
신체 부위	Sexting (2017)	 <그림 35> Sexting (1)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36> Sexting (2)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37> Sexting (3)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신체 부위	Genitals (female) (2010)	 <그림 38> Genitals(female) (1) Adapted from SHOWstudio(2010) http://www.showstudio.com	 <그림 39> Genitals(female) (2) Adapted from SHOWstudio(2010) http://www.showstudio.com

신체 부위	Jam (2013)	 <그림 40> Jam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신체 부위	Put your head on my shoulders (2018)	 <그림 41> Put your head on my shoulders (1)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42> Put your head on my shoulders (2)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43> Put your head on my shoulders (3)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동성애 성향	Studs (2012)	 <그림 44> Studs (1)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그림 45> Studs (2)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동성애 성향	IX (2013)	 <그림 46> IX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동성애 성향	Solanum (2017)	 <그림 47> Solanum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Buttocks (2010)	 <그림 48> Buttocks Adapted from SHOWstudio(2010)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Love me (2012)	 <그림 49> Love me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Soft furnishings 2017 (2017)	 <그림 50> Soft furnishings 2017 (1)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51> Soft furnishings 2017 (2)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Reverie (2015)	 <그림 52> Reverie (1)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그림 53> Reverie (2)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그림 54> Reverie (3)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Tessa (2019)	 <그림 55> Tessa (1)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그림 56> Tessa (2)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그림 57> Tessa (3)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Is my mind for me (2012)	 <그림 58> Is my mind for me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Dollywood (2012)	 <그림 59> Dollywood (1)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그림 60> Dollywood (2)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Pluck (2017)	 <그림 61> Pluck (1)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62> Pluck (2)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Killer heels (2014)	 <그림 63> Killer heels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L'envol (2008)	 <그림 64> L'envol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Girl (2014)	 <그림 65> Girl (1)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66> Girl (2)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Persona (2013)	 <그림 67> Persona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성적 페티시	Love is a state of mind (2012)	 <그림 68> Love is a state of mind (1)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그림 69> Love is a state of mind (2)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그림 70> Love is a state of mind (3)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제 2 절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추의 두 번째 관점인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는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맥락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자연적 현상이나 존재로부터 기인한 공포의 감정을 다룬 작품은 20편이 나타났으며, 불쾌한 골짜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은 7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비이성적인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생경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은 11편으로 나타났다.

1. 초자연적 현상과 존재로부터의 공포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는 악마 숭배, 구마 의식과 같은 오컬티즘(occultism)이나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존재와 현상을 주제로 한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오컬티즘

2015년도의 프로젝트 『Aquelarre(2015)』는 관람자들에게 공포심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고자 닉 나이트에 의해 기획되었다. 공포를 유발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 시기에 이교도적이고 악마적인 것으로 배척되었지만, 18세기 실러와 슐레겔에 의해 공포는 종교적, 도덕적 관점으로부터 탈피하여 예술에서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다(김은정, 2003). 특히, 버크는 공포가 불쾌감을 유발할지라도 강한 파토스를 불러일으켜 생기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숭고에 포함된 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조경식, 2008). 닉 나이트는 일반적인 패션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대항하는 두렵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 총 14편의 영상물을 담고 있는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Aquelarre”, 2015). 14편의 작품 모두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청각적 요소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까마귀 소리, 파리가 들끓는 소리, 악마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 등과 같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사운드트랙으로 사용하여 시각적 요소와 함께 두려운 감정을 가중시켰다. 또한, 닉 나이트는 해당 작품들을 일련의 사진으로 촬영하여 영상으로 편집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제작 과정은 매끄럽지 않고 끊어지는 이미지가 수차례 반복되어 공포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대부분

의 영상이 마녀들의 사탄 의식을 담고 있었으며, 나무 위에서 종교적 제의를 수행하는 마녀들, 제물로 바쳐지는 젊은 여성,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가는 여성 등의 모습을 표현하였다(그림 71, 72). 이러한 주제의 표현에 걸맞게 모델들은 15 S/S 시즌의 가레스 푸, 꼼 데 가르송, 빅터 앤 롤프, 언더커버(Undercover) 등과 같이 전위적인 디자인을 전개하는 브랜드의 옷을 착용하였으며, 특히나 기괴한 메이크업과 함께 그로테스크한 헤드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점이 특징적이었다(그림 73).

이러한 오컬티즘을 다룬 또 다른 작품으로 'Bedroom(2015)'이 있다. 해당 작품은 악령이 깃들어 있는 한 소녀의 침실 풍경을 보여준다. 정상적인 소녀의 침실과는 달리 각종 퇴마 의식에 쓰이는 용품들과 십자가, 초가 켜진 캔들로 가득하며 소녀가 자는 동안 각종 초자연적 현상들이 방에서 벌어진다(그림 74, 75). 해당 작품의 소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령에게 잠식되어 기이한 행동을 지속했으며, 그녀를 괴롭히던 악령과의 만남으로 작품은 끝난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구찌(Gucci), 지방시, 맥퀸 등의 화려한 원피스를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그림 76).

(2) 초자연적 존재

한편, 브랜드의 시즌 콘셉트를 담은 컬렉션 패션 필름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로젠크란츠는 추의 범주 중 하나로 '유령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죽은 자가 다시 생환한 존재의 형태인 유령과 같은 비현실적인 존재로부터 추한 감정으로서 공포가 유발된다(김산춘, 2008). 닉 나이트는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Savage Beauty』 전시의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알렉산더 맥퀸의 악명높은 2004년 컬렉션인 '블랙(Black)'에 대한 헌정 영상으로 2015년 버전의 'Black(2015)'을 다시 제작하였다. 해당 컬렉션의 룩을 착용하고 있는 모델들은 검고 창백한 피부로 유령을 연상시켰으며(그림 77), 모델

들의 형체는 사운드트랙과 함께 왜곡되고 파편화되었다.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모습 또한 이목구비가 사라진 채 얼굴의 중간 부분이 검게 칠해져 죽은 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그림 78). 유사한 맥락에서 'Gareth Pugh A/W 17(2017)' 또한 유령의 모습과 기이한 현상을 다루고 있다. 해당 작품은 폐허가 된 건물에서 기괴한 춤을 추는 남성의 모습과 함께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건물의 각 장소에서 등장하는 모델을 통해, 집단적인 두려움과 환상을 표현하였다(그림 79, 80). 한편, 크리스찬 디올의 20 A/W의 컬렉션 패션 필름에서는 잡종 형상의 괴물들이 등장했다. 고대의 신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미노타우로스나 키마이라 등의 괴물과 중세 문학에서 표현된 각종 혼종적 형태의 괴물들은 당시 지배적인 미적 기준인 적절성에 반하는,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추한 존재로 여겨졌다(Eco, 2005). 해당 영상에서는 초현실적 분위기의 숲속에 인어, 달팽이와 결합된 인간, 나무와 합쳐진 인간 등과 같이 초자연적인 혼종적 존재를 표현하여 신비롭고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그림 81, 82).

초자연적 현상과 존재로부터의 공포를 다룬 패션 필름의 사례는 <표 5>와 같다.

<표 5> 초자연적 현상과 존재로부터의 공포를 다룬 작품

세부 분류	작품명	이미지		
오컬티즘	Aquelarre #1 ~ #14 (2015)	 <그림 71> Aquelarre #2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그림 72> Aquelarre #5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그림 73> Aquelarre #10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오컬티즘	Bedroom (2015)	 <그림 74> Bedroom (1)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그림 75> Bedroom (2)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그림 76> Bedroom (3)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초자연적 존재	Black (2015)	 <그림 77> Black (1)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그림 78> Black (2) Adapted from SHOWstudio(2015) http://www.showstudio.com	
초자연적 존재	Gareth Pugh A/W 17 (2017)	 <그림 79> Gareth Pugh A/W 17 (1)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80> Gareth Pugh A/W 17 (2)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초자연적 존재	Christian Dior A/W 20 Haute Couture (2020)	 <그림 81> Christian Dior A/W 20 Haute Couture (1) Adapted from SHOWstudio(2020) http://www.showstudio.com	 <그림 82> Christian Dior A/W 20 Haute Couture (2) Adapted from SHOWstudio(2020) http://www.showstudio.com

2. 불쾌한 골짜기 효과로 인한 긴장감

언캐니라는 개념을 처음 확립한 옌치는 어떤 존재가 마치 살아있는 것만 같아서 영혼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로 언캐니를 정의했다. 옌치의 언캐니는 프로이트에게서 친숙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낯선 감정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는데, 즉 인간과 아주 유사하여 친숙하지만, 인격이 박탈당한 듯 보이는 대상에게서 존재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인해 불쾌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유현주, 2010). 불쾌한 골짜기 효과(uncanny valley)는 이처럼 특정 대상이나 생명에 대한 존재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김지현 & 조재경, 2018).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불쾌한 골짜기 효과를 유발한 작품은 신체의 변형으로 인간성이 결여된 존재나, 미래 인류의 형태인 포스트 휴먼 등을 통해 현존재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1) 신체의 변형

2009년 S/S 시즌 마틴 마르지엘라의 위그(wig) 코트를 표현한 작품인 'Make up your mind(2008)'는 실험적인 디자인과 함께 파격적인 연출을 선보였다. 스타킹에 하이힐만 신은 채로 위그 코트를 입고 얼굴에는 누

드톤의 마스크를 착용한 모델과 나체에 얼굴에만 동일 마스크를 착용한 모델이 등장하여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장면이 묘사되었다(그림 83). 여성의 몸을 통해 관람자들은 그들이 인간임을 알지만, 두 모델 모두 인격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얼굴이 가려져 있다. 또한, 위그 코트를 착용한 모델은 세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기이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모델이 실제 머리가 아닌 나머지 2개의 가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로 인해, 관람객은 그가 인간임을 확신할 수 없게 되며 묘한 긴장과 함께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극단적인 신체 변형을 통해 언캐니 밸리를 다루고 있는 작품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티스트 루시 앤 바르트(Lucy and Bart)는 핀과 풍선, 거품, 종이 등의 사물로 인해 변형된 인체를 표현한 'Extraordinary gentlemen(2011)'을 기획했다(그림 84, 85). 분명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기포가 온몸에 퍼진 신체를 가지고 거품과 함께 녹아내리며 푸른색의 피를 토해내는 존재에게서 인간의 의미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또한, 영화감독인 존 야콥슨(Jon Jacobsen)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소설인 『변신(1916)』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패션 필름 'Die verwandlung(2017)'을 선보였다. 카프카의 소설에서 주인공이 흉측한 다지류 갑충으로 변화한 것과 같이 야콥슨의 작품에서 인간의 신체는 플라스틱, 반죽 덩어리, 부풀려진 콘돔 등을 포함한 재료들로 기괴하게 변형되어 불확실한 존재로 표현되었다(그림 86).

(2) 포스트 휴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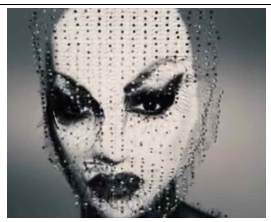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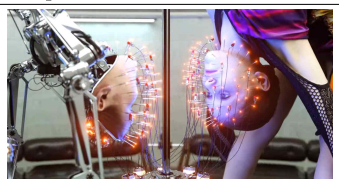
한편, 기계와 결합하거나 디지털화된 포스트 휴먼의 이미지를 통해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My life in nail bars(2019)'는 디지털 차원에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경계를 탐구한 작품이다("My life", 2019). 각종 디지털 이미지로 구성되고 왜곡 변형되는 여성의 모습과 기계음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미래의 인류는 더

이상 육체에 한정되지 않음을 표현했다(그림 87, 88). 이처럼 본 작품은 물질성이 결여된 채 고정된 하나의 육체를 가지지 않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인간 아닌 인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유발했다. 미래 인류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또 하나의 패션 필름은 2020년도 작품인 'Ceremonial formality(2020)'가 있다. 프레데릭 헤이만(Frederik Heyman)에 의해 기획된 해당 작품은 각종 디지털 하드웨어로 둘러싸이고 증기 제트와 호흡 장치를 통해 숨을 쉬는 모습을 담고 있다(그림 89, 90). 탈신체화된 포스트 휴먼 또한, 신체의 일부는 인간이지만 다른 부분은 언제든 교체가 가능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생명체와 시체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언캐니 밸리를 유발한다(이상윤, 2021). 헤이만은 기술은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인간의 사유와 생활 방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제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도 물음을 던진다고 밝혔다(Bella, 2020). 해당 작품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미래에 인간을 넘어선 포스트 휴먼에서의 육체의 의미와 육체와 정신 중 인간성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불쾌한 골짜기 효과로 인한 긴장감을 다룬 패션 필름의 사례는 <표 6>과 같다.

<표 6> 불쾌한 골짜기 효과로 인한 긴장감을 다룬 작품

세부 분류	작품명	이미지
신체의 변형	Make up your mind (2008)	 <그림 83> Make up your mind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신체의 변형	Extraordinary gentlemen (2011)	 <그림 84> Extraordinary gentlemen (1) Adapted from SHOWstudio(2011) http://www.showstudio.com	 <그림 85> Extraordinary gentlemen (2) Adapted from SHOWstudio(2011) http://www.showstudio.com
신체의 변형	Die verwandlung (2017)	 <그림 86> Die verwandlung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포스트 휴먼	My life in nail bars (2019)	 <그림 87> My life in nail bars (1)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그림 88> My life in nail bars (2)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포스트 휴먼	Ceremonial formality (2020)	 <그림 89> Ceremonial formality (1) Adapted from SHOWstudio(2020) http://www.showstudio.com	 <그림 90> Ceremonial formality (2) Adapted from SHOWstudio(2020) http://www.showstudio.com

3. 비이성적 상황에서 기인한 생경함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해당 특성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초현실적 상황을 상정한 작품과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의 기법과 같이 일상적 맥락에서 벗어난 상황을 설정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데페이즈망은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를 형성하는 미술의 기법이다(“데페이즈망”, n.d.). 이처럼, 낯익은 물체라 할지라도 그것이 놓여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어 내져 뜻하지 않은 의외의 장소에 놓이게 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된다(김지열, 1993).

(1) 초현실적 상황

‘Je te veux(2016)’, ‘Lepus cornutus(2017)’, 그리고 ‘Waltz of fragments(2021)’는 초현실적 상황 설정으로 인해 언캐니한 감정을 유발한 작품이다. 프로이트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무의식적 욕망이 반영된 상황을 언캐니의 사례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꿈과 같은 초현실적 상황의 상정은 20세기 초중반의 예술 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강방석, 2005). ‘Je te veux’는 켄지 히라노에 의해 기획된 작품으로, 한 여성은 방의 구석에 위치한 우체통을 통해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는 익명의 남성들에게 전달된다(그림 91). 이어 남성들에 의해 답장과 함께 각종 장신구가 우체통을 통해 되돌아온다. 해당 작품은 수많은 남성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저녁 식사로 먹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으로 여성의 탐욕을 표현하였다(그림 92). 동일 영화 제작자에 의해 다음 해 기획된 ‘Lepus cornutus’ 또한 초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여성은 탁자 위의 한 책을 발견하게 되고, 해당 책에 그려진 중세 유럽의 상상의 동물인 ‘뿔을 지닌 토끼(Lepus cornutus)’ 사진을 보게 된다(그림 93). 연이어진 공간 속에서 다음 방문을 열고 들어간 여성은 뿔이 달린 토끼를 실제로 만나게 된다(그림 94). 본 작품은 남성성과 여

성성을 모두 표현하는 일본 브랜드인 헬마프 앤 로디투스(Helmaph & Roditus)를 위한 패션 필름으로, 켄지 히라노는 이러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에서 남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뿔과 여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토끼를 결합한 '뿔을 지닌 토끼'를 영상에 등장시켰다고 밝혔다("Lepus cornutus", 2017).

또한, 구연지에 의해 제작된 'Waltz of fragments'는 모든 논리 법칙이 중단되는 꿈을 주제로 한 패션 필름이다. 프로이트는 그의 저작 『꿈의 해석(Die Traumdeutung)(1900)』을 통해 서양의 모든 문화적 업적이 이성적인 사고 작용과 인식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단지 무의식적으로 억눌린 충동의 해소를 바라는 억눌린 욕구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김정현, 2008). 해당 작품에서 두 명의 남녀는 방에서 공간과 함께 신체가 극도로 왜곡되어,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되는 세계가 아닌 무의식적 욕망의 세계를 단적으로 드러냈다(그림 95). 쇼팽의 왈츠 9번 사운드트랙과 함께 기계화된 음성으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일부가 낭독되어 해당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였다.

(2) 탈맥락적 상황

한편, SHOWstudio에서는 사물을 탈맥락화 하여 생경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형성된 초현실주의 예술 사조에서 주로 사용한 기법인 데페이즈망은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합리적인 의식을 초월한 세계가 전개되어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한다(여은희, 2014). 기 부르댕에 대한 헌정 프로젝트의 작품 'Mackerel girl(2003)'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관계를 암시한 작품이지만, 여성의 손에 상황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고등어가 쥐어짐으로써 생경한 감정을 유발했다(그림 96). 또한,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실험적인 패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인 『Moving fashion(2005)』 중 스티븐 클라인

(Steven Klein)의 작품 또한, 모델들의 기괴한 행동을 통해 괴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전거와 탁자가 놓인 공간에서 모델은 텔레비전 위의 마네킹 머리를 계속해서 쓰다듬고 있으며, 또 다른 모델은 남성의 머리를 자신의 치마로 감싼 채, 그의 손을 잡고 자전거의 페달을 밟듯이 발을 움직이는 장면이 해당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그림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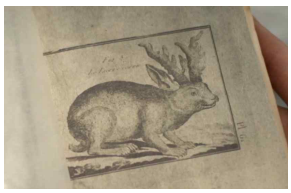
또한, 『Political fashion(2008)』의 'Gasmasks(2008)'는 전쟁의 비참함을 표현한 작품이다. 가스 마스크를 착용한 모델들이 해변에 줄지어있는 장면으로 영상은 시작되었으며(그림 98), 말을 이용해 발전기를 가동하는 장면, 유리 온실 속의 식물을 가꾸는 장면, 들판 위에서 태닝을 하는 듯한 장면 등이 반복하여 등장했다(그림 99, 100). 본 작품은 관련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화면의 전환과 상황 설정으로 인해 유발된 낯선 감정을 통해 전쟁의 비참함을 고발하고자 했다("Gasmasks", 2008). 동일 프로젝트의 'The laboratory of capitalism(2008)' 또한 유사한 형식의 작품이다. 용도를 알 수 없는 버려진 가게에 놓여있는 형형색색의 천막과 비닐, 그리고 마네킹 더미가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무의미하게 반복되었다(그림 101, 102).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통해 본 영상의 감독인 제이슨 에반스(Jason Evans)는 소비 지상주의와 관음증, 그리고 성 상품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자 했다("The laboratory",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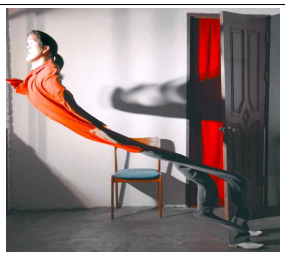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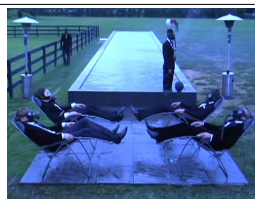
니나모우나(Ninamounah)의 데뷔 컬렉션이자 사진작가 스타드맨 라라(Standman. Lala)에 의해 제작된 'Ninamounah x Stadman. Lala(2018)'는 직장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을 탈맥락화하여 표현하였다. 업무 전화를 받거나 커피를 따르는 행위, 손과 얼굴을 씻는 행위 등은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조수의 목에 전화선을 감은 채 통화를 하는 모습, 컵이 아닌 바닥에 커피를 붓는 모습, 변기 물로 세수를 하는 모습 등과 같이 모델들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해당 작품은 현실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그림 103, 104, 105). 유사하게 수술 도구인 메스와 겸자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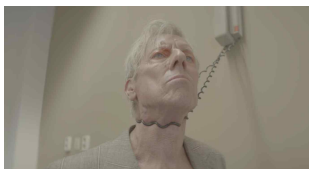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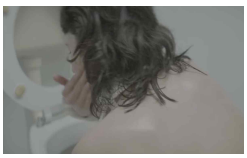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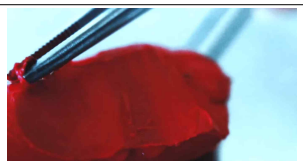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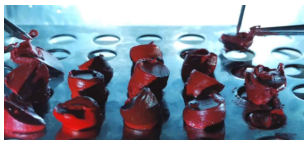
것은 수술실에서 흔히 목격되는 장면이지만, 제거 대상이 세포가 아닌 립스틱으로 전치되면 'Before and after(2019)'와 같이 기묘한 분위기를 전달하게 된다. 해당 작품의 감독인 폴리나 자이테바(Polina Zaitseva)는 립스틱이 극단적인 클로즈업과 함께 수술 도구에 의해 절단되는 립스틱의 모습을 표현하여, 2019년도의 패션 필름 어워즈를 수상하였다(그림 106, 107).

비이성적 상황에서 기인한 생경함을 다룬 패션 필름 사례는 <표 7>과 같다.

<표 7> 비이성적 상황에서 기인한 생경함을 다룬 작품

세부 분류	작품명	이미지	
초현실적 상황	Je te veux (2016)	 <그림 91> Je te veux (1)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그림 92> Je te veux (2)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초현실적 상황	Lepus cornutus (2017)	 <그림 93> Lepus cornutus (1)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94> Lepus cornutus (2)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초현실적 상황	Waltz of fragments (2021)	 <그림 95> Waltz of fragments Adapted from SHOWstudio(2021) http://www.showstudio.com		
탈맥락적 상황	Mackerel girl (2003)	 <그림 96> Mackerel girl Adapted from SHOWstudio(2003) http://www.showstudio.com		
탈맥락적 상황	Steven Klein (2005)	 <그림 97> Steven Klein Adapted from SHOWstudio(2005) http://www.showstudio.com		
탈맥락적 상황	Gasmasks (2008)	 <그림 98> Gasmask (1)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99> Gasmasks (2)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00> Gasmasks (3)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탈맥락적 상황	The laboratory of capitalism (2008)	 <그림 101> The laboratory of capitalism (1)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02> The laboratory of capitalism (2)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탈맥락적 상황	Ninamounah x Stadman. Lara (2018)	 <그림 103> Ninamounah x Stadman. Lala (1)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04> Ninamounah x Stadman. Lala (2)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05> Ninamounah x Stadman. Lala (3)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탈맥락적 상황	Before and after (2019)	 <그림 106> Before and after (1)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07> Before and after (2)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제 3 절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세 번째 추의 특성인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는 고전적 미의 엄숙함에 대한 반발작용에서 의도적인 조야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사례로 선정한 SHOWstudio의 패션 필름 145편 중 25편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연구 결과 권위의 격하 및 풍자, 그리고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를 표현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1. 권위의 격하 및 풍자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권위의 격하 및 풍자는 조야한 감성으로 패션계의 기존 권위에 도전한 작품들과 저급하고 희극적인 이미지를 통해 비판적 의미를 지닌 작품들로 나타났다. 20세기 고전주의적 입장의 여러 학자는 소위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고급 예술을 대체하는 저급한 미적 취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취했다(박세미, 2017). 하지만, 그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저급한 취향의 예술 장르는 예술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다양한 형식의 실험으로 생기를 잃은 진지한 예술에 활기를 부여해 왔다(진정식, 2001).

(1) 조야한 감성

SHOWstudio의 컬렉션 패션 필름 중 톰 브라운(Thom Browne)의 21 A/W, 시네이드 오드와이어(Sinéad O'dwyer)의 20 S/S, 그리고 매티 보반(Matty Bovan)의 21 A/W 작품은 권위적이고 형식을 갖춘 기존 런웨이와는 대조적인 방법으로 시즌 콘셉트를 표현하였다. 톰 브라운의 21 A/W 컬렉션 패션 필름은 한 여인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동화적으로 구현하였다. 작품의 시작은 동화책 속의 그림 삽화처럼 구성되었고(그림

108), 주인공이 죽음 직전에 환상 속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은 캐릭터와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었다(그림 109). 패션 필름의 사운드트랙 역시 런웨이 무대의 음악과는 달리 만화 영화 주제가를 연상시키는 음악을 통해 관람자가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품의 결말 또한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들과 동화 형식의 이미지 표현을 통해 자칫 엄숙해지기 쉬운 주제를 유쾌하게 표현하였다. 주인공의 여정 과정에서 톰 브라운의 시즌 컬렉션 착장이 곳곳에서 나타났으며, 캐릭터가 착장의 패턴으로 활용되어 컬렉션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영상의 서사 과정에 녹아들었다.

또한, 시네이드 오드와이어의 20 S/S 컬렉션 패션 필름은 3D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실리콘 몰드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미의 기준에 반하는 여성의 몸을 탐구하는 디자이너인 그녀의 작품에서, 3D 디지털 애니메이팅 기술로 인해 작품 속의 여성의 몸은 더욱 추하게 표현되었다(그림 110). 해당 시즌 패션 필름의 작품명은 '실리콘 밸리'로 총 2편이 제작되었으며, 사운드트랙을 대신한 분절된 단어의 의미 없는 반복은 패션 필름의 우스꽝스러운 분위기에 일조하였다.

영국의 신예 디자이너인 매티 보반의 21 A/W 컬렉션 또한 패션 필름으로 제작되었다. 앞의 작품이 3D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모델을 등장시킨 반면, 해당 작품에서는 실제 모델이 매티 보반의 컬렉션 피스를 착용한 모습을 담고 있다. 브랜드의 시즌 콘셉트를 보여주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은 모델을 보여주기보다는, 원색 위주의 화려한 옷이 물감이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그림 111). 또한, 이미지가 왜곡되는 시점에서 사운드트랙 역시 파열음과 기계음이 뒤섞인 소음으로 변형되어, 정신없이 흔들리는 카메라의 초점과 함께 경박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컬렉션 패션 필름은 아니지만, 'Comme des garcons(2016)'과 'Scale(2021)'은 앞의 작품들과 유사한 이미지 표현을 보여줬다. 'Comme des garcons'은 인스타그램에서 '어글리월드와이드(Uglyworldwid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 자젤 자노티(Jazzelle Zanaughtti)에 의

해 연출되었다(“Comme des”, 2016). 본 패션 필름은 스마트폰 속의 게임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다운로딩(downloading)’이라는 텍스트 상자와 함께 패션 필름이 시작되고 ‘웰컴(Welcome)’이라는 기계음과 가상의 원형 공간 속에서 게임의 캐릭터인 모델이 꼼 데 가르송의 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가 표현되었다(그림 112). 하지만 영상 속의 공간이 왜곡되고 파편화됨에 따라 모델의 이미지도 분해되고 배경과 융합되어, 꼼 데 가르송의 아티저널한 작품은 한갓 색채 덩어리로 녹아내렸다(그림 113). 어두운 분위기의 사운드트랙이 계속되지만 중간중간 남성 목소리의 기계음과 게임의 효과음이 불규칙적으로 뒤섞여, 시각적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청각적 이미지 또한 온전하게 구성되지 못했다.

또한, ‘Scale’은 제목처럼 극단적인 형태의 과장과 왜곡을 보여주는 패션 필름으로 영상의 기획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유미주의적인 작품이다(그림 114). 본 영상은 닉 나이트의 감독하에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피시르 놋(Pixie Le Knot)과 야스민 스미스(Yasmine Smith)에 의해 연출되었다. 작품 속의 풍선이 터지는 장면이나 박수가 쏟아지는 장면에서는 의성어를 직접 화면에 노출하여 애니메이션 형식을 취했으며(그림 115), 과장된 메이크업을 한 성인이 풍선 터트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아이들의 놀이를 하는 모습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표현했다. 앞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심하게 뒤틀리는 부분에서는 사운드트랙 또한 늘어지고 분열적인 음으로 표현되었다. 미우 미우(Miu Miu), 지미 추(Jimmy Choo), 구찌 등의 럭셔리 브랜드의 컬렉션 피스들이 작품에 활용되었지만, 극단적인 비율의 왜곡을 통해 옷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복식은 작품의 미적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만을 했다.

(2) 풍자적 메시지

한편, 고전 작품의 패러디나 희극적인 표현을 통해 풍자적 뉘앙스를 띤 패션 필름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이 진리를 전

달할 수 있는 매체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웃음이 가진 전복적인 힘을 인지한 중세에는 웃음이 금지되었으며, 실제로 캐리커처나 키치 등의 현대 예술 장르는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왔다(오양진, 2006).

2019년도 패션 필름 어워즈의 후보작인 'Face your mask(2019)'는 르네상스 시대의 미적 결정체로 여겨지는 명화 모나리자를 패러디하여 외모만을 통해서는 존재의 내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했다(그림 116). 특히나 패션계에서는 몸과 외적인 모습이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서 존재하지만, 디지털 기술로 인해 외형은 얼마든지 변형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폭로하고, 마스크 뒤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희구를 암시한 작품이다("Face your", 2019). 고전 작품의 패러디 모티프는 2014년도의 작품인 'The deep web(2014)'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패션 필름은 브랜드 빈트릴(Beentrill)과 KTZ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하기 위한 작품으로, 인터넷의 무한한 영향력을 주제로 한다. 영상 속의 고전적인 미적 이상에 따라 만들어진 조각상은 정치적 문제, 인종적인 문제 등 인터넷의 각종 자극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의 기사로 채워졌다. 아름다운 대리석의 조각상은 핏물이 가득한 고기 덩어리, 나체의 여성 사진 등의 이미지들과 합성되어 고전적인 권위를 잃고 하찮은 대상물로 격하되었다(그림 117).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본 패션 필름은 성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은 물론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들이 무비판적으로 소비되는 현 사회에 대한 풍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The deep",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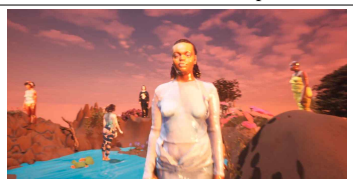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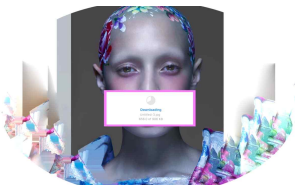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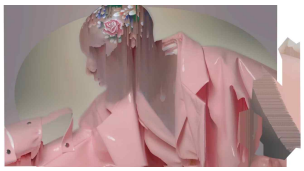
한편, 'Conspicuous consumption(2008)'은 패션계에 만연한 과시 소비 성향을 비판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본 영상은 알파벳 'C' 두 개가 대칭적으로 겹친 샤넬 브랜드의 로고를, '과시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라는 단어로 풀어쓰는 장면을 시작되며(그림 118), 잡지에서 샤넬에 관한 자료들을 오려 거대한 크기의 샤넬 가방을 만들고 그것을 모델이 몸에 뒤집어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119). 우스꽝스러운 사운드트랙과 함께 실제 샤넬 매장 앞에서 모델이 서성거리는 장면을 통해 '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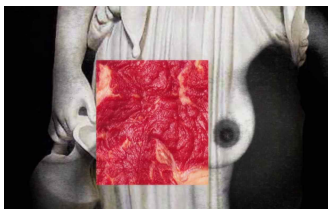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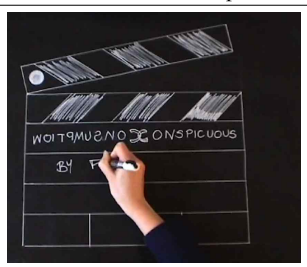
넬 백'이라는 패션의 우상은 한갓 잡지 조각으로 만든 종이 가방에 의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또한, 'Can't help loving that brand(2008)'와 2014년도에 제작된 'Turbo(2014)'는 희극적인 형상과 이미지를 통해 특정한 주제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Can't help loving that brand'는 아티스트 노키(NOKI)에 의해 제작된 영상으로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복면을 쓰고 카바레 공연을 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120). 월트 디즈니(Walt Disney)라는 거대한 브랜드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 본 패션 필름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지나치게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했다("Can't help", 2008). 또한, 『Dressing the Screen: Russia(201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Turbo(2014)'는 해당 브랜드의 디자이너인 율리아 보로비에바(Yulia Vorobieva)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80년대를 연상시키는 촌스러운 색감의 배경과 패션, 그리고 모델들의 천박한 동작을 특징으로 한다. 똑같은 모양의 공산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영상 속의 배경에 등장하는 일정한 크기와 형태의 자동차와 아파트는 공산주의 국가의 체제를 연상시켰다(그림 121). 의도적인 촌스러움으로 겉껍질뿐인 유토피아를 표현한 해당 작품은 점점 획일화되어 가는 러시아 사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권위의 격하 및 풍자를 표현한 작품 사례는 <표 8>과 같다.

<표 8> 권위의 격하 및 풍자를 표현한 작품

세부 분류	작품명	이미지	
조야한 감성	Thom Browne A/W 21(2021)	 <그림 108> Thom Browne A/W 21 (1) Adapted from SHOWstudio(2021).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09> Thom Browne A/W 21 (2) Adapted from SHOWstudio(2021). http://www.showstudio.com
조야한 감성	Silicone valley part 1 (2020)	 <그림 110> Silicone valley part 1 Adapted from SHOWstudio(2020) http://www.showstudio.com	
조야한 감성	Matty Bovan A/W 21 womens wear (2021)	 <그림 111> Matty Bovan A/W 21 womenswear Adapted from SHOWstudio(2021) http://www.showstudio.com	
조야한 감성	Comme des garcons (2016)	 <그림 112> Comme des garcons (1)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13> Comme des garcons (2)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조야한 감성	Scale (2021)	 <그림 114> Scale (1) Adapted from SHOWstudio(2021)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15> Scale (2) Adapted from SHOWstudio(2021) http://www.showstudio.com
풍자적 메시지	Face your mask (2019)	 <그림 116> Face your mask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풍자적 메시지	The deep web (2014)	 <그림 117> The deep web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풍자적 메시지	Conspicuous consumption (2008)	 <그림 118> Conspicuous consumption (1)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19> Conspicuous consumption (2)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풍자적 메시지	Can't help loving that brand (2008)	 <그림 120> Can't help loving that brand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풍자적 메시지	Turbo (2014)	 <그림 121> Turbo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2.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

손택의 새로운 감수성으로 언급된 캠프는 지나칠 정도로 탐미주의적인 취향으로 진지함과 엄숙성에 반하고 의도적인 저급함을 추구한다(Eco, 2008). 캠프가 동성애적 성향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젠더관에 반하는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 문화는 과장적인 연극성을 특징으로 하는 캠프의 미학과 맞닿아 있다(유해민 & 전재훈,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동성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패션 필름이 아닌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 드랙 퍼포먼스 등을 통해 과장된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는 드랙 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작품과 퀴어 문화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 영상으로 나타났다.

(1) 드랙

리 보워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성 정체성을 공유하는 클

럽을 운영하고, 기괴한 메이크업과 복식을 통해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인물로, 드랙 문화와 퀴어 예술의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김현정 & 임은혁, 2018). 그를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 『Guiser(2004)』에서 닉 나이트는 리 보워리의 대표적인 스타일인 '안전핀 입술(safety pin lips)', '임신한 투투 머리(pregnant tutu head)'와 함께 1992년 퍼포먼스 공연에서 보여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다루었다(그림 122, 123, 124, 125). 2016년도 작품 'Boy meets wool: Loverboy(2016)' 또한, 비천한 메이크업과 여성의 옷을 입은 남성의 드랙 퍼포먼스를 다루었다(그림 126). 브랜드 러버보이(Loverboy)의 찰리 제프리(Charles Jeffery)는 스코틀랜드 태생의 디자이너로 패션을 통해 자신의 퀴어함을 표현한다(Daniel, 2021). 그는 대학 시절 '보그 패브릭 런던(Vogue Fabrics London)'이라는 게이 클럽에서 '러버 보이(Lover Boy)'파티를 개최하였으며, 클럽의 컬트 문화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고, 본인의 브랜드가 런던 퀴어씬의 커뮤니티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Cassidy, 2018). 또한, 드랙 퍼포먼스를 통해 미의 극단을 탐구한 작품으로 'Infamy(2020)'가 있다.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주요 플랫폼으로 기괴한 메이크업과 드랙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아티스트인 페커매터(Fecal Matter), 살비아(Salvia), 헝그리(Hungry), 마렌 베일리(Maren Bailey)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다. 이미 보그(Vogue)의 '익스트림 뷰티(Extreme beauty)'를 통해서도 소개된 적 있는 그들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넘나드는 드랙이 아닌, 천사와 악마, 심해 생물, 식물과의 결합 등으로 무수히 많은 정체성을 그들이 직접 디자인한 복식을 통해 보여주었다(그림 127, 128, 129).

(2) 퀴어 문화

한편, 'Uglyworldwide(2018)'와 'Puberty(2021)'는 퀴어 문화에 대한 주인공의 입장을 제시한 작품이다. 'Uglywordwide'는 닉 나이트가 프로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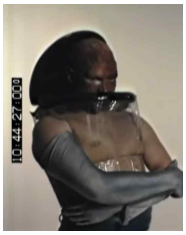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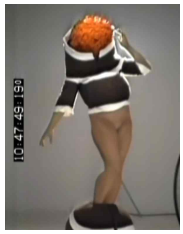
트 『Queer(2018)』의 연장선에서 기획한 작품으로, 지나치게 탐미적인 형식을 통해 퀴어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해당 작품은 원색적인 색감과 형광물질을 칠한 듯한 이미지로 표현되었으며, 말풍선의 이미지와 기계음으로 들리는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영상의 서사를 이어나갔다(그림 130). 모델 자젤 자노티는 영상 속에서 독특한 메이크업과 과장된 패션을 통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지만, 오히려 그러한 반응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Catcalling and”, 2019).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그녀는 나체의 상태로 왁스가 가득한 욕조에 들어간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그림 131). 그녀는 왁스가 깨부숴야 하는 퀴어의 차별과 선입견을 상징하며, 이는 일반 대중들의 퀴어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퀴어 내부에서의 드랙 퀸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밝혔다(“Queer discrimination”, 2019). 또한, 자노티는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드랙 퀸 분장을 통해 퀴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그림 132). 즉, 여성(sex)임에도 불구하고 드랙 퀸 스타일을 선보인 것에 대하여, 드랙이라는 것은 과장된 여성성(gender)을 수행하는 하나의 스타일일 뿐이지 꼭 남성만이 드랙을 행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성 또한 드랙 퀸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다고 밝혔다(“Drag breast”, 2019). 퀴어 예술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주디스 버틀러에 의하면 원본적인 성(sex)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젠더(gender)는 사회 속에서 수행적으로 정해진 것이다(Butler,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드랙은 젠더의 수행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며, 이성애적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고 사회가 수용하지 않았던 타자화된 젠더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다(권순정, 2013). 이처럼 자노티는 해당 작품에서 복식을 통해 본인만의 정체성을 발견함은 물론, 퀴어 문화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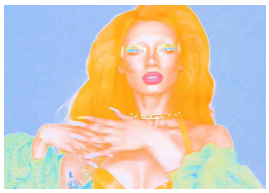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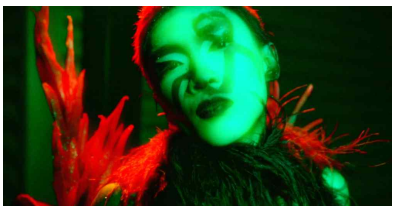
또한, ‘Puberty’는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의 모습과 이를 드랙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패션 필름으로, 영상 속의 중국 소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극단적인 화장과 드랙을

수행한다(그림 133). 작품 속에서 소년은 퀴어 문화가 일반적인 성 가치관에 반하는 단지 변태적인 성적 경향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바꿔야 함을 역설했다(“Puberty”, 2021). ‘드랙은 원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는 소년의 말과 함께 해당 패션 필름은 젠더, 나이,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수용을 장려하면서 소년의 드랙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그림 134).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를 다룬 작품 사례는 <표 9>와 같다.

<표 9>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를 다룬 작품

세부 분류	작품명	이미지			
드랙	Guiser #1, #2, #3, #4 (2004)	 <그림 122> Guiser #1 Adapted from SHOWstudio(200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23> Guiser #2 Adapted from SHOWstudio(200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24> Guiser #3 Adapted from SHOWstudio(200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25> Guiser #4 Adapted from SHOWstudio(2004) http://www.showstudio.com
드랙	Boy meets wool: Loverboy (2016)	 <그림 126> Boy meets wool: Loverboy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드랙	Infamy (2020)	 <그림 127> **Infamy (1)** Adapted from SHOWstudio(2020)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28> **Infamy (2)** Adapted from SHOWstudio(2020)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29> **Infamy (3)** Adapted from SHOWstudio(2020) http://www.showstudio.com
퀴어 문화	Uglyworldwide (2018)	 <그림 130> **Uglyworldwide (1)**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31> **Uglyworldwide (2)**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32> **Uglyworldwide (3)**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퀴어 문화	Puberty (2021)	 <그림 133> **Puberty (1)** Adapted from SHOWstudio(2021)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34> **Puberty (2)** Adapted from SHOWstudio(2021) http://www.showstudio.com	

제 4 절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추의 마지막 특성인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는 정치적 문제와 전쟁을 표현한 작품, 소수자가 받는 차별을 다룬 작품,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한 작품, 그리고 여성 문제와 물질주의에 대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1. 정치적 문제와 전쟁

SHOWstudio의 패션 필름 중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파시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영상과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작품이 있었다. 아도르노는 헤겔의 총체성의 철학에서 전체주의적 위험을 감지하였고,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이성중심주의의 극단으로 보았다(김민수, 2012). 조셉 랠리(Joseph Lally)의 『Soap opera(2014)』 중 'White magic(2014)'과 'Radical artist(2014)'는 파시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White magic'은 에로틱한 모습을 통해 파시즘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경관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각종 고문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타적인 목적의 마술'을 뜻하는 작품의 제목과는 대조적으로 영상 속의 주인공은 손이 묶이고, 눈이 안대로 가려진 채,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나타나, 자유가 억압된 파시즘 체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35, 136, 137). 또한, 살인 사건에서의 개인에 대한 폭력이 사회와 국가, 세계로 확대되는 모습을 표현한 'Radical artist'는 전쟁과 정치적 폭력을 다룬 다큐멘터리 패션 필름이다. 아도르노는 현대 예술이 끊임없이 추를 주제로 하는 것은, 이 세계에 만연한 악을 예술을 통해 폭로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박상선, 2004). 이러한 아도르노의 입장에 부합하듯, 해당 작품에서는 나치 정권의 마크와 히틀러의 연설 장면의 이미지가 'EVIL'이

라는 텍스트와 함께 병치되어 나타났으며(그림 138, 139), 본 영상에는 '우리는 다큐멘터리와 예술을 통해 악을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We are in the business of recording and rendering evil through documentation and art)'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The red shoes(2008)'는 리비아 내전의 참혹한 현실을 표현한 다큐멘터리 패션 필름이다. 본 작품은 정식 군사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총을 들고 내전 중인 모습을 보여주며(그림 140), 영상 전반에 흐르는 나레이션은 작품의 비극성을 강화했다. 나레이션은 패션에 대한 열망 하나로 리비아에서 귀한 패션 아이템인 빨간색 하이힐을 얻기 위해 전쟁에 나갔으나, 결국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담한 어조로 들려주었다. 한편, 'Genoa-we are history(2008)'는 정치적 폭력을 다룬 작품이다. 디자이너 듀오인 바디카(Boudicca)는 2001년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반자본주의 시위자로서의 경험을 패션 필름으로 제작하였다("Genoa we", 2008). 해당 작품에서는 이탈리아 제노바 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항쟁을 다루고 있지만, 공권력의 폭행으로 사망한 시민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여 부패한 정치 권력을 고발했다(그림 141, 142). 에코는 『추의 역사』 마지막 장에서 예술가들이 추를 집요하게 파고든 이유로 사회에는 여전히 디아볼루스(diabolus)가 내뿜는 유황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Eco, 2008). 이처럼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은 전쟁, 정치적 폭력과 같이 근대 서양 철학의 산물인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추한 모습을 담고 있다.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는 권력에 의해 감시되는 사회와 그로 인한 사회의 획일화를 비판한 작품도 찾아볼 수 있었다. 딘 로저(Dean Rogers)에 의해 제작된 'Untitled by Dean Rogers(2008)'는 영국 노동자 계층의 10대들에게 감시되는 사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황조차도 감시되고 녹화되고 있는 역설적 상황으로 인해 그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었다(그

림 143). 이를 통해 본 작품은 모든 면이 감시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경직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영상 제작자 로라 팔코너(Laura Falconer)에 의해 제작된 'Off the rails(2013)' 또한, 감시되는 사회를 비판하였다. 일정한 간격의 펜스와 CCTV 녹화 화면의 형식을 통해 감시되고 획일화된 사회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속에서 모델은 본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레스 푸의 옷과 사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연물로 대표되는 꽃을 들고 있다(그림 144, 145). 하지만, 이후 자신의 거주 공간에서조차 CCTV가 설치된 모습을 보고 모델은 마지막 희망으로 간직했던 본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꽃을 던지며 영상은 마무리되었다(그림 146).

러시아 사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The new times(2014)'도 동일 색의 검정 원피스와 안대를 착용한 채 줄지어 이동하는 여성 모델들의 모습을 통해,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획일화되어 가는 러시아 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47). 한편, 2016년도 패션 필름 어워즈 후보작인 'Asymptote(2016)'의 뜻은 점근선이다. 점근선이란 좌표 평면에서 x의 값이 양 또는 음으로 점점 커짐에 따라 어떤 곡선이 일정한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곡선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점근선", n.d.). 즉, 어떤 점을 극한까지 아무리 움직여도 결국 점근선을 넘어설 수 없듯이, 본 작품은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결국 특정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에서는 똑같은 회색 슈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남성들과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란히 줄지어 선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며(그림 148, 149),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는 개별적인 차이는 용인되지 않기에, 개별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거되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아도르노는 도구적 이성의 폭력이 자연을 넘어서 인간 사회에까지 침범할 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코드화에 의해 모든 개별자는 보편성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20세기 중반에 이미 경고했다(박상선, 2004).

2. 소수자가 받는 차별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은 인종, 민족 등 사회적 타자로서 약자들이 직면하는 차별을 다루기도 했다. 아도르노는 반헤겔주의자답게 총체성의 폭력에 희생되지 않고, 타자들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동일성의 횡포에서 벗어나 탈주하기를 기대했으며, 예술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귀석, 2002). 『Political fashion(2008)』은 세 개의 작품 'Political fashion(2008)', '22 July 2005(2008)', 'Untitled in Naomi Campbell(2008)'을 통해 이러한 타자들이 받는 차별을 표현했다. 모델 나타샤 보즈노빅(Natasa Vojnovic)은 'Political fashion'에서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 12세에 보스니아 전쟁을 피해 세르비아로 갔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과 미국에서 겪었던 이민자로서 어려움을 기괴한 메이크업과 광적인 춤을 통해 표현하였다(그림 150). 또한, '22 July 2005'는 2005년 7월 22일의 타민족에 대한 선입견으로 살해당한 장 카를로스 메네즈(Jean Charles de Menezes)의 피살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시체로 보이는 남성이 거꾸로 매달린 듯 부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백 팩의 해골 이미지는 그의 죽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151). 한편, 'Untitled by Naomi Campbell'은 현재는 유명한 패션모델이지만 한때 나오미 캠벨(Naomi Campbell)이 겪었던 패션업계에서의 인종 차별을, 그녀의 모습과 닉 나이트의 나레이션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그녀가 총을 난사하는 장면은 패션계에서의 인종 차별을 완전히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그림 152).

또한, 2019년도 패션 필름 어워즈 작품인 'The rite(2019)'는 다운 증후군 환자들이 겪는 차별과 그들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해당 작품에서는 그들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장벽,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전달했다(그림 153). 이후, 작품에서는 다운 증후군 환자들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무용을 통해 표현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 이교도의 종교의식에 관한 내용인 만큼(“The rite”, 2019), 그들의 옷은 흰색의 상 하의에 종교적 색채의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고, 메이크업 또한 유사한 색의 이미지로 드러났다(그림 154).

3.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

지배 이데올로기가 태초에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미메시스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자연까지도 사물화함에 따라 자연은 문명의 타자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타자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도르노 미학의 핵심이다(정현철, 2006).

프로젝트 『Political fashion(2008)』의 ‘Black balloon(2008)’은 메이크업과 모델의 표정을 통해 자연 훼손에 대한 비판의식을 전달한 작품이다. 영상의 초반부 식생이 번성하고 꽃이 피는 자연을 표현할 때 모델은 활짝 웃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검은색의 메이크업과 모델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변했다(그림 155, 156). 유사한 주제로 브랜드 ‘1017 ALYX 9SM’의 16 A/W 컬렉션을 위한 패션 필름으로 닉 나이트와 매튜 윌리엄스(Matthew Williams)는 ‘Natural order(2017)’을 통해 자연에 내재한 혼돈을 표현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델 스텔라 루시아(Stella Lucia)는 자연환경에 스며들어있는 듯하면서도 어디엔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무질서한 분위기를 자아냈다(“Natural order”, 2017). 삼림 지대에서 벌어지는 불꽃놀이는 이러한 불안감을 고조시켰으며, 자연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1017 ALYX 9SM의 화보 조각들을 통해 패션 산업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제를 부각했다(그림 157).

한편,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UN.A, Color(2018)’는 자연에 대한 착취, 그중에서도 패션업계에서의 지나친 동물 소재의 사용을 비판한 영상이다. 광활한 벌판에서 동물들이 이동하는 장면과 이러한 대자연으로부터

얻어진 식탁 위의 빵과는 대조적으로, 작품 속의 모델은 화려한 광물질의 장신구들과 함께, 소매 부분이 동물의 털로 되어 있는 옷을 착용하고 있다(그림 158). 이후 본 작품은 빵 속에서 튀어나온 동물의 털과 털로 뒤덮여 결국 괴상한 형태로 변해버린 모델의 모습을 통해 패션업계의 무분별한 자연 착취에 경각심을 전달하였다(그림 159, 160).

또한, 2014년도의 작품 'Somnia(2014)'는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영상이다. 작품의 공간은 실험실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안구를 가지고 있는 식물과 쥐의 머리를 가진 식물이 배양되고 있다(그림 161).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남녀 모델은 각각 쥐의 머리를 가진 식물과 팔이 오리의 모습으로 변해있는 사람이 프린팅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결국 그들이 변화할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그림 162, 163, 164).

4. 여성 문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은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다루기도 했다. 여성은 수 세기 동안 남성의 타자로 여겨져 왔으며, 사회문화적으로 남성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를 획득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조현숙, 2012). 프로젝트 『Fashion & Freedom(2016)』의 'Edith(2016)'는 수 세기 동안 여성을 옥죄어왔던 사회의 장벽을, 코르셋을 풀어헤치는 모습을 통해 극복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속의 여성 모델은 세 명의 남성들에 의해 코르셋이 채워지며, 코르셋의 끈으로 인해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질 뿐이었다(그림 165). 영상에서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마를 타고 그네를 타는 등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 여겨지지만(그림 166), 결국 이들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코르셋을 풀어헤치는 모습을 통해 주체적인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본 작품은 이조차도 붉은색의 실이 피처럼 흩어진 모습을 통해 수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림 167). 퍼포먼스 아티스트 밀리 브라운(Millie Brown)이 연기한 작품 '#02(2008)'도 동일 주제의 패션 필름이다. 태엽 소리와 제자리에서 계속 회전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본 작품이 오르골 장난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68). 이후 오르골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왜곡됨에 따라 그녀는 검붉은 액체를 토하게 되고, 그녀가 입은 흰색 옷은 물론 주변 배경까지 검은색으로 물들어 버린다(그림 169). 해당 작품은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구속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르골 장난감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에서의 제약을 특정 국가나 문화권으로 좁혀서 표현한 작품으로는 'Cut out(2008)'과 'Barbara bird(2017)'가 있다. 'Cut out'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의복 제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가정 내에서는 딸과 함께 각종 화려한 드레스와 장신구, 본인의 취향이 반영된 속옷을 착용하는 등 의복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그림 170), 외출을 위해 모든 것을 가리고 히잡을 착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그림 171). 본 작품은 엄마와 딸이라는 친밀한 관계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으로 인해 복식에는 차이가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어머니에게 업혀 나가는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의 카메라를 향한 무표정한 시선을 통해 여성에 대한 이슬람 문화권의 억압을 비판했다. 또한, 'Barbara bird'는 중국의 남아 선호 사상을 다룬 패션 필름이다. 영상은 여성 목소리의 나레이션을 통해 중국 사회에서 남아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여성은 자유롭지 못하고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작품 속에서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꼭두각시 인형과 작은 어항 속의 물고기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그림 172, 173).

한편, 작품 'Feminist(2008)'는 여성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여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준 패션 필름이다. LGBT 옹호자이자 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진 펑크 밴드 '가십(Gossip)'의 보컬인 베스 디토(Beth Ditto)는 영상 속에서 '페미니스트(feminist)'라는 단어가

새겨진 펜던트를 착용하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그림 174). 일반적인 패션계의 미적 기준에서 벗어난 뚱뚱한 신체를 가진 그녀이지만, 오히려 크리스토퍼 케인(Christopher Kane)의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림 175). 디토는 해당 영상을 통해 날씬한 몸매만을 원하는 패션업계에 모든 여성의 몸은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Frances, 2008).

또한, 'Rear guard(2013)'는 여성의 성 상품화를 비판한 작품이다. 영상의 감독인 캐서린 퍼거슨(Kathryn Ferguson)은 현대 패션에서의 여성에 대한 과잉 성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하여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많은 패션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완전히 차려입은 남성과 반나체의 젊은 여성 사이의 불편하고 어색한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였다(Kathryn, 2013). 해당 영상은 신체가 잘 드러나는 응원복을 입고 치어리딩(cheerleading)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어 자칫 주제에 반하는 작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녀들의 옷에 적힌 알파벳들의 조합을 통해 'TITS & ASS', 'SEX SELLS'의 단어가 형성되고(그림 176, 177), 성적 대상화를 뜻하는 'OBJECT'라는 팻말을 보여줌으로 인해 패션 미디어의 노골적인 성 상품화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8).

5. 물질주의

아도르노는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에 맞게 코드화시킴에 따라, 예술까지도 이데올로기와 화해하여 아무런 사회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순수한 예술로 전락함을 진단했다(김민수, 2012). 이러한 타락한 예술과 달리 SHOWstudio의 작품은 과소비와 외모지상주의 등 정신적 가치가 중요성을 잃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를, 추한 이미지를 통해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초창기 작품인 'Eat fashion(2002)'은 모델이 카트에 담긴 패션 잡지를 뜯어먹음에 따라(그림 179), 계속해서 옷이 몸 위에 축적되어 결국 괴상

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장면을 통해, 현대 패션에서의 과소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그림 180). 유사한 맥락에서 'Consumption(2008)'은 영상 초반부의 속옷 차림의 단출한 모델의 모습에 비하여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지나친 소비로 인해 온갖 사치품과 쇼핑백 등에 뒤덮인 흉측한 모습의 모델을 표현했다(그림 181). 동일 해에 제작된 'Cut(2008)' 또한 과도한 사치품 소비 풍조를 비판한 작품이다. 본 작품은 모델이 착용한 목걸이, 팔찌, 귀걸이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의자에 앉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미지를 통해 럭셔리 제품의 지나친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했다(그림 182, 183).

한편, 『Soap opera(2014)』의 'Money shot(2014)'은 패션계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와 지나친 물질주의를 경고한 작품이다. 본 작품에서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연상시키는 몸매의 남성 모델이 돈다발을 들고 사치스러운 삶을 보내는 장면과 함께, '물질에 대한 숭배가 정신을 보장하는가?'라는 텍스트가 삽입된다(그림 184, 185). 즉, 본 작품은 정신적 가치와 도덕적 관념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자본에 의해 실현 가능한 현세태에 대한 비판 의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9년도 패션 필름 어워즈 작품인 'Cry of the city(2019)'는 물질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음에 따라 성까지도 사고팔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작품 속의 젊은 남성들은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도시로 이주해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스러운 옷을 착용하고,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을 한 채로 밤거리를 서성거리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그림 186, 187).

물질성만을 추구한 결과로 패션계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다룬 작품으로는 'Metamorphosis(2012)'와 'Belly flop(2018)'이 있다. 'Metamorphosis'는 프라다, 발렌시아가(Balenciaga), 에르메스(Hermès) 등의 럭셔리 브랜드의 옷을 입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델의 이면에 나타나는 숨 막히는 고통을 표현하였다(그림 188). 본 작품은 최소한의 근무환경도 갖춰지지 않은 채 모델을 착취하는 패션업계의 모습을 병 속의 나비가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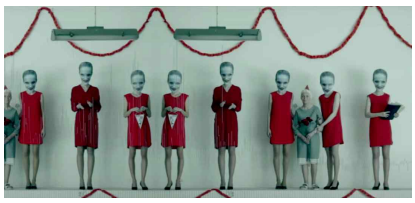
미들에 의해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89). 또한, 우르줄카(Urzulka)와 줄리아나(Juliana)에 의해 제작된 'Belly flop'은 양적 성장만을 위해 계절적 기질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즌 트렌드만을 좇아가는 패션의 무의미한 시즌을 비판한 작품이다. 영상은 실제 계절을 반영하는 자연적 공간과 패션 시즌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설정하여 화면을 분절하였고(그림 190), 시즌 무드 보드로 보이는 종이에 신체 일부만이 노출되는 장면을 통해 해당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그림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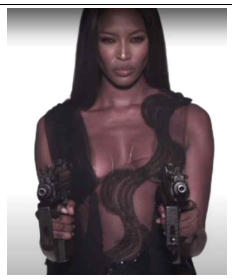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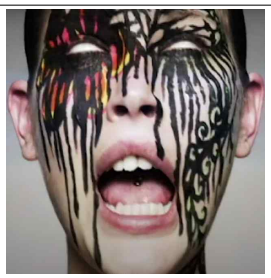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다룬 패션 필름의 사례는 <표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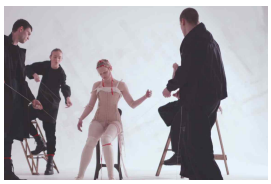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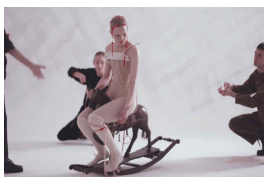
<표 10>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다룬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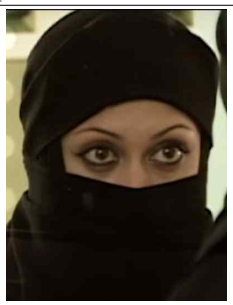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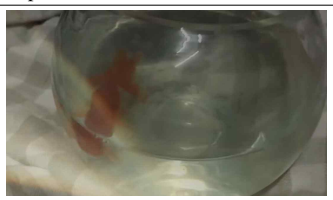
세부 분류	작품명	이미지		
정치적 문제와 전쟁	White magic (2014)	 <그림 135> White magic (1)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36> White magic (2)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37> White magic (3)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정치적 문제와 전쟁	Radical artist (2014)	 <그림 138> Radical artist (1)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39> Radical artist (2)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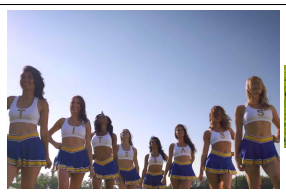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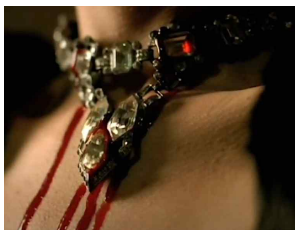
정치적 문제와 전쟁	The red shoes (2008)	 <그림 140> The red shoes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정치적 문제와 전쟁	Genoa-we are history (2008)	 <그림 141> Genoa-we are history (1)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42> Genoa-we are history (2)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정치적 문제와 전쟁	Untitled by Dean Rogers (2008)	 <그림 143> Untitled by Dean Rogers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정치적 문제와 전쟁	Off the rails (2013)	 <그림 144> Off the rails (1)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45> Off the rails (2)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46> Off the rails (3)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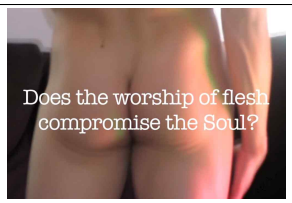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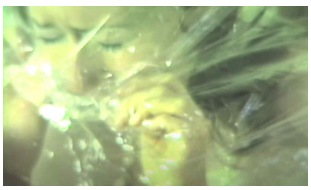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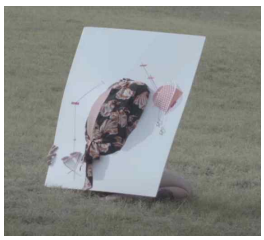
정치적 문제와 전쟁	The new times (2014)	 <그림 147> The new times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정치적 문제와 전쟁	Asymptote (2016)	 <그림 148> Asymptote (1)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49> Asymptote (2)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소수자가 받는 차별	Political fashion (2008)	 <그림 150> Political fashion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소수자가 받는 차별	22 July 2005 (2008)	 <그림 151> 22 July 2005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소수자가 받는 차별	Untitled in Naomi Campbell (2008)	 <그림 152> Untitled in Naomi Campbell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소수자가 받는 차별	The rite (2019)	 <그림 153> The rite (1)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54> The rite (2)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	Black balloon (2008)	 <그림 155> Black balloon (1)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56> Black balloon (2)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	Natural order (2017)	 <그림 157> Natural order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	UN.A, COLOR (2018)	 <그림 158> UN.A, COLOR (1)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59> UN.A, COLOR (2)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60> UN.A, COLOR (3)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	Somnia (2014)	 <그림 161> Somnia (1)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62> Somnia (2)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63> Somnia (3)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64> Somnia (4)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여성 문제	Edith (2016)	 <그림 165> Edith (1)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66> Edith (2)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67> Edith (3) Adapted from SHOWstudio(2016) http://www.showstudio.com

여성 문제	#02 (2008)	 <그림 168> #02 (1)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69> #02 (2)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여성 문제	Cut out (2008)	 <그림 170> Cut out (1)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71> Cut out (2)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여성 문제	Barbara bird (2017)	 <그림 172> Barbara bird (1)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73> Barbara bird (2) Adapted from SHOWstudio(2017) http://www.showstudio.com
여성 문제	Feminist (2008)	 <그림 174> Feminist (1)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75> Feminist (2)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여성 문제	Rear guard (2013)	 <그림 176> Rear guard (1)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77> Rear guard (2)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78> Rear guard (3) Adapted from SHOWstudio(2013) http://www.showstudio.com
물질주의	Eat fashion (2002)	 <그림 179> Eat fashion (1) Adapted from SHOWstudio(2002)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80> Eat fashion (2) Adapted from SHOWstudio(2002) http://www.showstudio.com	
물질주의	Consumption (2008)	 <그림 181> Consumption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물질주의	Cut (2008)	 <그림 182> Cut (1)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83> Cut (2) Adapted from SHOWstudio(2008) http://www.showstudio.com	

물질주의	Money shot (2014)	 <그림 184> Money shot (1)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85> Money shot (2) Adapted from SHOWstudio(2014) http://www.showstudio.com
물질주의	Cry of the city (2019)	 <그림 186> Cry of the city (1)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87> Cry of the city (2) Adapted from SHOWstudio(2019) http://www.showstudio.com
물질주의	Metamor phosis (2012)	 <그림 188> Metamorphosis (1)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89> Metamorphosis (2) Adapted from SHOWstudio(2012) http://www.showstudio.com
물질주의	Belly flop (2018)	 <그림 190> Belly flop (1)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그림 191> Belly flop (2) Adapted from SHOWstudio(2018) http://www.showstudio.com

제 5 절 SHOWstudio의 패션 필름 속 복식의 역할

지금까지 본 연구의 추의 관점인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추의 관점에 따라 SHOWstudio의 작품 속에서 복식이 가지는 위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분석한 사례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사례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	세부 분류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 죽음 금기의 위반	• 마카브르 • 애브젝트
	• 성 금기의 위반	• 신체 부위 • 동성에 성향 • 성적 페티시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 초자연적 현상과 존재로부터의 공포	• 오컬티즘 • 초자연적 존재
	• 불쾌한 골짜기 효과로 인한 긴장감	• 신체의 변형 • 포스트 휴먼
	• 비이성적 상황에서 기인한 생경함	• 초현실적 상황 • 탈맥락적 상황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 권위의 격하 및 풍자	• 조야한 감성 • 풍자적 메시지
	•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	• 드랙 • 퀴어 문화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	• 정치적 문제와 전쟁 • 소수자가 받는 차별 •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 • 여성 문제 • 물질주의

패션 브랜드의 시즌 컬렉션을 홍보하기보다는 패션을 통한 예술적 표현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SHOWstudio의 특성상,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영상 전반의 조형성을 강화하거나,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복식 자체가 패션 필름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 가고 주제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사례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4가지 추의 관점에 따라 패션 필름에서 복식이 갖는 위상에 차이가 있었다.

첫째,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를 다룬 패션 필름 속에서 복식은 대부분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우선, 죽음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을 살펴보면, 새하얀 옷과 이에 스며드는 붉은 피의 색채 대비를 통해 죽음을 표현한 'Blood rose'와 죽음의 에로틱한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속옷만 착용한 모델을 등장시킨 'The golden fish fairytale'처럼 작품 속의 복식이 영상의 조형성을 강화하기도 했다(그림 4, 15).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 속에서 복식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오브제로 기능했다. 복식은 'Left thigh'와 같이 액세서리로 등장하여 복식 외적인 요소와 함께 대상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했고(그림 3), 'The garden'과 같이 시체와 대비되는 여성이 입은 화려한 원피스를 통해 메멘토 모리라는 주제를 강화하기도 했다(그림 12). 그뿐만 아니라 'Respiration'에서 복식은 상황에 따라 형태와 부피에 차이를 두어 작품 속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삶과 죽음의 대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그림 16). 한편, 복식이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 되기도 하였는데, 애브젝트를 표현한 'Maenads'에서 복식은 오물로 보이는 실리콘 덩어리로 만들어진

비정형적인 형태로 등장하여, 모성적인 비천함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의 의도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그림 23, 24). 성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들 속에서도 대부분의 복식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한 요소로서 기능했다. 작품에서는 나체의 인물은 물론, 속옷 차림의 인물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패션 필름의 주제에 부합하듯 속옷은 내부가 비쳐 보이거나, 성적 부위를 가리지 못하는 패턴으로 제작되어 속옷의 기능이 상실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그림 31, 36). 또한, 많은 수의 작품에서 스타킹, 높은 힐의 구두, 유아를 연상시키는 옷, 라텍스 등과 같이 특정 성적 페티시와 연관된 복식이 다수 등장하였다(그림 59, 61, 64, 66, 67). 특히 사도마조히즘을 표현한 'Love me', 'Soft furnishings 2017'의 경우 복식은, 어두운색의 거칠고 광택 있는 소재의 옷과 흰색의 부드러운 소재의 옷의 대비를 통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그림 49, 50). 한편, 'Tessa'에서 복식은 아티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집약된 요소로 작품 전개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였다. 본 작품의 주제인 여성의 성적 해방은 남성의 정장과 넥타이는 물론, 인공 페니스까지 착용한 모델의 모습을 통해 표현되었다(그림 56, 57).

둘째, 추의 다른 관점들에 비해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추를 표현한 작품에서는 복식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물론, 복식은 검은색 위주의 옷, 기괴한 헤드피스와 마스크, 웨어러블 아트로서 그로테스크한 디자인의 조형물로 작품에 등장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강화하기도 하였다(그림 73, 83, 86, 98). 하지만, 불쾌한 감정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언캐니 밸리 효과를 일으키는 대상, 신체 자체의 극단적인 변형, 혹은 아이러니한 상황 등에서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작품에서 추한 감정은 복식 외적인 요소로부터 유발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추가 나타난 작품에서 복식은 추한 감정을 유발하는 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제한적인 기능을 할 뿐이었다.

셋째,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가 나타난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작품의 조형성을 강화하거나 복식이 작품의 주제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였다.

‘Thom Browne A/W 21’, ‘Silicone valley part 1, 2’, ‘Matty Bovan A/W 21 womenswear’는 런웨이를 대신한 컬렉션 패션 필름을 통해 복식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런웨이가 옷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패션 필름 속의 복식은 디지털 기술과 3D 애니메이션 기술 등을 통해 왜곡되고 파편화되면서 영상의 조형미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그림 110, 111). 유사하게 ‘Comme des garcons’과 ‘Scale’에서도 꼼 데 가르송, 미우 미우, 구찌 등의 럭셔리 브랜드의 옷을 착용한 모델이 등장하지만, 영상 속의 공간이 해체됨에 따라 복식은 색채 덩어리로 흘러내려 패션 필름의 조형성을 강화할 뿐이었다(그림 113, 114). 또한, ‘Conspicuous consumption’이나 ‘Turbo’에서 복식은 권위와 기존 체제를 비판하는 주제의 표현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그림 119, 121). 한편, ‘Guiser’, ‘Infamy’, ‘Uglyworldwide’ 등 퀴어 정체성을 표현한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그 자체가 작품의 주제로서 기능했다. 드랙이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의 복식을 통해 과장된 행동을 연기하는 장르이기에, 퀴어 주체의 드랙 퍼포먼스를 담은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그들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그림 122, 128, 132). 특히 작품 ‘Uglyworldwide’ 속의 모델은 여성이지만, 드랙 퀸의 복식을 흉내 냄으로써 퀴어 문화에 내재한 문제점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넷째,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표현한 작품에서는 정치적 사안의 주제와 같이, 패션의 요소가 작품 밖에서 개념적으로 등장하여 복식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복식은 작품의 주제 전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나타났다. ‘The new times’에서 모델들은 검은 원피스와 함께 안대를 착용하고 일렬로 줄지어 선 모습으로 나타났으며(그림 147), ‘Asymptote’에서 남성 무리와 여성들은 각각 똑같은 회색 슈트와 붉은색 원피스를 착용한 모습으로 표현되어(그림 148, 149),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자유의 억압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복식을 통해 전달했다. 또한, ‘Black balloon’은 옷이 아닌 메이크업을 통해 자연 훼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제시하였고(그림 155, 156), ‘UN.A, COLOR’에서 복식은 동

물의 털로 덮인 기괴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패션업계의 지나친 동물성 소재의 사용을 단적으로 비판했다(그림 160). 특히 여성 문제를 다룬 작품들 속에서 복식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Edith’는 여성 장벽의 대표적인 기표로 여겨지는 코르셋을 통해 작품의 서사를 이어나갔으며(그림 167), ‘Cut out’은 이슬람 문화권 여성의 필수적인 복식인 히잡을 통해 작품의 비판적 의도를 표현했다(그림 171). 또한, 직접 페미니스트라는 글자가 새겨진 펜던트를 착용하거나 옷에 적힌 글자들의 조합을 통해 여성 권리의 회복을 주장한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74, 177). 물질 지상주의를 비판한 작품들은 패션업계의 과소비를 지적한 작품이 다수였는데, ‘Eat fashion’과 ‘Consumption’에서는 소비를 함에 따라 모델들의 몸에 옷이 하나씩 추가되는 모습을 통해(그림 179, 180, 181), ‘Cut’에서는 럭셔리 브랜드의 액세서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통해 패션의 사치 풍조를 비판하였다(그림 182). 이처럼 사회의 윤리적 결함을 지적한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영상 자체의 미적 표현을 강화하기보다는 작품의 비판적 의도를 직접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제 4 장 결 론

오랜 기간 미의 그림자로 존재했던 추가 현대 예술에서 오히려 미보다 미적인 현상으로 간주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도르노의 진단대로 현대에 추는 그 특질이 너무나도 다양해졌고, 미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어 조형 예술을 비롯한 문학, 영화, 그리고 패션 분야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런웨이는 패션을 다른 장르와 구분하는 미디어로서 기능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다양한 미적 현상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이 맞물리면서, 패션업계는 런웨이를 대신할 새로운 미디어인 패션 필름에 주목하게 되었다. 런웨이와 마찬가지로 시즌 콘셉트를 명확하게 보여줄 목적에서 시작되었던 패션 필름은 움직이는 이미지의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미적 가능성을 획득하고,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신진 아티스트와의 적극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패션 이미지 메이킹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다양한 미적 현상들을 탐구하는 닉 나이트의 SHOWstudio는 이러한 현대적 패션 필름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패션 미디어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추 개념의 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대적 관점의 추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분석하였다.

문헌 연구로는 우선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미학,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추 개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대까지의 추 개념을 바탕으로 20세기 이후 미학과 정신분석학에서 논의된 추 개념을 종합하여 현대적 관점의 추로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그리고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도출하였다. 이후 패션 필름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닉

나이트의 예술 활동과 그가 설립한 패션 필름 전문 웹사이트인 SHOWstudio의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로는 SHOWstudio의 패션 필름 중 본 연구의 추의 관점에 부합하는 145편을 선정하였다.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은 과거보다 최근에 컬렉션 패션 필름에서 추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의 수가 증가했으며, 근래로 오면서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이 작품들 속에서 더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사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죽음과 성 금기를 위반한 작품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죽음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에서는 직접적인 죽음인 마카브르와 정신분석학적 죽음인 애브젝트를 표현한 작품이 나타났다. 한편, 성 금기를 위반한 작품으로는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품과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 페티시를 표현한 작품을 찾아볼 수 있었다. SHOWstudio는 남녀의 생식기와 성행위의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하고, 특정한 대상이나 행위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이상 성애를 다루기도 했다.

둘째, SHOWstudio의 작품 속에서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는 초자연적 현상으로부터의 공포감, 불쾌한 골짜기 효과로 인한 긴장감, 비이성적 상황에서 기인한 생경함으로 드러났다. 작품 속에서 초자연적 존재들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탄 숭배, 퇴마 의식과 같은 미스터리한 현상을 다루기도 하였다. 또한, 인간과 유사하지만, 인격성이 느껴지지 않는 존재로부터 유발되는 불쾌한 긴장감과 초현실적인 상황 설정, 논리적으로 부적합한 맥락 속에서 느껴지는 생경함을 표현한 작품도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가 나타난 패션 필름은 권위의 격하 및 풍자를 주제로 한 작품과 대담하고 이색적인 퀴어를 표현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시즌 컬렉션을 선보이는 패션 필름에서도 이미지를 왜곡하고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추한 형식을 표방하였으며,

고전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럭셔리 브랜드의 희화화를 통해 의도적으로 권위를 깎아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과한 메이크업과 복식을 통해 원본적인 젠더에 반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드랙 퀸의 모습을 다룬 작품과 퀴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한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서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드러낸 작품은 정치적 문제와 전쟁을 다룬 작품, 소수자가 받는 차별을 다룬 작품,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한 작품, 여성 문제를 드러낸 작품, 그리고 물질주의의 문제점을 표현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전쟁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주제로 삼기도 하고, 장애인, 이민자, 유색 인종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지나친 유전자 조작으로 자연적 질서를 거스르는 상황을 다룬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제약을 복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나 패션업계에 만연한 물질 지상주의를 비판한 작품도 다수 나타났다.

사례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에서 복식의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를 다룬 작품에서 복식은 파편화된 모습, 죽음을 암시하는 오브제 등으로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성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속옷을 착용한 모습과 스타킹, 라텍스 등과 같이 각종 페티시의 대상이 되는 복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가 나타난 패션 필름에서는 복식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유령을 연상시키는 기괴한 헤드피스, 검은색의 옷 등은 작품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데에 일조하기도 했지만, 해당 특성의 추는 그 원인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 자체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기에 복식이 추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못했다. 또한,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가 나타난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영상의 조형미를 돋보이게 하거나, 정체성 표현의 핵심 도구로 복식이 활용되어 작품의 주제 전달에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다. 윤리적 결함으로

서의 추가 나타난 작품에서 복식은 그 자체가 주제로서 위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 신체의 일부가 속박된 형태의 옷, 코르셋 등을 통해 복식은 작품의 비판적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혐오 미술, 신체 예술과 같은 아름다움을 포기한 현대 예술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추는 이미 예술계에서 핵심적인 미적 범주가 되었다. 영상 매체와의 결합으로 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간 패션이지만, 현대 패션에서 추를 논한 연구들은 추의 다양한 특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패션에서 추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있었던 1994년도의 연구는 물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 패션에서 추를 논한 연구는 대다수가 칼 로젠크란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칼 로젠크란츠가 조형 예술의 해석에 적합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그는 추를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 보지 않고, 고전적인 입장에서 미를 위한 부차적 존재로 바라보았으며, 결국 이상적인 미를 위한 변증법적 종합의 과정으로만 바라본 헤겔학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추의 현대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그의 이론으로 '현대 패션'을 논한다는 것은 이론적 한계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 분야의 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결과 현대의 추는 조형성에 국한되었던 과거의 추의 맥락에서 벗어나 금기의 위반, 불쾌한 감정, 천박한 취향, 윤리적 결함과 같이 다양한 관점으로 나타났다. 다른 패션 미디어와 달리 이미지의 표현에 있어서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SHOWstudio의 특성상, 패션 필름에서 추는 잔혹하고 노골적인 이미지로서만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비롯한 퀴어 주체들의 젠더 담론, 병적인 성적 페티시 등과 같이 사회적 타자의 입장을 표방하며 작품 속에 표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 속의 복식은 영상의 조형성을 강화하거나 주제 전달의 수단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나, 사회의 윤리적 결함을 비판하는 경우에 패션 필름 속의 복식은 작품의 주제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상징물로 나타

나 패션 필름 또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성을 가진 예술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패션 필름은 이미 시즌의 콘셉트를 제안하고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는 런웨이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실험을 거듭한 끝에 독자적인 예술 장르가 되어 패션의 예술화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오로지 미적인 목적으로 패션 필름에서 추를 다루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을 생산하고 관람자들의 미적 경험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20세기 초중반 모더니즘 예술이 겪었던 바와 같이 '예술을 위한 예술'로 전락하여 사회의 각종 모순을 무시한 채 도피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을 지닌다. 아도르노가 예술 속의 추를 통해 이 세계를 탄핵하려 했듯이, 예술로서의 패션 필름, 더 나아가서 패션은 유미주의적 관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추한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며, 추악한 면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타자들을 구원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브랜드에서 패션 필름을 포함한 영상 이미지 제작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가 매체의 관점이 아닌 특정한 미적 관점에서 패션 필름을 분석하는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최근 핵심적인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는 패션 필름에서 나타나는 추를 분석하여 컬렉션과 패션 이미지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패션 분야의 추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미의 반대로서 조형적 관점에만 머물러있었던 추를 금기에 대항하는 근원적 욕망의 표현으로서 추, 불쾌를 유발하는 감정적 차원으로서의 추, 원본 질서에 저항하는 타자의 담론으로서의 추, 그리고 윤리적 의미를 내포한 추로 확장하여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서 추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핵심적인 매체로 부상한 패션 필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연구 범위를 SHOWstudio로 한정하여 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즉, 최근 들어 SHOWstudio에서도 여러 브랜드에 의해 컬렉션 패션 필름이

기획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대부분 작품은 실험적 경향이 높은 크리에이티브 패션 필름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패션 필름을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SHOWstudio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작되고 있는 패션 필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패션 필름의 유형별로 혹은 플랫폼별로 나타나는 작품의 표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가 추를 주제로 한 패션 필름의 제작자 관점에서 표현방법에 주안점을 둔 연구인 만큼, 후속 연구로는 패션 필름의 수용자 관점에서 추가 받아들여지는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1) 단행본

Adorno, T. W. (1997). *미학 이론*. (홍승용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Ariès, P. (2004). *죽음 앞의 인간*. (고선일 역). 서울: 새물결.

Bataille, G. (2009). *에로티즘*. (조한경 역). 서울: 민음사.

Burke, E. (2006).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김동훈 역). 고양: 마티.

Butler, J. (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역). 파주: 문학동네.

Calinescu, M. (1994).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모더니티, 아방가르드, 데카당스, 키치, 포스트모더니즘*. (이영욱 역). 서울: 시각과 언어.

Deleuze, G. (2008).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서울: 민음사.

Eco, U. (2005). *미의 역사*. (이현경 역). 서울: 열린책들.

Eco, U. (2008). *추의 역사*. (오숙은 역). 서울: 열린책들.

Freud, S. (1997). *쾌락 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역). 서울: 열린 책들.

Freud, S. (2003).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파주: 열린 책들.

Freud, S. (2020).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진 역). 파주: 열린 책들.

Greenberg, C. (2004). *예술과 문화*. (조주연 역).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Harries, K. (1988).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오병남, 최연희 역). 서울: 서광사.

Homer, S. (2006).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서울: 은행나무.

Kayser, W. (2011).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지혜 역). 서울: 아모르문디.

Kristeva, J. (2000). *시적 언어의 혁명.* (김인환 역). 서울: 동문선.

Kristeva, J. (2001). *공포의 권력.* (서민원 역). 서울: 동문선.

Lacan, J. (2019). *에크리.* (홍준기 역). 서울: 새물결.

Mcafee, N. (2007).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역). 서울: 앨피.

Moles, A. A. (1994). *키치란 무엇인가: 행복의 기술.* (엄광현 역). 서울: 시각과 언어.

Oliver, K. (1997). *크리스테바 읽기.* (박재열 역) 대구: 시와반시사.

Rosenkranz, K. (2008). *추의 미학.* (조경식 역). 파주: 나남.

Roudinesco, E. (2000). *자크 라캉.* (양녕자 역). 서울: 새물결.

Schiller, F. (2015).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 (윤선구 역).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Spector, J. J. (1998). *프로이트 예술미학.* (신문수 역). 서울: 풀빛.

Tatarkiewicz, W. (2005). *미학사: 1. 고대미학.* (손효주 역). 서울: 미술문화.

김경순. (2009). *라캉의 질서론과 실재의 텍스트적 재현.* 파주: 한국학술정보.

김원방. (1998). *잔혹극 속의 현대미술: 몸과 권력 사이에서.* 서울: 예경.

김인환. (2003).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문학탐색.* 서울: 이화여대학교출판부.

맹정현. (2009). *리비돌로지: 라캉 정신분석의 쟁점들.* 서울: 문학과지성사.

박찬부. (2006). *라캉: 재현과 그 불만.* 서울: 문학과지성사.

오병남. (2003). *미학강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종하. (2007). *아도르노: 고통의 해석학.* 파주: 살림.

정미경. (2014). *키치의 시대 예술이 답하다: 키치와 미술/영화/문학의*

만남. 서울: 사문난적.
진중권. (2003). *미학 오디세이.* 서울: 새길.
진중권. (2008). *춤추는 죽음.* 서울: 세종서적.
진휘연. (2002).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홍준기. (1999). *라캉과 현대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 학술지

강손근. (1999). 플라톤 미학에 있어서 미메시스에 관한 연구. *새한철학회, 16*, 293-337.
구본철. (201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 다시 읽기. *신영어영문학회, 50*, 1-14.
권구정. (2005).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9*(6), 86-100.
권순정. (2013).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을 통해서 본 젠더. *새한철학회, 72*(2), 215-240.
권지안 & 임은혁. (2016). 패션필름의 유형화에 따른 특성. *한국복식학회, 66*(4), 128-145.
권지안, 이수용, & 임은혁. (2019). 패션필름에 나타난 촉지각 경험 유발 요인. *한국의류학회지, 43*(4), 474-490.
권택영. (1996). 해결이 또 하나의 문제인 세상 -프로이트와 토니 모리슨의 언캐니. *인문학연구, 1*, 93-110.
권혁성. (2012). 플라톤에 있어서 미메시스와 예술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미학회, 69*, 1-48.
기정희. (2008). 쉴러의 『인간의 미적교육』에 나타난 놀이의 의미. *인문연구, 54*, 249-276.
김동훈. (2016). 총체성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아이러니와 웃음(1): 아

이러니 -소크라테스에서 리처드 로티까지-. *한국미학회, 82*(1), 37-71.

김미현. (2019).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현대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68*, 84-94.

김민수. (2012).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추의 변증법: 『미학 이론』의 한 해석. *한국미학예술학회, 35*, 238-263.

김산춘. (2008). 추의 미학, 예술학적 의의;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미학예술학 연구, 27*, 40-61.

김상섭. (2016).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론』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미적 인간의 교육론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도덕교육학회, 28*(3), 197-224.

김선영. (2013a). 21세기 패션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영상 패션의 미학적 가치. *복식문화학회, 21*(6), 793-809.

김선영. (2013b). Gareth Pugh의 패션 필름에 나타난 미적 특성. *한국복식학회, 63*(1), 1-15.

김선영. (2020).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융합된 샤넬 향수 패션 필름의 유형과 내적 의미.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8*(2), 1-18.

김성빈. (2009).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연구 -제6장 비극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83*, 633-659.

김성화. (2021). 독일어권 캐리커처 연구.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44*, 237-254.

김세진 & 하지수. (2015). 디지털 패션필름에 표현된 메타리얼리티. *복식문화학회, 23*(4), 554-568.

김송미 & 김이경. (2013). 디지털 패션필름의 확산에 따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혁신 -패션쇼와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1), 129-140.

김시몽. (2019). 16세기 펠르티에의 시학에 나타난 번역에 대한 관점과 시적 실천. *한국불어불문학회, 118*, 99-117.

김용석. (2009). 미와 추의 역사에서 인간 조건에 대한 성찰로. *코기토, 65*, 285-296.

김윤옥. (1998). 여성적 특성 및 성욕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과 독일어권 여성 작가의 정체성 문제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17*, 107-129.

김율. (2005). 중세 스콜라 철학의 초월주 이론과 미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현상학과 현대철학, 26*, 207-234.

김은정. (2003). 추의 현대적 이해 -슐레겔의 『그리스 문학 연구에 대하여』-. *한국뷔히너학회, 21*, 141-166.

김은중. (1999). 두엔데: 생명력이 깃든 그늘 -페데리꼬 가르시아 로르까의 시학 연구-. *스페인어문학, 14*, 279-300.

김인환. (1998).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정신분석과 문학 -프로이트에서 크리스테바로-. *불어불문학연구, 37*, 53-75.

김정현. (2008). 무의식과 꿈의 문제 -니체와 프로이트, 융의 해석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13*, 35-67.

김종기. (2012). 플로티노스 미학을 통한 『악의 꽃』 미시독서 시론. *코기토, 71*, 79-103.

김종대. (2014). 칸트의 숭고미에 대해. *외국문학연구, 53*, 101-118.

김지예 & 서승희. (2017). 패션 필름 유형에 따른 스토리텔링 특징 연구. *패션 비즈니스, 21*(4), 1-20.

김지열. (1993). 초현실주의 회화에 있어서의 데페이즈망에 관한 연구. *이화교육논총, 4*, 84-90.

김지영. (2013a).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상호작용 사례 연구: 쇼스튜디오(Showstudio)의 패션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7*(5), 101-119.

김지영. (2013b). 패션 비주얼 메이커 닉 나이트(Nick Knight)의 작품특성. *한국복식학회, 63*(4), 101-117.

김지현 & 조재경. (2018). 휴머노이드 로봇의 언캐니 이미지 연구. *한국*

기초조형학회, 19(1), 147-160.
김청 & 박혜신. (2010). 현대의상에 나타난 미적소외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3), 95-107.
김현숙. (2017). 에로티즘의 관점에서 분석된 사회 - 고대부터 근세까지 조르쥬 바타이유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20*(3), 1-18.
김현정 & 임은혁. (2018). 바흐친의 그로테스크 몸 담론을 통한 리 보워리의 작품 분석. *복식문화학회, 26*(6), 823-835.
김현창. (1988). 가르시아 로르까의 시와 희곡에 나타난 죽음. *인문논총, 20*, 151-173.
김형래. (2009). 영화의 스펙터클과 추의 미학. *인문과학연구, 22*, 268-290.
남인숙. (2008). 추의 미학, 예술학적 의의; 정신분석학에서 본 추의 기원과 현대미술: 프로이트, 라깡을 중심으로. *미학 예술학 연구, 27*, 159-194.
노영덕. (2015). 추와 표현주의 미학. *기초조형학연구, 16*(1), 155-166.
노성숙. (2002). 일상의 미학과 아도르노. *철학, 72*, 221-245.
라영균. (2009). 미적 범주로서의 추. *세계문학비교연구, 29*, 305-325.
류재형. (2014). 리얼 휴먼을 통해 본 휴머노이드 로봇의 언캐니. *인문사회과학연구, 15*(1), 261-294.
류주희, 성기문, & 김형우. (2011). 현대건축에 있어서 숭고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에드먼드 버크의 숭고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1), 43-51.
문한나. (2014).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 이론 연구. *여성신학논집, 11*, 59-92.
민주식. (2006).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본 서양 고대, 중세의 미술이념. *미학, 48*, 101-134.
민형원. (1998). 아도르노의 리얼리즘론에 대한 생성론적 연구 - 아도르노 미학의 근본적인 미학적 범주들에 대한 성찰-. *한국뷔히너학회, 1*

1, 51-72.
박상선. (2004). 아도르노 미학에 있어서 추의 문제. *현대미술연구소논문집, 7*, 54-60.
박승권. (2014). 스토아학파의 진리의 기준. *철학논총, 77*, 141-160.
박언영. (2018). 경계에 대한 재고찰: 프로이트의 『언캐니』 다시 읽기. *탈경계인문학, 11*(2), 71-102.
박영욱. (2012). 미적 가상과 놀이 -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시대와 철학, 23*(4), 109-136.
박월미 & 배수정. (2012). 현대미술과 패션에 차용된 추의 미학에 관한 연구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201-214.
박유정. (2016). 미적 체험에서 본 아름다움의 본질에 관한 고찰. *문화와 융합, 44*, 411-431.
박유정. (2020). 미의 본질과 플라톤주의: 서구 사유의 전통에서 드러난 미적 본질의 초월주의적 성격. *문화와 융합, 42*(11), 1141-1161.
박준상. (2011). 에로티시즘과 두 종류의 언어 - 조르주 바타유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63*(4), 377-404.
박현용. (2017). 프리드리히 슐레겔의 『그리스문학 연구』에 관한 소고 -초기 낭만주의의 고대 그리스문화 수용을 중심으로-. *뷔히너와 현대문학, 49*, 71-90.
방창현. (2016). 현대 도자미술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7*(5), 324-340.
백정현 & 배수정. (2020). 유튜브 채널 패션필름 분석을 통한 크리스찬 디올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특성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2*(6), 716-726.
범서희 & 임은혁. (2018). Prada 패션 필름에 나타난 예술적 표현. *복식문화연구, 26*(6), 888-898.
변영희 & 채금석. (2004).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 이미지에 관한 연

구. *한국복식학회, 54*(5), 27-39.
서정립 & 진경옥. (2006). 가상공간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 패션에 표현된 추. *한국복식학회, 56*(1), 106-120.
손유경 & 김미영. (2019). 프라다 패션 필름에 나타난 브랜드 스토리 특성 연구 -365 Film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22*(4), 39-55.
손유경 & 김미영. (2020). 구찌 패션 필름에 나타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특성 연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중심으로-. *한복문화, 23*(1), 51-67.
신경수. (2019). 아우구스티누스 7자유교과의 철학적 근거 -『질서론』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98*(4), 55-76.
신정환. (2001). 바로크 예술과 에로티시즘. *EU연구, 8*, 171-184.
신창석. (2003). 토마스 아퀴나스 미학의 근본 개념. *철학논총, 34*, 329-350.
심상태. (2004). 그리스도교 역사에 나타난 죽음관.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7*, 99-122.
안미현. (2005). 중세의 죽음의 무도에 나타난 묵시록적 표상. *헤세연구, 14*, 133-153.
안상아, 신미혜, &, 이현화. (2015).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패션필름 유형에 따른 소비자 인식차이. *한국의류학회지, 39*(4), 545-559.
안선경 & 양숙희. (1995).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173-189.
엄경희. (2016). 장정일 시에 나타난 추의 미학과 윤리의 상관성. *국어국문학회, 176*, 627-662.
엄경희. (2018a). 1990년대 남성 시인들의 시에 발화된 언어적 추의 한계. *한국언어문화, 66*, 201-226.
엄경희. (2018b). 현대시 연구방법론 확장을 위한 20세기 이전 추의 미학의 이론적 성찰 -임마누엘 칸트, 헤겔, 빅토르 위고, 카를 로젠크란츠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54*, 187-228.

엄경희. (2018c). 현대시 연구방법론 확장을 위한 20세기 추의 미학의 이론적 성찰 - 프로이트, 볼프강 카이저, T.W. 아도르노, 움베르토 에코, 엘렌 디사나야케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6*, 5-53.

여은희. (2014). 조르조 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와 초현실주의 무의식의 연관성 연구. *예술논집, 15*, 71-93.

오수웅. (2015). 플라톤의 좋음의 이데아. *21세기정치학회보, 25*(1), 1-24.

오양진. (2006). 캐리커처의 인류학 -남정현 소설의 풍자와 아이러니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구, 13*, 343-364.

오진희. (2017). 카니발 그로테스크 미학과 이애림 감독의 애니메이션.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7*, 81-101.

유해민 & 전재훈. (2020). 구찌 컬렉션에 나타나는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캠프 미학 - 데이비드 버그만의 정리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0*(2), 103-120.

유현주. (1999). 미적 경험의 진리이해 문제: 아도르노 미학과 가다머 해석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학 예술학 연구, 10*, 109-118.

유현주. (2010). 현대 예술 및 문화: 두려운 낯설음 - 프로이트, 호프만, 키틀러 그리고 언캐니 밸리-.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3*, 203-221.

윤대선. (2010). 들뢰즈에 있어 형상의 미학이란 무엇인가 - 『감각의 논리』(1981)에 나타난 회화적 존재론을 중심으로-. *미학, 64*, 141-177.

이관형. (2017). 프리드리히 슐레겔에서 예술(문학)과 철학의 관계. *시대와 철학, 28*(4), 67-94.

이동규. (2020). 영화 <이레이저 헤드>에 나타난 추에 관하여. *트랜스, 8*, 29-53.

이문정. (2012). 여성 미술에 나타난 애브젝트(abject)의 육체적 징후(somatic symptom)와 예술적 승화: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32*, 71-102

이미숙, 정경희, & 제레미 스콧 비셋. (2021).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패션 필름에 나타난 내러티브 형식과 수사학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7(1), 283-305.
이상인. (2011). 플라톤의 이데아의 가설: 번역과 해석의 문제. *대동철학, 54*, 57-92.
이상윤. (2021). 포스트모던 숭고로서 안드로이드의 언캐니 분석. *한국예술연구, 32*, 171-193.
이시헌 & 이지현. (2020). 빅터앤롤프의 정크아트 패션에 나타난 추의 미의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통한 의미 해석 - Spring 2015~Spring 2020, Haute Couture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0*(3), 147-166.
이재복. (2009). 한국 현대시와 그로테스크. *우리말 글, 47*, 453-481.
이정은. (2019). 낭만주의자 프리드리히 슐레겔의 철학적 기반 - 칸트와 관련하여-. *헤겔연구, 46*, 159-183.
이창남. (1995). 미-추의 변증과 문화비판 -아도르노 『미학 이론』의 「추-미-기술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헤세연구, 12*, 529-552.
이해운. (2012). 현대시에서의 그로테스크. *한국문학과 예술, 9*, 117-139.
이혜순. (2012). 플라톤의 미학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21, 3*(2), 37-53.
이혜원. (2013). Karl Rosenkranz의 추 개념을 수용한 무용의 표현방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 143-160.
임명규. (2015). 로젠크란츠의 캐리커처와 헤겔의 참된 희극 비교를 통한 아름다운 추 해명. *인문학연구, 50*, 283-308.
임명규. (2017). 로젠크란츠와 보들레르의 추의 미와 캐리커처. *인문학연구, 54*, 385-412.
장영란. (2004). 그리스 신화의 우주생성론. *인문과학논집, 13*, 323-342.
장예완 & 서승희. (2017). 패션필름의 형식과 내용표현의 유형. *패션비즈니스, 21*(2), 45-60.
장욱. (2007).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창조에 대한 이해. *가톨릭철학, 9*, 222-278.
정수경. (2008). 추의 미학, 예술학적 의의; 혐오 미술의 미학적 이해: 신

디 셔먼의 후기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미학예술학회, 27*, 125-158.
정수진 & 임은혁. (2019). 패션필름에 나타난 햅틱(Haptic) 지각 -로라 막스(Laura Marks)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1*(4), 379-389.
정연복. (2008). 17세기 프랑스 회화에서의 바로크와 고전주의.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3*, 555-585.
정연이 & 김남시. (2018). 현대미술에 나타난 애브젝트로서의 여성의 몸. *현대미술학 논문집, 22*(1), 35-61.
정용환. (2013). 키치적 허위와 소설적 진실 -밀란 쿤데라의 키치론-.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9, 243-272.
정윤희. (2008). 아브젝트와 해체, 구성된 여성의 몸 -한스 벨머와 신디 셔먼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성과 그 재현의 문제-. 헤세연구, 19, 295-319.
정현경. (2010). 미와 추의 변증법 -숭고와 코믹-. *헤세연구, 23*, 89-110.
정현숙. (2008).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과 『고백록』을 통해 서본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26*, 147-163.
정현철. (2006). 아도르노의 미학적인 이론에 있어서의 부정성 개념. *헤겔연구, 19*, 183-217.
조경식. (2008). 추의 가치전도와 추한 예술. *뷔히너와 현대문학, 36*, 35-59.
조경식. (2009). 근대에 나타난 심미적 범주로서의 추. *카프카연구, 21*, 243-266.
조선령. (2008). 추의 미학, 예술학적 의의; 라깡 이론에서의 숭고와 추: 세미나 7의 해석을 중심으로. *미학 예술학 연구, 27*, 90-125.
조웅순. (2015).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구사학, 119*, 393-430.
조윤수 & 박선희. (2020).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패션 영상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0*(2), 1-19.

조현숙. (2012). 모성의 반전, 괴물엄마의 살해와 영혼의 어둔 밤에서의 주체 탄생: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abject를 중심으로. *목회와상담, 19*, 157-187.

주경식. (2004). 쉴러의 『미학편지』에 나타난 예술의 자율성. *독일어문학, 12*(3), 159-179.

차용구. (2009). 필립 아리에스의 죽음관에 대한 연구: 죽음에 대한 중세인의 태도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23*, 149-174.

차지연. (2011). 조르주 바타이유의 에로티즘과 소설 『내 어머니』 연구. *탈경계 인문학, 4*(2), 201-229.

최문규. (2014). 18세기 미적 교양의 두 가지 구상: 쉴러와 슐레겔. *유럽사회문화, 13*, 83-106.

최종철. (2016). 홍성담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그 불편함의 미학적 정당성. *현대미술학 논문집, 20*(2), 149-199.

황선희, 김경희, & 최미혜. (2013). 공포영화 캐릭터에 표현된 칼 로젠크란츠의 추 이미지에 관한 연구. *패션과 니트, 11*(3), 10-20.

황필호. (1998). 서양 중세철학에 있어서 철학사와 철학함의 관계. *철학, 56*, 367-392.

허예은, 전재훈, & 하지수. (2016). 패션 필름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관한 연구 -Chanel, Prada, Kenzo, Alexander Wang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40*(2), 315-329.

홍윤정 & 김영인. (2013).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유형과 특성. *복식, 63*(8), 43-57.

3) 학위논문

강방석. (2005). *초현실주의에 대한 프로이트적 재해석과 이를 적용한 단편영화 제작에 관한 연구: 작품 <천사의 날개> 를 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김경미. (2018). *포스트모던 여성작가 작품에 나타난 혐오(Abjection)에 대한 연구: 줄리아 크리스테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김귀석. (2002). *아도르노의 부정성 미학 연구: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김민주. (2021).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패션필름에 나타난 헤리티지의 확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김세진. (2017). *패션필름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의 표현특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김전희. (2014).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재해석: 할 포스터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김현숙. (2016). *조르쥬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 담론에 나타난 에로티즘을 주제로 한 작품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민윤경. (2009). *라캉의 주체논의에 근거하여 살펴본 데이빗 린치의 <멀홀랜드 드라이브>와 <인랜드 엠파이어>*,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서울.
박민정. (2017). *라깡의 욕망이론과 정신분석학적 인권*,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박병윤. (2018). *패션필름에 나타난 브랜드 아이덴티티*,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박성경. (2009). *여성신체의 유추를 통한 도시 공간 소통 회복에 관한 연구: 크리스테바의 기호계적 코라의 개념 확장을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인천.
박세미. (2017). *키치(Kitsch)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박은경. (2005). *캠프 문화로서 고스 스타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

학교. 서울.
배성희. (2006). *키치(kitsch) 현상의 비일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선혜미.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의 미학*,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제주.
안선경. (1994).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양영은. (2011). *에로티시즘의 예술적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유아림. (2015). *현대패션에 나타난 언캐니 이미지의 표현방법*,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윤대웅. (2016). *프로이트와 들뢰즈에게 성과 주체의 문제: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에 대한 비평으로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윤예진. (201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추의 미학: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이문수. (2021). 오를랑(Orlan) *작업의 비결정적 신체: 금기와 위반에 대한 조르주 바타유(George Bataille)의 이론과 연관하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이유진. (2019). *언캐니 개념으로 본 재구성된 신체이미지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이정기. (2015). *패션필름의 유형 차이에 따른 광고태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이정호. (2010). *현대 패션에 나타난 소재의 추: 아도르노와 에코의 시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이현석. (2001). *프로이트의 승화 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진정식. (2001). *키치(Kitsch)미술과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차민정. (2016). *조르주 바타이유의 에로티시즘과 여성 이미지의 변화: 살바도르 달리, 한스 벨머, 신디 셔먼, 한나 윌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최미라.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추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최서윤. (2020).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비동일적 시학으로서의 추 연구: 이상, 김수영, 김지하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탁명주. (2014). *손창섭 소설에서 추의 미학적 전개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인천.

한승연. (2009). *플라톤 관점으로 본 살풀이춤의 미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현정아. (2003). *현대건축에서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아브젝션(abjection)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2. 국외문헌

1) 단행본

Cleto, F. (1999). *Camp: queer aesthetics and the performing subject*.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Geczy, A., & Karaminas, V. (2015). *Fashion's double: Representations of fashion in painting, photography and film*.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Needham, G. (2013). *Mass media: Social aspects. In S. Bruzzi & P. C. Gibson (Eds.), Fashion cultures revisited: Theories, exploration s and analysis.* New York: Routledge.

Royle, N. (2003). *The uncanny*. New York: Routledge.

Sontag, S. (1990). *Against interpret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

k: Anchor Books.

Kulka, T. (1996). *Kitsch and art*. University Park: Penn State Univers ity Press.

Uhlirova, M. (2013). *The fashion film effect. In D. Bartlett, S. Cole, & A. Rocamora (Eds.). Fashion media: past and present.*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2) 학술지

Cecchinato, G. (2017). Ugly and interested art - Modernity, freedom a nd demoncratization of taste in F. Schlegel. *Revista de Estudios s obre Fichte, 15*, 12-29.

Fuller, B. W. (2016). Adorno reading and writing sociolog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9*(3), 431-448.

Macklin, C. (2010). Musical irrationality in the shadow of Pythagoras. *Contemporary music review, 29*(4), 387-393.

Clarke, L. H. (2020). The new realism of the Roman: Friedrich Schleg el's theory of the novel and Byron's Don Juan. *Modern philology, 117*(4), 497-514.

Moloney, A. (2018). Fashion exhibition as film. *Film, fashion & consu mption, 7*(1), 39-55.

Cook, D. (2020). Adorno, Kant and enlightenment. *Kantian review, 25* (4). 541-557.

Forcen, F. & Espi, F. (2015). Ars moriendi: Coping with death in th e late middle ages. *Palliative & supportive care. 14*(5). 553-560.

Hodge, J. (2019). Adorno and phenomenology: Between Hegel and Hu sserl. *Philosophy today, 63*(2). 403-425.

Ritchie, K. (2008). Fashion forward SHOWstudio and YSL reinvent the runway. *Postmedia Network, 7*, 36.

Khan, N. (2012). Cutting the fashion body: Why the fashion image is no longer still. *Fashion Theory, 16*(2), 235-250.

Mojca, K. (2011). Disgust and ugliness: a Kantian perspective. *Contemporary aesthetics, 9*, 227-235.

Siniscalchi, G. B. (2015). Thomas Aquinas, nature evil, and outside the church, no salvation. *Heythrop journal, 56*(1). 76-86.

Soloaga, P. (2016). Fashion films as a new communication format to build fashion brands. *Communication & Society, 29*(2), 45-61.

3. 기타자료

1) 웹사이트

A beautiful darkness. (2015년 10월 30일). *SHOWstudio*. 2020년 12월 18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_beautiful_darkness

Alexander, F. (2015년 11월 10일). Pioneer on why he doesn't want to be called a photographer. *Independent*. 2021년 05월 29일 검색. https://www.independent.co.uk/life-style/fashion/features/nick-knight-wins-isabella-blow-award-fashion-creator-british-fashion-awards-a6727711.html

Aquelarre. (2015년 02월 16일). *SHOWstudio*. 2021년 02월 21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quelarre

Bella, G. (2020년 03월 20일). I, for one, welcome our new tech overlords. *SHOWstudio*. 2021년 06월 01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eremonial-formality/essay-i-one-welcome-our-new-te

ch-overlords

Bess NYC. (2015년 12월 22일). *SHOWstudio*. 2021년 05월 28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randed/interview_bess_nyc

Branded. (2015년 12월 22일). *SHOWstudio*. 2021년 04월 14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randed

Can't help loving that brand. (2008년 07월 23일). *SHOWstudio*. 2021년 03월 03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noki_can_t_help_loving_that_brand?autoplay=1

Caryn, F. (2012년 05월 02일). Age. *SHOWstudio*. 2021년 04월 23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essay_age

Carrie, S. (2015년 12월 22일). Butchering brands. *SHOWstudio*. 2021년 02월 19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randed/essay_butchering_brands

Carrie, S. (2019년 06월 30일). The photo of a girl. *SHOWstudio*. 2021년 04월 23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essa/essay-photo-girl

Cassidy, G. (2018년 01월 12일).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london's loverboy, Charles Jeffrey. *SLEEK*. 2021년 04월 04일 검색. https://www.sleek-mag.com/article/charles-jeffrey-loverboy/

Catcalling and self-awareness. (2019년 07월 04일). *SHOWstudio*. 2021년 02월 02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uglyworldwide/catcalling-and-self-awareness

Charlotte, G. (2017년 09월 15일). Gareth pugh wants to hijack your mind with his visceral anti-fashionfilm. *i-D*. 2021년 03월 28일 검색. https://i-d.vice.com/en_uk/article/7xkvpd/gareth-pugh-wants-to-hijack-your-mind-with-his-visceral-anti-fashion-film

Christabel, S. (2003년 04월 17일). Guy Bourdin(1928-91). *SHOWstudio*. 2021년 04월 12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o

mpulsive_viewing_the_films_of_guy_bourdin/guy-bourdin-1928-91

Comme Des Garcons. (2016년 10월 2일). *SHOWstudio.* 2021년 03월 19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omme_des_garcons/fashion_film?autoplay=1

Compulsive viewing: the films of Guy Bourdin. (2003년 4월 17일). *SHOWstudio*. 2021년 03월 27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ompulsive_viewing_the_films_of_guy_bourdin

Daniel, R. (2021년 03월 26일). Charles Jeffrey is getting over the gloom, and more fashion news you missed. *DAZED*. 2021년 04월 23일 검색. https://www.dazeddigital.com/fashion/article/52321/1/charles-jeffrey-selfridges-louis-vuitton-stefan-cooke-comme-des-garcons-news

Dean, K. (2015). Nick Knight on the future of fashion. *Protein*. 2021년 03월 03일 검색. https://www.prote.in/profiles/nick-knight-on-the-future-of-fashion

Donald, U. (2004년 10월 04일). The legacy of Leigh Bowery. *SHOWstudio*. 2021년 01월 31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uiser/the_legacy_of_leigh_bowery

Drag, breast-reduction and trolls. (2019년 07월 04일). *SHOWstudio.* 2021년 04월 15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uglyworldwide/drag-breast-reduction-trolls

Dressing the screen. (2014년 03월 07일). *SHOWstudio*. 2021년 06월 17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dressing_the_screen_russia/essay-new-russian-fashion-landscape

Echtes leder. (2017년 06월 16일). *SHOWstudio*. 2021년 03월 14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adam_csoka_keller_echtes_leder?autoplay=1

Emer, O. (2012년 06월 13일). Head shaving. *SHOWstudio*. 2021년 01

월 17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essay_trichophilia

Erika, E. (2012년 06월 22일). Objectum sexuality. *SHOWstudio*. 2021년 02월 19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blurred_lines

Face your mask. (2019년 10월 17일). *SHOWstudio*. 2021년 02월 21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shortlist-face-your-mask?autoplay=1

Fashion fetish. (2012년 3월 22일). *SHOWstudio*. 2021년 03월 05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

Fashion film awards 2016 in collaboration with QIC global real estate. (2015년 10월 21일). *SHOWstudio*. 2021년 06월 01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awards_16

Fashion film awards 2019 in partnership with Harrods. (2019년 07월 25일). *SHOWstudio*. 2021년 03월 08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

Frances, C. (2008년 07월 24일). The politics of fashion. *SHOWstudio*. 2021년 03월 04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essay_frances_corner

Future tense. (2008년 08월 06일). *SHOWstudio*. 2021년 05월 16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uture_tense

Gareth Pugh S/S 18. (2017년 09월 17일). *SHOWstudio*. 2021년 04월 15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areth_pugh_s_s_18

Gasmasks. (2008년 07월 24일). *SHOWstudio*. 2021년 04월 12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steven_klein_gasmasks?autoplay=1

Genoa-we are history. (2008년 07월 23일). *SHOWstudio*. 2020년 12월 17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bo

udicca_genoa_we_are_history?autoplay=1

Guiser. (2004년 10월 11일). *SHOWstudio*. 2020년 12월 31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uiser

Hannah, B. (2018). Nick Knight OBE. *Nick Knight*. 2021년 06월 02일 검색. https://www.nickknight.com/press/nickknightoddamagazine

Kathryn, F. (2013년 10월 25일). Rear guard. *SHOWstudio.* 2021년 03월 14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kathryn_ferguson?autoplay=1

Lara, J. W. (2020). Nick Knight on working hard and embracing the new. *1GRANARY*. 2021년 02월 12일 검색. https://1granary.com/fashion-image/nick-knight-on-working-hard-and-embracing-the-new/

Lepus Cornutus. (2017년 06월 16일). *SHOWstudio*. 2021년 04월 28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kenji_hirano_lepus_cornutus?autoplay=1

Mark, H. (2006). The image maker. *Nick Knight*. 2021년 03월 04일 검색. https://www.nickknight.com/press/the-image-maker

Maenads. (2020년 02월 08일). *SHOWstudio*. 2021년 01월 18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enads

My life in nail bars. (2019년 10월 17일). *SHOWstudio*. 2021년 02월 03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my-life-in-nail-bars?autoplay=1

Natural order. (2017년 02월 28일). *SHOWstudio*. 2021년 06월 01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natural_order_alyx_a_w_16

Nick, K. (2017년 09월 01일). Nick Knight's mastered course. *SHOWstudio*. 2021년 01월 21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ster/brief

Political fashion. (2008년 07월 23일). *SHOWstudio*. 2021년 04월 17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

Puberty. (2021년 03월 25일). *SHOWstudio*. 2021년 02월 19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fashion-film-puberty?autoplay=1

Punk. (2013년 08월 27일). *SHOWstudio*. 2021년 05월 26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

Queer discrimination, art and breaking out. (2019년 07월 04일). *SHOWstudio*. 2021년 03월 29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uglyworldwide/queer-discrimination-art-breaking-out*

Roberta, M. (2012년 05월 25일). Mesh. *SHOWstudio*. 2021년 06월 12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flesh_meets_mesh

Samantha, C. (2020년 05월 26일). Nick Knight talks image-making in the digital age. *WWD*. 2021년 01월 18일 검색. https://wwd.com/business-news/media/media-people-nick-knight-fashion-films-death-photography-image-making-digital-age-1203638149/

Sarah, K. C. (2014년 11월 19일). Lolita. *SHOWstudio*. 2021년 05월 01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irly/essay_lolita

Sarah, Raphael. (2015). Nick Knight's digital fashion concept.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 2021년 03월 09일 검색. https://www.1854.photography/2015/05/showstudio-nick-knights-digital-fashion-concept/

Soap opera. (2014년 01월 23일). *SHOWstudio*. 2021년 02월 18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ap_opera

Studs. (2012년 7월 27일). *SHOWstudio*. 2021년 03월 25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tuds

Tessa. (2019년 06월 30일). *SHOWstudio*. 2021년 04월 16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essa

The deep web. (2014년 01월 25일). *SHOWstudio*. 2021년 05월 18일 검

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deep_web
The fashion body. (2010년 7월 16일). *SHOWstudio*. 2021년 02월 12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search/the%20fashion%20body
The garden. (2015년 10월 30일). *SHOWstudio*. 2021년 04월 27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_beautiful_darkness/film_jeff_vash?autoplay=1
The laboratory of capitalism. (2008년 7월 23일). *SHOWstudio*. 2021년 03월 13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jason_evans_the_laboratory_of_capitalism?autoplay=1
The rite. (2019년 10월 17일). *SHOWstudio*. 2021년 05월 21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the-rite?autoplay=1
Victoria, T. (2012년 8월 24일). Dolls. *SHOWstudio*. 2021년 04월 24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essay_dolls
Vikram, A. K. (2010년 12월 02일). Nick Knight on the fashion industry. *Business of Fashion*. 2021년 02월 27일 검색. https://www.businessoffashion.com/articles/news-analysis/fashion-pioneers-nick-knight-says-heart-and-mind-are-the-key-to-fashion-imagemaking
Violet, C. (2021년 04월 13일). Communication fashion during a pandemic. *SHOWstudio*. 2021년 06월 05일 검색.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autumn_winter_2021/essay-communicating-fashion-during-a-pandemic
"데페이즈망". (n.d.). *미술대사전*. 2021년 02월 17일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9669&cid=42635&categoryId=42635
"점근선". (n.d.). *네이버 수학백과*. 2021년 06월 23일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0674&cid=60207&categoryId=60207
"추". (n.d.).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년 12월 01일 검색. https:/

/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25324&searchKeywordTo=3
“캐리커처”. (n.d.). *미술대사전*. 2021년 01월 01일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4002&cid=42635&categoryId=42635

2) 그림자료

<그림 1> 자료출처: 연구자
<그림 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fashion_body/neck_by_steven_klein?autoplay=1
<그림 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fashion_body/left_thigh_by_peter_gray_and_deborah_milner?autoplay=1
<그림 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amanda_harlech?autoplay=1
<그림 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randed/film_1?autoplay=1
<그림 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randed/film_1?autoplay=1
<그림 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randed/film_2?autoplay=1
<그림 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randed/film_2?autoplay=1
<그림 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ada

m_csoka_keller_echtes_leder?autoplay=1

<그림 1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adam_csoka_keller_echtes_leder?autoplay=1

<그림 1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_beautiful_darkness/film_jeff_vash?autoplay=1

<그림 1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_beautiful_darkness/film_jeff_vash?autoplay=1

<그림 1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ster/the-golden-fish-fairytale?autoplay=1

<그림 1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ster/the-golden-fish-fairytale?autoplay=1

<그림 1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ster/the-golden-fish-fairytale?autoplay=1

<그림 1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shortlist-respiration?autoplay=1

<그림 1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shortlist-respiration?autoplay=1

<그림 1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noir/fashion-film-noir?autoplay=1

<그림 1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noir/fashion-film-noir?autoplay=1

<그림 2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noir/fashion-film-noir?autoplay=1

<그림 2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areth_pugh_s_s_18/fashion_film?autoplay=1

<그림 2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areth_pugh_s_s_18/fashion_film?autoplay=1

<그림 2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enads/fashion-film?autoplay=1

<그림 2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enads/fashion-film?autoplay=1

<그림 2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marianne-maric-1?autoplay=1

<그림 2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marianne-maric-1?autoplay=1

<그림 2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marianne-maric-2?autoplay=1

<그림 2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marianne-maric-2?autoplay=1

<그림 2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fashion_body/chest_by_alice_hawkins?autoplay=1

<그림 3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fashion_body/chest_by_alice_hawkins?autoplay=1

<그림 3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fashion_body/chest_by_alice_hawkins?autoplay=1

<그림 3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ap_opera/episode_7_breathless?autoplay=1

<그림 3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ap_opera/episode_7_breathless?autoplay=1

<그림 3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fashion_body/genitals_male_by_bart_hess?autoplay=1

<그림 3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ster/student-submission-sexting?autoplay=1

<그림 3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ster/student-submission-sexting?autoplay=1

<그림 3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ster/student-submission-se

xting?autoplay=1

<그림 3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fashion_body/genitals_female_by_champagne_valentine_and_lucy_mcrae?autoplay=1

<그림 3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fashion_body/genitals_female_by_champagne_valentine_and_lucy_mcrae?autoplay=1

<그림 4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erica_schreiner?autoplay=1

<그림 4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t_your_head_on_my_shoulders/fashion_film?autoplay=1

<그림 4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t_your_head_on_my_shoulders/fashion_film?autoplay=1

<그림 4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t_your_head_on_my_shoulders/fashion_film?autoplay=1

<그림 4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tuds/fashion_film?autoplay=1

<그림 4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tuds/fashion_film?autoplay=1

<그림 4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rca_ma_2013/fashion_film?autoplay=1

<그림 4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ster/solanum?autoplay=1

<그림 4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fashion_body/buttocks_by_ruth_hogben?autoplay=1

<그림 4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ruth_hogben?autoplay=1

<그림 5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ft_furnishings/soft_furnishings_2017?autoplay=1

<그림 5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ft_furnishings/soft_furnishings_2017?autoplay=1

<그림 5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essa_kuragi_reverie/fashion-film-reverie?autoplay=1

<그림 5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essa_kuragi_reverie/fashion-film-reverie?autoplay=1

<그림 5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essa_kuragi_reverie/fashion-film-reverie?autoplay=1

<그림 5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essa/film?autoplay=1

<그림 5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essa/film?autoplay=1

<그림 5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essa/film?autoplay=1

<그림 5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ellie_grace_cumming?autoplay=1

<그림 5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liberty_ross?autoplay=1

<그림 6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liberty_ross?autoplay=1

<그림 6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ster/pluck?autoplay=1

<그림 6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ster/pluck?autoplay=1

<그림 6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killer_heels/fashion-film-killer-heels?autoplay=1

<그림 6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betony_vernon_l_envol_take_flight?autoplay=1

<그림 6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irly/girl?autoplay=1

<그림 6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irly/girl?autoplay=1

<그림 6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ersona/fashion-film?autoplay=1

<그림 6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luci_schroder?autoplay=1

<그림 6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luci_schroder?autoplay=1

<그림 7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luci_schroder?autoplay=1

<그림 7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quelarre/fashion-film-aquelarre-2?autoplay=1

<그림 7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quelarre/fashion-film-aquelarre-5?autoplay=1

<그림 7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quelarre/fashion-film-aquelarre-10?autoplay=1

<그림 7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_beautiful_darkness/film_rei_nadal?autoplay=1

<그림 7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_beautiful_darkness/film_rei_nadal?autoplay=1

<그림 7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_beautiful_darkness/film_rei_nadal?autoplay=1

<그림 7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lack_2015/fashion_film?autoplay=1

<그림 7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lack_2015/fashion_film?autoplay=1

<그림 7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areth_pugh_a_w_17/fashion-film-2?autoplay=1

<그림 8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areth_pugh_a_w_17/fashion-film-2?autoplay=1

<그림 8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autumn-winter-2020-haute-couture/christian-dior/fashion-film

<그림 8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autumn-winter-2020-haute-couture/christian-dior/fashion-film

<그림 8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ake_up_your_mind/make_up_your_mind?autoplay=1

<그림 8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extraordinary_gentlemen/fashion_film?autoplay=1

<그림 8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extraordinary_gentlemen/fashion_film?autoplay=1

<그림 8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die_verwandlung/fashion-film?autoplay=1

<그림 8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

tion-harrods/my-life-in-nail-bars?autoplay=1

<그림 8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my-life-in-nail-bars?autoplay=1

<그림 8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eremonial-formality/fashion-film?autoplay=1

<그림 9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eremonial-formality/fashion-film?autoplay=1

<그림 9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awards_16/finalist-fashion-film-je-te-veux?autoplay=1

<그림 9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awards_16/finalist-fashion-film-je-te-veux?autoplay=1

<그림 9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kenji_hirano_lepus_cornutus?autoplay=1

<그림 9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kenji_hirano_lepus_cornutus?autoplay=1

<그림 9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exclusives/waltz-of-fragments?autoplay=1

<그림 9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ompulsive_viewing_the_films_of_guy_bourdin/mackerel-girl?autoplay=1

<그림 9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moving_fashion/steven_klein?autoplay=1

<그림 9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steven_klein_gasmasks?autoplay=1

<그림 9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steven_klein_gasmasks?autoplay=1

<그림 10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steven_klein_gasmasks?autoplay=1

<그림 10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jason_evans_the_laboratory_of_capitalism?autoplay=1

<그림 10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jason_evans_the_laboratory_of_capitalism?autoplay=1

<그림 10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lara_verheijden_ninamounah_x_stadman_lara?autoplay=1

<그림 10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lara_verheijden_ninamounah_x_stadman_lara?autoplay=1

<그림 10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lara_verheijden_ninamounah_x_stadman_lara?autoplay=1

<그림 10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winner-best-beauty-film-before-and-after?autoplay=1

<그림 10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winner-best-beauty-film-before-and-after?autoplay=1

<그림 10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autumn_winter_2021/thom-browne-aw-21/fashion-film?autoplay=1

<그림 10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autumn_winter_2021/thom-browne-aw-21/fashion-film?autoplay=1

<그림 11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spring-summer-2021/sinead-odwyer-june-2020/fashion_film_part_1?autoplay=1

<그림 11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autumn_winter_2021/matty-bovan-aw-21-womenswear/fashion-film?autoplay=1

<그림 11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omme_des_garcons/fashion_film?autoplay=1

<그림 11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omme_des_garcons/fashion_film?autoplay=1

<그림 11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cale/fashion-film?autoplay=1

<그림 11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cale/fashion-film?autoplay=1

<그림 11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shortlist-face-your-mask?autoplay=1

<그림 11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he_deep_web/fashion_film?autoplay=1

<그림 11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fred_butler_conspicuous_consumption?autoplay=1

<그림 11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fred_butler_conspicuous_consumption?autoplay=1

<그림 12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noki_can_t_help_loving_that_brand?autoplay=1

<그림 12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dressing_the_screen_russia/fashion-film-turbo?autoplay=1

<그림 12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uiser/guiser-1?autoplay=1

<그림 12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uiser/guiser-2?autoplay=1

<그림 12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uiser/guiser-3?autoplay=1

<그림 12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guiser/guiser-4?autoplay=1

<그림 12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oy_meets_wool_charles_jeffrey_loverboy/fashion_film?autoplay=1

<그림 12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infamy/fashion-film?autoplay=1

<그림 12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infamy/fashion-film?autoplay=1

<그림 12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infamy/fashion-film?autoplay=1

<그림 13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uglyworldwide/fashion-film-uglyworldwide?autoplay=1

<그림 13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uglyworldwide/fashion-film-uglyworldwide?autoplay=1

<그림 13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uglyworldwide/fashion-film-uglyworldwide?autoplay=1

<그림 13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fashion-film-puberty?autoplay=1

<그림 13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fashion-film-puberty?autoplay=1

<그림 13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ap_opera/episode_5_white_magic?autoplay=1

<그림 13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ap_opera/episode_5_white_magic?autoplay=1

<그림 13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ap_opera/episode_5_white_magic?autoplay=1

<그림 13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ap_opera/episode_8_radical_artist?autoplay=1

<그림 13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ap_opera/episode_8_radical_artist?autoplay=1

<그림 14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marcus_werner_hed_the_red_shoes?autoplay=1

<그림 14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boudicca_genoa_we_are_history?autoplay=1

<그림 14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boudicca_genoa_we_are_history?autoplay=1

<그림 14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dean_rogers_untitled?autoplay=1

<그림 14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laura_falconer?autoplay=1

<그림 14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laura_falconer?autoplay=

1

<그림 14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laura_falconer?autoplay=1

<그림 14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dressing_the_screen_russia/fashion-film-new-times?autoplay=1

<그림 14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awards_16/finalist-fashion-film-asymptote?autoplay=1

<그림 14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awards_16/finalist-fashion-film-asymptote?autoplay=1

<그림 15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natasa_vojnovic_barnaby_roper_untitled?autoplay=1

<그림 15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aitor_throup_22_july_2005?autoplay=1

<그림 15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nick_knight_untitled?autoplay=1

<그림 15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the-rite?autoplay=1

<그림 15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the-rite?autoplay=1

<그림 15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greg_kadel_black_balloon?autoplay=1

<그림 15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greg_kadel_black_balloon?autoplay=1

<그림 15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natural_order_alyx_a_w_16/fashion_film?autoplay=1

<그림 15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kenji_hirano_una_color?autoplay=1

<그림 15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kenji_hirano_una_color?autoplay=1

<그림 16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kenji_hirano_una_color?autoplay=1

<그림 16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dressing_the_screen_russia/fashion-film-somnia?autoplay=1

<그림 16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dressing_the_screen_russia/fashion-film-somnia?autoplay=1

<그림 16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dressing_the_screen_russia/fashion-film-somnia?autoplay=1

<그림 16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dressing_the_screen_russia/fashion-film-somnia?autoplay=1

<그림 16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reedom/the_fall_of_the_corset?autoplay=1

<그림 16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reedom/the_fall_of_the_corset?autoplay=1

<그림 16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reedom/the_fall_of_the_corset?autoplay=1

<그림 16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jez_tozer_films_for_showstudio_02?autoplay=1

<그림 16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jez_tozer_films_for_showstudio_02?autoplay=1

<그림 17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aimee_mullins_cut_out?autoplay=1

<그림 17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aimee_mullins_cut_out?autoplay=1

<그림 17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onstructed/fashion-film-barbara-bird?autoplay=1

<그림 17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constructed/fashion-film-barb

ara-bird?autoplay=1

<그림 17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nick_knight_feminist?autoplay=1

<그림 17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nick_knight_feminist?autoplay=1

<그림 17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kathryn_ferguson?autoplay=1

<그림 17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kathryn_ferguson?autoplay=1

<그림 17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kathryn_ferguson?autoplay=1

<그림 17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ransformer/eat-fashion-erin-oconnor?autoplay=1

<그림 18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transformer/eat-fashion-erin-oconnor?autoplay=1

<그림 18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warren_du_preez_nick_thornton_jones_consumption?autoplay=1

<그림 182>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liberty_ross_cut?autoplay=1

<그림 183>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liberty_ross_cut?autoplay=1

<그림 184>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ap_opera/episode_11_money_shot?autoplay=1

<그림 185>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oap_opera/episode_11_money_shot?autoplay=1

<그림 186>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shortlist-cry-of-the-city?autoplay=1

<그림 187>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shortlist-cry-of-the-city?autoplay=1

<그림 188>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erica_schreiner?autoplay=1

<그림 189>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etish/erica_schreiner?autoplay=1

<그림 190>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urzulka_and_juliana_ramirez_belly_flop?autoplay=1

<그림 191> SHOWstudio. 자료출처: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urzulka_and_juliana_ramirez_belly_flop?autoplay=1

Abstract

Fashion film from the perspectives of modern ugliness

-Focused on SHOWstudio's works-

Junyoung Hong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gliness, which had long been a negative form of beauty, has become an independent aesthetic category today. Such ugliness is expressed in many ways in contemporary art, not only in formative art but also in literature, film, and fashion.

Runway was a key media offering a designer's seasonal concept, but with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and increased aesthetic taste of public, the fashion industry became interested in the new media called fashion film. Unlike the early fashion films that replaced runway, fashion films since the 2000s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own aesthetic value through various experiments and collaboration with artists in various fields to create innovative images. In particular, Nick Knight, a fashion image maker who explores the

extremes of beauty along with active collaboration with various emerging artists, plays a leading role in fashion films through SHOWstudio.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derived the perspectives of modern ugliness based on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ugliness, and analyzed the fashion film of SHOWstudio based on this.

The research topic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ugliness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the changes in the era of ugliness are examined, and by synthesizing the discussion of ugliness after the 20th century, ugliness from a modern perspective to derive.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ugliness, fashion films of SHOWstudio are analyzed.

Based on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ugliness, this study derived 'ugliness as a violation of taboo', 'ugliness as an unpleasant emotion', 'ugliness as a vulgar taste', and 'ugliness as an ethical flaw' as a perspectives of modern ugliness. Later, the definition and types of fashion film were examine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major projects of SHOWstudio were analyzed. The cases were selected as the final example of 145 films that matched the perspectives of this study after watching all videos tagged 'fashion film' from 2000 to the presen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ases of SHOWstudio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uglines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SHOWstudio, works that violated the death and sexual taboos appeared. Fashion films expressing the violation of death taboos appeared as image expressing direct death and visualizing abjects. On the other hand, fashion films that violate sexual taboos

include works that explicitly expose sexual body parts and images with various types of fetishism, including homosexuality.

Second, fashion films that induce unpleasant emotions appeared as works dealing with supernatural phenomena and fear caused by objects, works that induce the uncanny valley effect, and works that assumed irrational situations.

Third, fashion films expressing ugliness as a vulgar taste appeared as works that undermined the authority of the subject or contained satirical messages, and works that expressed flamboyant queer.

Fourth, in SHOWstudio, fashion films dealing with ethical flaws were found as political problems and war,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awareness of the natural environment, women's issues, and materialism's problems.

As a result of the above cas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ole of dress in SHOWstudio's fashion film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s of ugliness. In the works dealing with the violation of taboos, dress was used as a means to reinforce the theme of the fashion film through formative forms related to death. In particular, in works dealing with violations of sexual taboos, dress were shown to be objects of sexual fetishes such as stockings, and latex. On the other hand, in the works in which ugliness as an unpleasant emotion appeared, the role of dress was not significant. Although costumes such as bizarre headpieces and masks contributed to the atmosphere of the fashion films, the cause of unpleasant emotions is mostly from surreal objects or situations itself, so dress could not play a key role in inducing feelings of ugliness. In a fashion film expressing a vulgar taste, dress played a core role in enhancing the formativeness of the work or conveying the theme of the work through its symbolic

meaning. Similarly, in fashion films in which ugliness as an ethical flaw appeared, dress itself became a subject or functioned a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narrative structure of fashion films. In the works, corsets with strong symbolic meaning, people wearing the same clothes, and clothes in the form of restraints on the body clearly expressed the ethical flaws of modern society.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formative analysis of ugliness, this study analyzed SHOWstudio's fashion films from the perspectives of various ugliness, such as taboo violations, unpleasant emotions, vulgar tastes, and ethical flaws. Due to the nature of SHOWstudio, which is free from censorship and regulation compared to mainstream media, ugliness has been associated with socially sensitive topics along with provocative images, and dress in fashion films has been used as tools to enhance visual effects of images or deliver themes. In particular, in the works of ugliness as an ethical flaw, dress itself emerged as a key element of the fashion films.

This study expands the discussion of ugliness, which was limited to fashion collections, by analyzing the ugliness that appears in fashion films, which are emerging as major media in modern fashion. In addition,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that were limited to Rosenkrantz's theory of ugliness, it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synthesizing viewpoints on ugliness discussed in the academic fields of philosophy, aesthetics, and psychoanalysi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and suggesting the perspectives of modern ugliness.

keywords : Ugliness, Aesthetics, Dress, Fashion film, SHOWstudio

Student Number : 2019-20296